

# 제주성 일대 옛길의 가치규명 및 보존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강경희 · 김태일 · 박경훈 · 이윤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발 간 사

제주성 주변의 옛길은 제주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구성하는 역사적 가치와 정취가 살아 숨 쉬는 길로서 제주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길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를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역사적 고증 및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정확한 옛길 실태와 보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조사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성 주변 옛길 실태에 대한 실증 조사를 통해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구명하여 보존 방안을 제시하고, 옛길 가꾸기 등을 통해 원도심의 이미지를 재창출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와 옛길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914년 지적도 상의 원도심 도로의 위상을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부분적인 도로개설로 변화는 있었으나 해방 전후의 제주옛길 모습이 거의 원형으로 유지되고 있고, 1974년 발간된 ‘전화번호부’를 통해 당시와 지금의 제주성 일대 40년간의 생활과 문화시설들의 분포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비교한 결과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장차 보존 활용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역사 풍경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주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경관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여 문화예술의 기능이 접목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등 미래발전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노력해주신 연구진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며 이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어 제주성 일대 옛길의 가치가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강기춘



## 연구요약

### I. 연구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주성 일대는 탐라국 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근·현대시기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으로 제주의 역사가 고스란히 집적되어 있는 지역이다.

일제강점기 때 제주성 일대는 차츰 훼손 멸실되면서 크게 변모했으나, 그 일대의 옛길은 대부분 잔존해 있다. 제주성 주변의 옛길은 제주 사람들의 삶의 공간의 일부를 구성하는 역사적 가치와 정취가 살아 숨쉬는 길로서 제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옛길이 지자체와 지역민, 나아가 문화관광산업의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제주성 주변 옛길 역시 문화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문화를 활용한 길 걷기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주성 주변의 옛길에 대한 고증 및 실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앞으로 제주성 일대 옛길의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스토리 생산 및 활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옛길 실태 및 보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성 일대 옛길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 실증적 연구 조사를 실시하여 옛길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보존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옛 골목길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의 고유 가치를 밝힘과 동시에 특성화하기 위한 옛길 가꾸기 방안을 통해 쇠퇴하는 원도심의 이미지를 재창출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함양과 지역주민 융합,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3. 연구 내용

- 공간적 범위
  - ▶ 문헌 및 실제 현장을 근거한 제주성 일대 옛길(옛 골목길)
- 내용적 범위
  - ▶ 첫째, 제주성 일대 옛길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 옛길 원형 검토
  - ▶ 둘째, 제주성 일대 현장 조사를 통해 옛길 원형과 현 상황 실태 비교 후 잔존하고 있는 옛길 파악
  - ▶ 셋째, 지역향토사 연구자와 지역 고로의 인터뷰를 통해 옛 마을과 옛길의 실태에 대한 고증 확보
  - ▶ 넷째,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제주성 일대 옛길의 가치와 중요성 제시
  - ▶ 다섯째, 국내 옛길 사례 조사를 토대로 옛길의 보존 활용방안 제시

### 4.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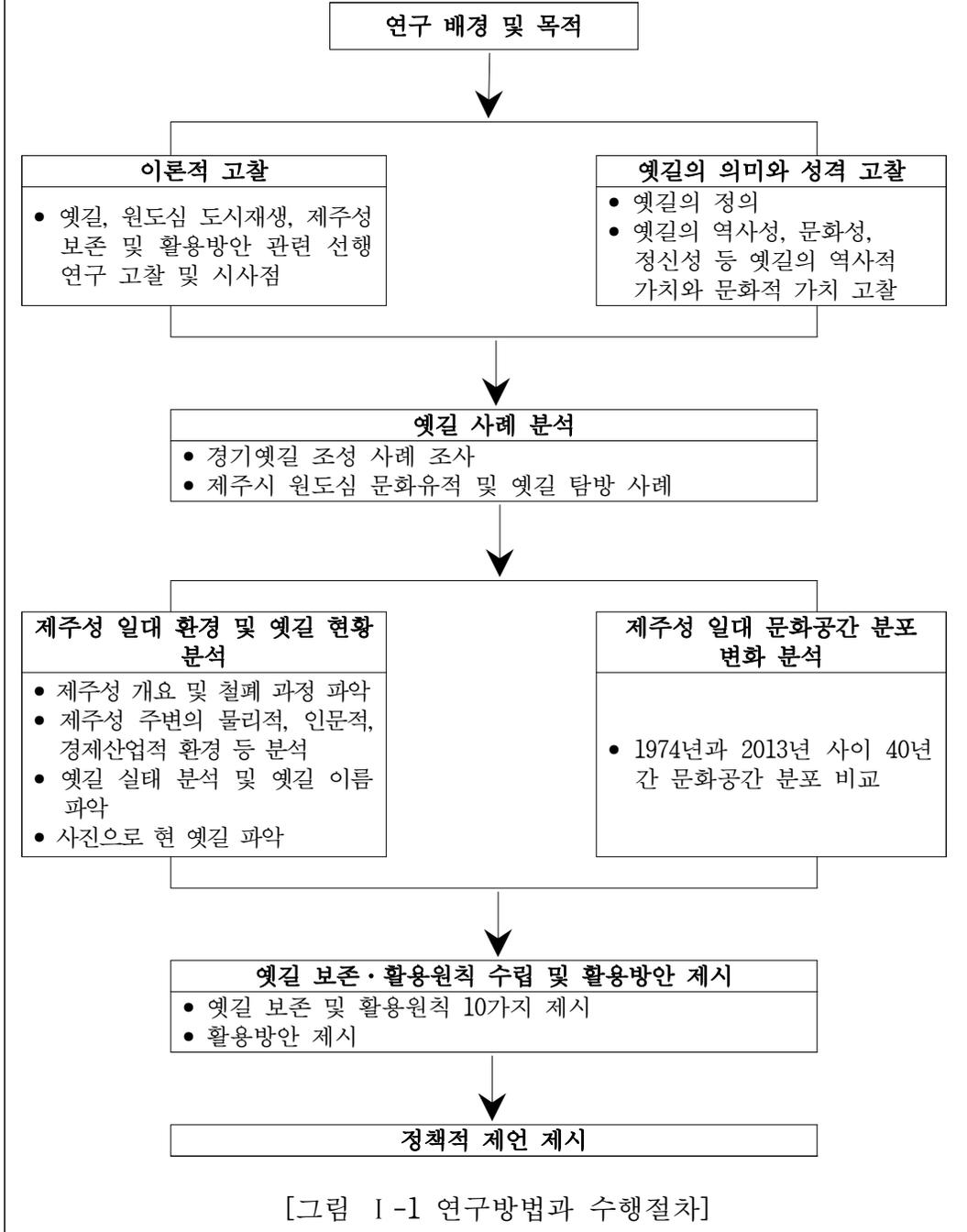
- 연구협력체계
  - ▶ 인류학, 건축도시계획, 문화기획, 역사 등 다분야의 연구자와 지역향토사 연구자 및 지역 고로(古老) 등 자문위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구술조사
- 국내 옛길 사례 조사

### 5. 연구의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
  - ▶ 지역주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원도심의 지역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 경제적 기여도
  - ▶ 옛길 보존과 주변 역사문화유산과 전통시장 등을 연계한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교육적 기여도
  - ▶ 옛길과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

○ 환경적 기여도

- ▶ 옛길 조성으로 제주의 전통적·역사적 경관 형성에 기여하고, 도시환경재생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 제시하는데 활용 가능



## II. 옛길의 의미와 성격

### 1. 옛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옛길 관련 연구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길 종합안내 포털사이트 운영
	한정훈(2010)	옛길의 복원사업은 옛길의 역사성에 대한 철저한 학술조사 필요
	민현석·송지영 (2009)	옛길의 역사적 가치 발굴 및 복원은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깨닫고, 그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인식하여 지역의 문화가치를 높임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음.
	김충영(2009)	역사도시의 복원은 도시계획적인 측면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고려하여 복원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양상호(2011)	제주읍성의 원형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로 신작로 개설 이전 구한말 시기의 도로체계를 복구한 후 그에 대한 특성적 요소를 파악하고 있음.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연구	엄상근(2013)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시재생 개념을 정리하여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에 적용함.
	김태일(2015)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원도심의 지역재생 방향 제시
제주성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3)	제주성의 역사적 중요성을 고찰한 후 제주성지, 성곽에 대한 보존과 관리, 활용방안 제시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5)	제주성 관련 사진과 고지도 등을 통해 제주성과 그 일대의 변모 과정 재조명
선행연구의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옛길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옛길의 역사성, 장소성, 문화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옛길에 대한 실태와 의미 등 철저한 학술조사가 수행되어야 함.</li> <li>▶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내용 토대 위에 지금까지 연구가 전무한 제주성 일대의 옛길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가치를 재조명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려고 함.</li> </ul>	

### 2. 옛길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

#### ○ 길의 역사성 제시

- ▶ 길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역사성과 정신적 활동을 포함한 살아 움직이는 귀중한 자료, 즉 소중한 역사박물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길의 사회적·문화적 가치

- ▶ 길은 사람들의 삶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공간으로 사회·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길은 가로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공공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공문화의 플랫폼’이다.

○ 시간적·공간적 범주에서의 옛길

- ▶ 옛길은 길의 보편적 속성에 더하여 새 길과는 달리 시간적으로 오래된 길이므로 길의 물리적 공간성, 역사성, 사회·문화성을 지닌 장소이다. 옛길이 다른 길과 다른 점은 옛길에는 과거 역사와 추억을 상기시키는 독특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옛길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

- ▶ 옛길은 그 역사도시 안의 지역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자 척도로서 작용한다. 옛길은 장소성과 문화성, 역사성 등을 바탕으로 한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옛길을 걷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옛길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Ⅲ. 옛길 사례 분석

#### 1. 경기옛길 조성 사례 분석

경기도는 조선시대의 옛길을 활용하여 길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고 지역의 새로운 문화적 자산이자 관광자원으로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옛길(삼남길, 의주길, 영남길)조성과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성과정은 첫째, 옛길의 고증을 위해 전문 연구자, 지역사 연구자가 참여하여 자문을 하였고, 각종 문헌자료와 지도 등을 활용하였다. 둘째 옛길 노선 선정 및 대체로 조성을 하였고, 셋째 도 및 시·군 참여 관리운영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활용방안으로는 2012년부터 ‘경기옛길 아카데미’ ‘멘토와 함께 걷는 옛길’ ‘클린 옛길’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

한 경기옛길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사점은 ▶ 옛길 관련 조례 제정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 민관 협업시스템으로 옛길 개발 운영 ▶ 옛길 노선 선정 시 원칙과 기준 등 마련 ▶ 옛길 관련 연구·운영 등 전담 중심 연구기관 선정 등이다.

## 2. 제주시 원도심 문화유적 및 옛길 탐방 사례

제주시·제주역사문화연구소의 ‘원도심 문화유산 탐방’,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의 ‘제주시 원도심 옛길 탐험’ 등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주시 원도심 옛길과 문화유적 탐방 행사가 진행되어 왔다.

제주시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들이 제주도민들에게 원도심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와 문화단체,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은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이 단발적 행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 상권과도 연계되어 경제적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

## IV. 제주성 일대의 환경 분석

### 1. 제주성의 개요

제주성이 처음 축조된 시기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탐라국시대부터 이미 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1481년) 제주목 고적 조의 ‘고성(古城)’항목에는 “주성(州城) 서북쪽에 고성의 유지(遺址)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제주성은 주성 또는 읍성으로 불렸는데, 이와 다른 옛 성이 고려시대 이전에 이미 축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성은 1910년 일제강점기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증개축 등을 통해 제주 섬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로 들어서

면서 식민정책의 하나로 제주성이 20년간에 걸쳐 서서히 철폐되었다.

## 2. 제주성 주변 여건 분석

제주성 주변 여건 분석에서는 제주성 일대의 지형적 여건 현황, 도로체계 및 건축물 현황, 토지이용 규제 현황, 문화유적 분포 현황, 제주성 내 성곽(城郭) 및 골목길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 3. 인문역사환경

제주성 일대 마을의 역사적 핵심지역인 원도심권은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이 분포해 있는데, 이 마을들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주성 일대의 경제산업 환경, 즉 제주시 중앙로 상권,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 제주시 칠성로 상가, 동문시장, 서문공설시장, 이마트, 기타 상권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 4. 주변 문화유적 및 주요시설

제주성 일대의 역사문화자원, 주요 현존유적 현황, 근대문화유산, 경관자원 등 활용 가능한 문화유적 자원과 자연경관 자원을 고찰하였다.

# V. 제주성 일대의 옛길 고증 및 현황

## 1. 고지도에 나타난 제주성의 옛길

조선시대에 제작된 제주고지도에서 성내의 관아건물과 민가의 분포와 도로구조를 가장 잘 나타낸 것으로는 「제주목도성지도(濟州牧都城之圖)」를 꼽을 수 있다. 이것은 1724년부터 1754년 이전에 제작한 지도로 추정된다.

도판에는 관덕정 동쪽 끝에서 객사(客舍)로 연결되는 도로 입구에는 홍살문(紅箭門)을 두어 위엄을 표시하고 있다. 또 객사의 정면에서



54개의 옛길이 파악됐다. 옛길의 잔존 유무와 이용 상황 등 현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 노선 잔존 유무 ▶ 옛길 유지 실태로 구분해서 개략적으로 분석하면 다음 <표 V-1>과 같다.

<표 V-1> 제주성 일대 옛길 잔존여부 및 원상유지 실태

연번	옛길 이름	노선 잔존유무			옛길 유지 실태				비 고
		전체 유지	일부 잔존	멸실	원상 보존	노선 전체 확장	노선 일부 확장	일부 구간 단절	
1	객사골	○			○				이면도로
2	창신골	○			○				골목길
3	옥길	○			○				골목길
4	칠성골	○			○				골목길
5	생짓골	○				○			왕복4차선도로 (편입 확대)
6	웃생짓골	○					○		골목길(일부 왕복4차선도로 편입 확대)
7	알생짓골	○				○			왕복4차선도로 (편입 확대)
8	막은골	○			○				골목길
9	웃막은골			○					건축물로 사라짐
10	알막은골	○				○			이면도로
11	세병골	○					○		이면도로
12	두목골	○					○		이면도로
13	남문샛길	○			○				골목길
14	제터길	○					○		이면도로
15	향골	○			○				골목길
16	청풍대길		○		○				골목길
17	웃한짓골	○			○				이면도로
18	알한짓골	○			○				이면도로
19	동불막골	○			○				골목길
20	서불막골	○			○				골목길
21	병목골	○					○		이면도로
22	이앗골	○					○		이면도로

연번	옛길 이름	노선 잔존유무			옛길 유지 실태				비 고
		전체 유지	일부 잔존	멸실	원상 보존	노선 전체 확장	노선 일부 확장	일부 구간 단절	
23	물항골	○			○				골목길
24	상청골	○			○				골목길
25	서문한길	○				○			왕복4차선도로 (편입 확대)
26	서문샛길	○				○			이면도로 (성담 허물며 도로편입)
27	창뫼골	○			○				골목길
28	채수골	○			○				골목길
29	영뫼골	○					○		골목길
30	성급길	○						○	골목길
31	무근성길	○				○			왕복2차선도로
32	탑알길	○				○			왕복2차선도로
33	샛길	○				○			왕복2차선도로
34	벌랑길	○				○			왕복2차선도로
35	병문안길	○				○			왕복4차선도로 (편입 확대)
36	병문뫼길	○				○			왕복4차선도로 (편입 확대)
37	부러리길	○					○		이면도로
38	향교길		○				○		왕복4차선도로 (일부 구간 잔존)
39	바당길	○			○				이면도로
40	혜깃골	○			○				골목길
41	산지목골	○			○				골목길
42	샛목골	○				○			이면도로
43	동목골	○			○				이면도로
44	동산골	○			○				골목길
45	운주당골	○			○				골목길
46	구명골	○			○				시장길
47	내팍골	○				○			시장길
48	검정목골	○			○				시장길
49	가락곶길	○				○			왕복2차선도로

연번	옛길 이름	노선 잔존유무			옛길 유지 실태				비 고
		전체 유지	일부 잔존	멸실	원상 보존	노선 전체 확장	노선 일부 확장	일부 구간 단절	
50	동문한길	○				○			왕복4차선도로 (편입 확대)
51	알비석거리	○			○				골목길
52	웃비석거리	○			○				골목길
53	구중길	○			○				골목길
54	사장밭길		○					○	이면도로

### 3. 제주성 일대의 옛길 및 도로체계 비교

#### 1) 제주성 일대 옛길 형태 및 현 도로와의 관계

제주성 일대의 지적과 옛길의 훼손 정도를 파악한 결과, 일부 도로 개설 및 복개 등으로 지역적으로 지적이 변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공간구문론으로 본 옛길과 현 도로의 기능적 변화분석

공간구문론(Space Syntax Theory)은 런던대학 Bartlett 건축대학의 Bill Hillier와 Julienne Hanson 등에 의해 연구된 공간구조에 대한 이론이다. 공간구문론은 공간구조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공간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1914년 지적도상의 옛길과 현 도로와의 기능적 체계 변화를 파악해 보았다. 공간구문론의 공간축도(axial map)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주성 내 도로체계의 위상을 분석한 결과, 1914년 당시 도로는 동문과 서문으로 이어지는 도로인 관덕정 앞 도로가 핵심적인 도로로 파악되었다. 이 도로는 전체 공간위상도 0.8984로 높은 편이고, 공간연결도 10.98로 공간의 명료도도 높은 편이다.

반면 2013년의 경우 1914년과는 달리 중심적인 도로가 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본적으로 관덕정 동문과 서문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위상은 변함이 없으나, 1960년대 이후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로 인하여 편중되어 있었던 도로 기능이 분산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시 확장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남문로터리어서 중앙로터리어로 이어지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의 위계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Ⅵ. 제주도 일대 문화공간 분포 변화

### 1. 1974년과 2013년 사이 40년간 문화공간 분포 비교

#### 1) 분석방법

당시 생활 관련 시설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전화번호 자료가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자료로 생각된다. 전화번호부에는 업종분류,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지 등 기초적인 자료 모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발간된 제주도 전화번호부 중에서 현재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전화번호부는 1974년 발간된 자료이다. 이들 자료를 3단계로 나눠 데이터화한 후 Arc INFO GI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간분포 등을 분석하였다.

#### 2) 시설분류

1974년 전화번호부상에서 시설분류는 업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아니어서 사용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업종분류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되, 현재 분류와의 통일성을 갖기 위해 통계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전화번호상의 시설을 분류하여 활용하였다.

#### 3) 분포 현황

1974년 당시의 전화 소유자의 제주도 전체분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략적이지만 중산간 지역에는 거의 전화 소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다음으로 서귀포시 동지역, 한림읍, 그리고 대정읍, 중문동 지역이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1967년 항공사진으로 본 전화 소유자 분포, 도소매업의 분포,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미용, 육당 및 유사 서비스업, 영상 제작 및 배

급업, 교육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등으로 구분하여 분포 현황을 파악하였다.

#### 4) 시사점

1914년 지적도상의 옛길과 1974년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생활문화공간의 시사점은 옛길을 따라 업종에 따라 지역별 분포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제주성내 거주영역과 상업적 생활공간구조를 개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동문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서문과 남문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이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주거의 규모로 본다면 서문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이 좀 더 컸으리라 짐작된다. 상업적 생활공간은 칠성골과 옛동성길 사이의 지역, 옷한질골, 알한짓골과 가락곶길 사이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약간의 경계상의 차이는 있으나, 옛길을 중심으로 일정한 생활공간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VII. 제주성 일대 옛길의 보존 활용방안

### 1. 옛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원칙 수립

- ▶ 기준 1: 지역의 특성반영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 ▶ 기준 2: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과거 흔적 유지
- ▶ 기준 3 :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합필 규제
- ▶ 기준 4: 역사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물 고도 규제
- ▶ 기준 5: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정비
- ▶ 기준 6: 정주민구 확대를 위해 주거기능 확보
- ▶ 기준 7: 문화예술의 기능이 접목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 ▶ 기준 8: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소공원 확보
- ▶ 기준 9: 원도심 주변공간과의 연계 활용

### 2. 활용방안

- 1) 도시재생 수법으로서의 골목길 활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 2) 현존 문화자원과 장래 복원될 자원과 연계한 역사풍경 조성

3) 원도심 옛길 답사 프로그램 상시 운영 및 가이드북 발간

<표 VII-1> 제주성 일대 옛길과 문화자원 3가지 유형의 활용코스

코스	주요 내용	비고
1코스	옛길과 성터, 근대건축물 등을 연계한 코스로 다양한 문화체험 가능	철거된 성터를 중심으로 답사하며 제주목관아, 조일구락부, 성내교회, 제주화교소학교 등 활용 가능
2코스	옛길과 옛터를 연계한 코스로 공신정 터, 운주당 터, 발굴예정 터와 장소를 중심으로 골목길을 따라 답사 및 시장체험으로 먹거리 체험 가능 코스	김만덕 객주터와 김만덕 기념관, 금산수원지 등을 연계 가능
3코스	옛길과 동문시장 중심 답사 코스로 과거와 현재의 삶과 모습, 길 따라 먹거리 체험 가능 코스	기존 17올레 코스의 종착지점과 연계 가능

### 3. 정책적 제언

#### 1) 행정기관의 법적·제도적 개선

원도심 재생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으로서의 행정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제적 혹은 점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해결해야 법적·제도적 개선이 뒤따라 할 것이다.

#### 2) 제주성 옛길 보존 종합계획(가칭) 수립

원도심 옛길의 보존을 위해 옛길 지방문화재 지정, 옛길 보존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옛길 보존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또한 원도심 옛길 보존을 위한 <제주성 옛길 보존 종합계획>(가칭)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 3) 조선시대 삼읍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아울러 고지도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삼읍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조선시대 삼읍을 이어주던 도로망은 전근대 시대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일제강점기에 신작로가 생기기 전까지 제주-정의, 제주-대정을 이어주던 삼읍의 도로는 제주목과 현을 이어주던 왕조의 길이며, 문화의 길이었다. 이 길들 또한 일제강점기 지적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b>I. 연구개요</b> .....	<b>1</b>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 내용 .....	2
4. 연구 방법 .....	3
5. 연구의 기대효과 .....	4
<b>II. 옛길의 의미와 성격</b> .....	<b>6</b>
1. 옛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6
2. 옛길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 .....	11
<b>III. 옛길 사례 분석</b>	
1. 경기옛길 조성 사례 분석 .....	15
2. 제주시 원도심 문화유적 및 옛길 탐방 사례 .....	22
<b>IV. 제주성 일대의 환경 분석</b> .....	<b>24</b>
1. 제주성의 개요 .....	24
2. 제주성 주변 여건 분석 .....	27
3. 인문역사환경 .....	35
4. 주변 문화유적 및 주요 시설 .....	43
<b>V. 제주성 일대의 옛길 고증 및 현황</b> .....	<b>59</b>
1. 고지도에 나타난 제주성의 옛길 .....	59
2. 제주성 일대의 옛길 현황 .....	61
3. 제주성 일대의 옛길 및 도로체계 비교 .....	93

<b>VI. 제주성 일대 문화공간 분포 변화</b> .....	<b>102</b>
1. 1974년과 2013년 사이 40년간의 문화공간 분포 비교 .....	102
<b>VII. 제주성 일대 옛길의 보존 활용방안</b> .....	<b>125</b>
1. 옛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원칙 수립 .....	125
2. 활용방안 .....	127
3. 정책적 제언 .....	131
<b>참고문헌</b> .....	<b>134</b>
<b>ABSTRACT</b> .....	<b>137</b>
<b>부록</b> .....	<b>139</b>
1. 제주시 원도심의 멸실 유적 .....	139
2.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147
3.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150

## <표 차례>

<표 II-1> 옛길 관련 선행 연구 및 시사점 .....	10
<표 III-1> 자원봉사단 활동내용 .....	20
<표 III-2> 제주시 원도심 문화유산 탐방 코스 .....	22
<표 IV-1> 제주성지 잔존구간의 길이 및 잔존상태 .....	34
<표 IV-2> 제주성지 일대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	43
<표 IV-3> 제주성지 일대 지정문화재 연혁과 현황 .....	44
<표 IV-4> 돌하르방의 위치 이동 상황 .....	53
<표 IV-5> 돌하르방의 현소재지와 문화재 지정번호 .....	54
<표 IV-6> 제주성지 일대 근대문화유산 동굴진지 현황 .....	56
<표 IV-7> 제주성지 일대 근대문화유산 건조물 현황 .....	56
<표 IV-8> 제주성지 일대 현존 4·3유적지 현황 .....	57
<표 V-1> 제주성 일대 옛길 잔존여부 및 원상유지 실태 .....	91
<표 V-2> 1914년과 2013년 도로체계 변화 비교 .....	101
<표 VI-1> 1974년 제주도 전화번호부 자료 .....	103
<표 VI-2> 전화번호부상의 업종 분류와 통계청의 업종 분류 비교 .....	104
<표 VI-3> 도소매업 중 서점 .....	110
<표 VI-4> 도소매업의 약국 분포 .....	111
<표 VI-5> 호텔 시설 .....	114
<표 VI-6> 병원 시설 .....	115
<표 VI-7> 목욕탕 시설 .....	117
<표 VI-8> 극장 시설 .....	118
<표 VI-9> 학교 시설 .....	119
<표 VI-10> 학원 시설 .....	120
<표 VII-1> 제주성 일대 옛길과 문화자원 3가지 유형의 활용코스 .....	130

## [그림 차례]

[그림 I -1] 연구방법과 수행 절차 .....	5
[그림 III-1] 남태령 고개의 삼남길 표식 .....	16
[그림 III-2] 삼남길 해남방향 표지판 .....	16
[그림 III-3] 삼남길 표식들 .....	17
[그림 III-4] 삼남길 지도 .....	21
[그림 III-5] 남태령 옛길 설명 .....	21
[그림 IV-1] 표고로 본 제주성지의 위치 .....	27
[그림 IV-2] 원도심의 도로체계와 주변 현황 .....	29
[그림 IV-3] 제주성지 주변의 도로체계 및 건축물 현황 .....	30
[그림 IV-4] 도로체계, 토지이용계획 및 문화재 보호 적용범위 현황 .....	31
[그림 IV-5] 제주성내 문화유적 터 및 골목길 .....	32
[그림 IV-6] 1914년 지적도를 이용한 건축물 분포 위치와 제주성지 훼손 현황 (위) 항공사진상의 제주성지 위치 파악(아래) .....	33
[그림 IV-7] 제주성지의 잔존구간 .....	34
[그림 IV-8] 제주시 원도심권의 행정구역 분포도 .....	37
[그림 V -1] 「제주목도성지도(濟州牧都城之圖)」 .....	59
[그림 V -2] 제주성내 마을 이름과 옛길 이름 .....	62
[그림 V -3]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1 .....	78
[그림 V -4]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2 .....	79
[그림 V -5]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3 .....	80
[그림 V -6]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4 .....	81
[그림 V -7]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5 .....	82
[그림 V -8]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6 .....	83
[그림 V -9]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7 .....	84
[그림 V -10]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8 .....	85
[그림 V -11]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9 .....	86
[그림 V -12]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10 .....	87
[그림 V -13]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11 .....	88
[그림 V -14]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12 .....	89
[그림 V -15] 1914년 지적과 현재 지적 변화(위)와 항공사진상의 비교(아래) .....	94

[그림 V-16] 1914년 지적도상의 옛길과 현재 도로 비교(위) 항공사진상의 옛길 보존현황(아래) .....	95
[그림 V-17] 제주성지 및 주변지역의 건축물 건축연도 현황 .....	96
[그림 V-18] 제주성지 및 주변지역의 건축물 주용도 현황 .....	97
[그림 V-19] 규모와 위치가 동일한 주택(왼쪽)과 각각 상이한 공간구조(오른쪽) .....	98
[그림 V-20] 1914년과 2013년의 도로체계 분석 결과 .....	101
[그림 VI-1] 1914년 지적도와 1967년 항공사진의 중첩으로 본 제주성내 공간변화 비교 .....	106
[그림 VI-2] 1974년 전화 소유자의 분포 .....	107
[그림 VI-3] 1974년 전화 소유자의 제주성 주변 분포(위) 및 제주성내 분포(아래) .....	108
[그림 VI-4] 업종 분류에 따른 제주성내 전화 소유자 공간분포 .....	109
[그림 VI-5] 주변지역으로 본 도소매업의 분포 .....	109
[그림 VI-6] 서점 분포 .....	110
[그림 VI-7] 약국 분포 .....	111
[그림 VI-8] 도소매업 중 소매업 분포 .....	113
[그림 VI-9] 여관 여인숙 분포 .....	113
[그림 VI-10] 호텔 분포 .....	114
[그림 VI-11] 병의원 분포 .....	115
[그림 VI-12] 목욕탕 분포 .....	117
[그림 VI-13] 극장 분포 .....	118
[그림 VI-14] 학교 분포 .....	119
[그림 VI-15] 학원분포 .....	120
[그림 VI-16] 제주성내 주요관공서 분포(위) 및 명칭(아래) .....	121
[그림 VI-17] 1900년대 관덕장 마당의 제주읍 오일장 풍경 .....	123
[그림 VI-18] 1930년대 관덕장 마당의 제주읍 오일장 풍경 .....	124
[그림 VII-1] 1969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분포 .....	128
[그림 VII-2] 1969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분포와 핵심 3개 광장을 연결하는 옛 골목길 개발 계획 .....	129
[그림 VII-3] 제주성 일대 옛 골목길과 주변 문화자원 활용 제안 코스 .....	130



# I. 연구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주성 일대는 탐라국 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근·현대시기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으로 제주의 역사가 고스란히 집적되어 있는 지역이다.

일제강점기에 제주성 일대는 차츰 훼손 멸실되면서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축조물이 일부만 남은 채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신작로가 개설된 이후 점차 도시 확장 과정 속에서 평화롭고 생기 넘쳤던 서민의 생활문화공간과 풍경은 점차 사라지고, 적지 않은 옛길이나 옛 골목길들이 사라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도시 확장의 지속적인 개발에도 불구하고, 제주성 주변에는 옛길이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해 있는 공간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주성 주변 옛길 이름에는 골목길 중심의 마을단위 커뮤니티를 형성했던 마을의 흔적과 길이 함께 공존했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성 주변의 옛길은 제주 사람들의 삶의 공간의 일부를 구성하는 역사적 가치와 정취가 살아 숨쉬는 길로서 제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쇠퇴하는 제주시 원도심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도시공간의 요소로서 원도심의 역사경관 형성과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옛길이 지자체와 지역민, 나아가 문화관광산업의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제주성 주변 옛길 역시 문화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문화를 활용한 길 걷기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주성 주변의 옛길에 대한 고증 및 실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앞으로 제주성 주변 옛길에 대한 부정확하고 잘못된 이야기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옛길에 대한 역사적 고증 및 고로(古老)들의 증언을 통해 정확한 옛길 찾기 및 보존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음을 인식할 때이다. 다시 말해, 제주성 주변 옛길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를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옛길의 실태 및 보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 2. 연구 목적

최근 지역사 관점에서 광역의 지역 단위 혹은 개별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옛길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문화콘텐츠 개발이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옛길 복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있다.

현재 노후화와 공동화로 인해 도시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제주성 주변의 무근성, 칠성통,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활 속에서 역사를 이어오던 제주성 주변 옛길은 지역사 정립을 위한 귀중한 자료임과 동시에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성 주변 옛길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 실증적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옛길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보존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옛 골목길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의 고유 가치를 밝힘과 동시에 특성화하기 위한 옛길 가꾸기 방안을 통해 쇠퇴하는 원도심의 이미지를 재창출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함양과 지역주민 융합,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3. 연구 내용

- 연구 대상의 공간적 범위
  - 문헌 및 실제 현장을 근거한 제주성 일대 옛길(옛 골목길)
- 연구 조사 내용적 범위
  - 첫째, 제주성 일대 옛길에 대한 문헌 조사(고지도, 연구 논문, 사진 자료, 그림 등)를 통해 옛길 원형 검토
  - 둘째, 제주성 일대 현장 조사를 통해 옛길의 원형과 현 상황의 실태를 비교한 후, 잔존해 있는 옛길 파악
  - 셋째, 지역향토사 연구자와 지역 고로의 인터뷰를 통해 옛 마을과 옛길의 실태에 대한 고증 확보

- 넷째, 문헌조사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제주성 일대 옛길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시하고, 원도심 이미지 재창출을 통해 지역 정체성 규명
- 다섯째, 국내 옛길 사례 조사를 토대로 옛길의 보존 활용 방안 제시

## 4. 연구 방법

### 1) 연구협력체계

본 연구에서는 인류학, 건축도시계획, 문화기획, 역사 분야 전공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제주성 주변 옛길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있는 지역향토사 연구자 및 지역 고로(古老)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철저한 고증을 통한 옛길의 실태를 검토하였다.

### 2)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문헌 및 고지도, 사진, 그림 등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제주도 변화 전의 제주성 주변 옛길의 실태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실증적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옛길의 변화와 현 상태를 정리 분석하였다.

### 3) 구술조사

지역향토사 연구자 및 지역 주민 등에 대한 구술 조사를 통해 제주시 원도심과 옛길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 4) 국내 옛길 사례 조사

국내 옛길 관련 사례 조사를 통해 옛길의 중요성과 의미를 밝히고, 제주성 주변 옛길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5. 연구의 기대효과

### 1) 사회적 기여도

제주성 일대의 옛길의 실태는 바로 제주의 원도심 실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공동체 이미지를 재창출할 수 있다. 이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는 물론 원도심의 지역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2) 경제적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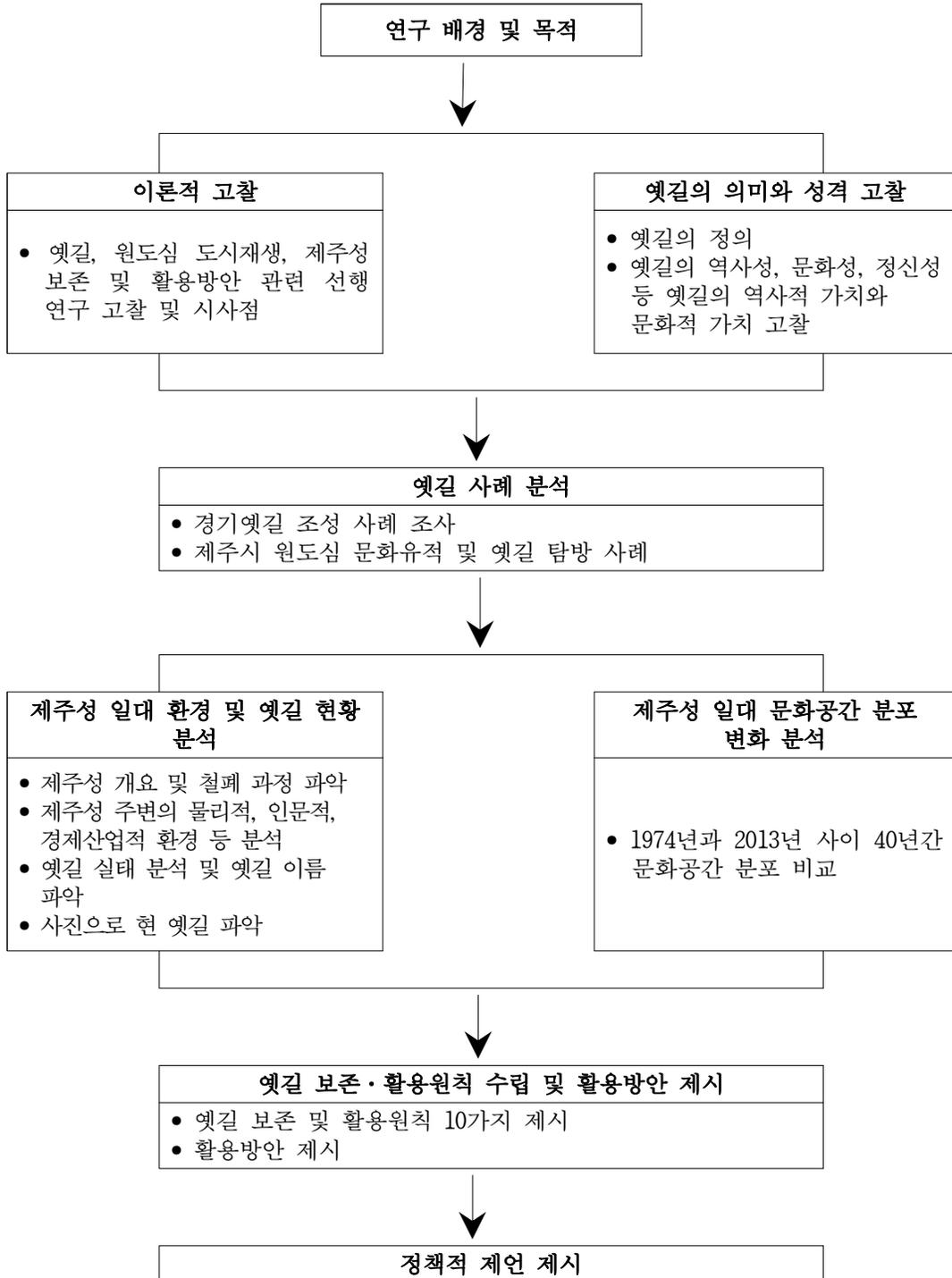
역사적 의미가 담긴 옛길의 보존을 통해 주변의 역사문화유산과 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교육적 기여도

옛길의 가치 발굴을 통해 제주성 일대의 유적, 문화재, 근대 건축물 등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이다.

### 4) 환경적 기여도

제주 사람들의 전통적 삶의 공간을 유지해 왔던 원도심의 옛길 조성을 통해 도시화 속의 역사적 정취가 살아 있는 도시 공간 확보와 더불어 제주의 전통적 문화풍경을 만듦으로써 제주의 역사적 경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도시환경재생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활용가능 할 것이다.



[그림 I -1] 연구방법과 수행 절차

## II. 옛길의 의미와 성격

### 1. 옛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1) 옛길 관련 연구

최근 몇 년 전부터 걷기여행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미 있는 길을 찾고 만들려는 시도를 꾸준히 추진시키고 있다. 환경부의 국토생태·문화탐방로, 산림청의 산림문화체험숲길,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등 중앙부처의 각 기관에서는 특성 있는 길을 만들어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중앙부처 및 전국 시·군·구의 걷기여행길 담당자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걷기여행길 종합안내 포털사이트<sup>1)</sup>를 만들어 전국적 단위로 다양한 길을 안내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별, 테마별, 대표길, 거리와 시간별, 계절별 등 걷기 여행자들의 기호에 따라 코스별로 찾아가기 쉽게 길을 선택하여 걷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길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길 만들기 경쟁과 더불어 학계뿐만 아니라 지역 연구가, 신문기자 등등에 의해 최근 길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sup>2)</sup> 무엇보다도 지역사 관점에서 광역의 지역 단위 혹은 개별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옛길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문화콘텐츠 개발이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옛길 복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

오늘날 옛길이 예전과 달리 학계의 연구 대상을 넘어 지자체와 지역민, 나아가 문화·관광산업의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옛길의 역사성을 무시한 채 복원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sup>

1) 걷기여행길 종합안내포털: (<http://www.koreatrails.or.kr/>)

2) 참고문헌 참조: 김기홍·이애란·정혜진(2008), 도도로키 히로시(2000), 최열(2012) 등.

3) 한정훈(2010), 「기장지역 옛길의 역사적 변천」, 『지방사와 지방문화』 13권 1호, pp.8-9.

옛길은 어느 공간보다도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공존시킬 수 있는 시간의 연결고리로서 훌륭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런데 아직도 옛길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연구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추진된 도시개발 혹은 도시재생 방식은 옛길을 점점 더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도시 사대문안을 중심으로 옛길의 가치규명과 옛길 가꾸기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는 보고서<sup>4)</sup>에서 길들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찾아내고 가꾸는 작업은 그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아 해당 지역의 문화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첫걸음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것은 옛길이 담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일이 곧 우리가 일하고 살고 있는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깨닫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기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역사적 풍취가 남아 있는 골목길들은 자연지형에 순응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길들이며 이 골목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생성되었고, 이 커뮤니티는 이들만의 독특한 생활문화를 형성해 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옛길에서 비롯된 생활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옛길만의 옛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김충영은 수원 화성 옛길 연구를 통해 선진국에서는 역사자원을 이용한 건축·도시 관련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유의 역사문화 환경을 복원하는데 주력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성곽, 유적지, 건축물 등 역사자원시설을 연계해 주는 옛길을 복원하여 전통문화를 꽃피우면서 유구한 역사를 지키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역사도시의 복원은 단순히 도시계획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같이 고려하여 복원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sup>5)</sup>

이런 의미에서 제주성 일대의 옛길 역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집적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온 제주사람들의 삶의 공간으로 역사적 가치와 정취가 살

4) 민현석·송지영(2009), 『옛길의 가치규명 및 옛길 가꾸기 기본방향 연구-서울 도시 사대문안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5) 김충영(2009), 「수원 화성 옛길의 변화 특성분석 및 보전방안 연구」, 경원대학교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논문, p2.

아 숨쉬는 길로서 제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쇠퇴하는 제주시 원도심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도시공간의 요소로서 원도심의 역사경관 형성과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읍성 주변 도로체계를 연구한 양상호<sup>6)</sup>는 제주읍성의 도시적 원형을 찾고자 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양상호의 지적처럼 지금까지 제주성 일대의 옛길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역시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연구 상황에서 양상호는 처음으로 제주읍성 주변 도로체계 연구를 통해 제주읍성의 전통적 원형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제주읍성의 원형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로서 신작로 개설 이전인 구한말 시기의 도로체계를 복구한 후 그에 대한 특성적 요소를 파악하고 있다.

양상호에 의하면, 전통도시 읍성 안 도로교통체계의 변화는 구한말 시기인 1910년 전후로 신작로 개설에서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즉 제주읍성의 도로체계의 변화는 1912~13년에 실시한 일주도로의 개수와 함께 읍성 안의 새로운 도로 신설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2)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연구

최근 도시문제 가운데 원도심의 쇠퇴와 더불어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다. 제주시 원도심 역시 도시 쇠퇴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도시재생 전략을 구축하는 연구들이 대두하고 있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을 연구한 엄상근<sup>7)</sup>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의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개념을 종합하여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6) 양상호(2011), 「구한말 제주읍성의 도로체계에 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0권 6호, 통권79호, pp. 169~173.

7) 엄상근(2013),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p.10.

이런 측면을 고려할 경우, 원도심에 잔존하는 옛길은 그 지역에 잔존하는 문화유산과 더불어 도시재생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활용 가능한 역사적·문화적 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원도심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김태일<sup>8)</sup>은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이 없는지 좀 더 신중한 논의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하여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지역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하고,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한 철학과 원칙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강조는 원도심에 잔존하고 있는 근현대의 역사적 의미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작은 건축물과 과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신작로를 따라 형성된 상업지와 칠성로, 동문시장 등 아직 현존하는 원도심의 역사적·문화적 자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 출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 3) 제주성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

제주성 일대는 탐라국 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유서 깊은 도시를 형성해 왔다. 제주목관아의 복원,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보고서를 비롯하여 제주시 옛터, 옛 지명 등의 문화유적에 관한 연구 성과물이 몇 편 있지만, 제주성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성과물은 최근 발간되었다.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은 제주성의 역사적 중요성을 고찰하면서 제주성지, 성곽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sup>9)</sup>

무엇보다도 제주성 총서 사진과 지도<sup>10)</sup>는 다채로운 고지도와 사진 자료

8) 김태일(2015), 「제주시 원도심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의 방향」, 『문화자원론과 지역학』, 제4회 제주학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pp.195-211.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3), 『제주성지-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10)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5), 『濟州城-제주성총서 사진·지도』

를 통해 제주성과 제주성을 둘러싼 제주시 원도심의 변모를 재조명하면서 제주성의 역사적 중요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인식시키는 귀중한 자료집이라 할 수 있다.

#### 4) 선행연구 고찰 및 시사점

상기의 선행연구들은 최근 옛길이 학계의 연구 대상을 넘어 지자체와 지역민, 문화·관광산업의 소재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역재생을 위한 문화자원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옛길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옛길의 역사성, 장소성, 문화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옛길에 대한 실태와 의미 등 철저한 학술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지금까지 연구가 전무한 제주성 일대의 옛길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가치를 재조명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표 II-1> 옛길 관련 선행 연구 및 시사점

옛길 관련 연구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길 종합안내 포털사이트 운영
	한정훈(2010)	옛길의 복원사업은 옛길의 역사성에 대한 철저한 학술조사 필요
	민현석·송지영(2009)	옛길의 역사적 가치 발굴 및 복원은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깨닫고, 동시에 그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인식하여 지역의 문화가치를 높임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음.
	김충영(2009)	역사도시의 복원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같이 고려하여 복원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양상호(2011)	제주읍성의 원형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로 신작로 개설 이전 구한말 시기의 도로체계를 복구한 후 그에 대한 특성적 요소를 파악하고 있음.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연구	엄상근(2013)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시재생 개념을 정리하여 제주도 원도심 도시재생에 적용
	김태일(2015)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원도심의 지역재생 방향 제시
제주성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3)	제주성의 역사적 중요성 고찰한 후 제주성지, 성곽에 대한 보존과 관리, 활용방안 제시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5)	제주성 관련 사진과 고지도 등을 통해 제주성과 그 일대의 변모 과정을 재조명함.
선행연구의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옛길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옛길의 역사성, 장소성, 문화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옛길에 대한 실태와 의미 등 철저한 학술조사가 수행되어야 함.</li> <li>▶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내용 토대 위에 지금까지 연구가 전무한 제주도 일대의 옛길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가치를 재조명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려고 함.</li> </ul>	

## 2. 옛길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

### 1) 길의 역사성

길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위키백과<sup>11)</sup>에서는 “길은 서로 다른 장소를 연결해 주는 통로이며, 평평하게 정리된 길은 도로”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길 자체가 동(洞)의 역할을 겸할 경우 동 대신 로(路)라는 명칭”을 붙인다고 되어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up>12)</sup>에서는 길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길은 이동을 위한 통로이며 공간적 영역을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길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김종혁은 “길이란 유구한 시간성을 담지하는

11)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박물관 안에 박재되어 있지 않은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적 유물이며 동시에 사료”라고 언급하고 있다<sup>13)</sup>. 오늘날 길의 모습이 변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길을 토대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특정 목적지를 연결하는 길의 고유기능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이란 사람이 이동하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일차적 의미 외에도 그 길을 통해 갔는지, 그 길을 거쳐 무엇을 이루었는지 등등 정신활동의 흔적까지도 담겨있는 소중한 역사박물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길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필요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소멸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출현하지 않는다면 사라지지 않고 오랜 시간 명맥이 이어져가므로 ‘역사성’이 존립한다고 언급하고 있다.<sup>14)</sup> 결국 길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역사성과 정신적 활동을 포함한 살아 움직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2) 길의 사회적 · 문화적 가치

길은 사람들의 삶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공간으로 사회 ·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길은 가로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공공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공문화의 플랫폼인 것이다. 진양교는 길의 사회 ·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길은 공공문화의 플랫폼’이라고 하였다. 집에서 나와 작은 골목길을 지나 큰 골목과 큰 길로 연결되는 전통가로는 가로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공공문화를 만든다. 큰 골목에는 동네슈퍼, 미용실, 목욕탕 등 근린생활시설들이 있고, 이곳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지역 사람들의 살아가는 정취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작은 골목에 들어서면 막힌 골목과 골목 마당을 만나게 된다. 이곳은 골목과 바로 인접한 집들만의 보다 사적인 공공공간이 되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된다.<sup>15)</sup>

13) 김종혁 (2004), 「[옛 길을 따라]역사에서 '길'이란 무엇인가」, 『역사비평』, pp.332.

14) 김종혁 (2004), 앞의 논문, pp.332-333.

15) 진양교(2000), 「길 그리고 우리의 문화」, 월간『환경과 조경』제141호, pp.104-107; 민현석 · 송지영 (2009), 앞의 보고서, 재인용, p.11.

### 3) 시간적 · 공간적 범주에서의 옛길

상기와 같이 길은 보편적으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옛길도 길의 일종으로 길의 보편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나, 구체적으로 시간적 범주와 공간적 의미를 포함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간적·공간적 범주에서의 옛길은 도시계획에 의해 치밀한 계획하에 만들어지기 보다는 지형과 취락 형성으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길이라 할 수 있다. 옛길은 대개 구불구불한 형태, 일정하지 않은 폭 등의 특징이 있고, 자연적 재료를 사용하거나 비포장 상태를 유지하는 등 옛 선조들의 삶의 정취를 드러내고 있다.<sup>16)</sup> 공간적 의미에서의 옛길은 그 안에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문화, 역사, 정신을 포함한 길로 사람들이 모여 살며 그들만의 개성과 장소성을 만들어 내는 길을 말한다.<sup>17)</sup>

한마디로 옛길은 길의 보편적 속성에 더하여 새 길과는 달리 시간적으로 오래된 길로써, 길의 물리적 공간성, 역사성, 사회·문화성을 지닌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옛길이 시간적으로 오래 되었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길이 지닌 세월만큼 옛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옛길이 다른 길과 다른 점은 옛길에는 과거 역사와 추억을 상기시키는 독특한 요소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 4) 옛길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

옛길은 주변 환경의 역사적·문화적 여러 요소에 의해 길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구현되고 있다. 유서가 깊은 도시의 옛길에는 과거의 역사와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와 같이 제주성 주변의 마을 이름과 옛길 이름에는 일제강점기에 도로개설로 인해 해체되기 전까지의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내다볼 수 있는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주목관아를 중심으로 이앗골, 객사골, 영뒹골, 옥길 등은 골

16) 김충영(2009), 앞의 논문, p9-10.

17) 박진영(1989), 「마른내길 가로경관 구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7-9.; 김충영(2009),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p9.

목길에 관청시설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들이다. 또한 서문샛길, 남문샛길, 성급길 등은 성곽과 성문으로 가는 골목길에 붙여진 이름들으로써, 제주성 주변의 옛길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提高)하는 한편 옛길의 역사적 정취를 만들어 준다. 이와 같이 옛길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옛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각 도시에서는 옛길의 역사적 요소를 활용하여 옛길의 독특한 역사적 풍취를 보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그 가치를 인식시키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쇠퇴하고 공동화되어 가는 원도심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와 더불어 그 지역만의 역사와 문화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의 일환으로 제주에서도 원도심 문화유산 탐방, 원도심 옛길 탐험 등 낯실과 씨실로 엮어 있는 원도심의 옛길을 걸으며 주변 문화유적 설명과 옛 이야기를 듣거나, 원도심의 문화유적과 옛길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세우고 인식하는 행사가 최근 많이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제주시 원도심이 역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공동화가 진행되어 쇠락하는 도시로 변모되어 가는 현주소를 바로 깨닫게 해 주고 있다.

제주성 주변의 옛길은 현대적 건축물과 도시 연결 도로개선 등 도시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안고 시대적 변화를 극복하며 어우러져 온 역사적·문화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옛길에는 그 길에서만 경험하게 되는 뚜렷한 장소성을 통해 다른 곳과 구분되는 옛길만의 정취가 담겨 있고, 그 길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옛길은 그 역사도시 안의 지역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자 척도로서 작용한다. 이는 시민의 활동이나 건축과 도시의 경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공간이자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옛길은 장소성과 문화성, 역사성 등을 바탕으로 한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다.<sup>18)</sup> 따라서 옛길을 걷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옛길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18) 김충영(2009), 앞의 논문, p11.

## Ⅲ. 옛길 사례 분석

### 1. 경기옛길 조성 사례 분석

#### 1) 개요

조선시대의 옛길은 경기도를 지나 전국으로 연결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옛길을 활용하여 길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고 지역의 새로운 문화적 자산이자 관광자원으로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옛길(삼남길, 의주길, 영남길)조성과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남길은 2012년 수원, 화성, 오산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2013년 5월에 전 구간이 개통됐으며, 의주길도 2013년 10월에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는 평해로, 경흥로, 강화로 등의 옛길이 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를 시점(始點)으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옛길 개발 계획이 이어질 수 있다.

경기옛길은 기존의 도보길과는 다른 조성 모델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였다. 즉 기존의 도보길 조성은 대부분 지역별 혹은 문화재별 단위로 조성돼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활용 문제는 크게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경기옛길은 주변 지역이 지닌 역사성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 문화자원을 적극 발굴, 역사적 고증을 통해 도보탐방로에 역사성을 함께 부여하여 기존의 도보탐방로와는 그 목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안전성, 편의성, 접근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노선을 설정함으로써 옛길로서의 역사성과 도보길로서의 상품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개발 형태 역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연계에 기초하고 있다.



[그림 III-1] 남태령 고개의 삼남길 표식



[그림 III-2] 삼남길 해남방향 표지판

## 2) 조성 과정

### (1) 옛길의 고증

- ① 전문 연구자, 지역사 연구자가 참여하여 자문한다.
  - ▶ 옛길의 고증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식견과 스토리텔링 발굴에 까지 참여 가능하다.
  - ▶ 문헌조사와 현장답사 병행, 정확한 노선 고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지역 주민 인터뷰를 채록한다.
- ② 각종 문헌자료, 지도는 물론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지도 사이트 등도 옛길 현황 파악과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

### (2) 옛길 노선 선정 및 대체로 조성

전문가 자문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해 고증된 원형 노선, 역사문화·생

태자원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노선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원형에 따른 노선 선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대체로 조성의 원칙을 정하고 노선을 설정하였다.



[그림 Ⅲ-3] 삼남길 표식들

즉 ▶ 옛길의 원형이 완전히 멸실되었거나 단절된 경우 ▶ 차도는 있으나 인도가 멸실되어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인도는 있으나 차도와의 구분이 모호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 사유지를 지나는 경우 ▶ 편의성과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등에는 대체로를 조성하고 있다.

① 대체로 조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고증된 옛길노선을 반드시 표시하고 해당 노선이 옛길 원형과는 차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 ▶ 원형으로부터 이격되는 정도를 가급적 최소화 하였다.
  - ▶ 기존 길을 활용하고 길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는 최소화 하였다.
  - ▶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최대한 활용 하였다.
  - ▶ 대중교통 접근성 및 편의시설의 위치 등을 고려하였다.
- ② 기준이 되는 노선을 선정할 때는 첫째, 원래의 옛길 원형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둘째는 주요한 자원을 잇는 큰 선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원칙적으로 옛길 원형을 기준으로 하되 도시화 정도나 노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 ③ 노선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지자체 담당자와 연구진, 지역사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현장답사를 수시로 진행 노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 (3) 도 및 시·군 참여 관리운영협의회 구성

- ① 경기도와 각 시군이 참여하여 옛길 조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였다.
- ② 옛길이 지나는 거리에 비례해서 각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분담 편성하고, 옛길 관리·운영·보수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였다. 주 업무는 문화재 부서에서, 도로관련 부서는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 3) 활용방안

### (1)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12년부터 ‘경기옛길 아카데미’ ‘멘토와 함께 걷는 옛길’ ‘클린 옛길’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 ① 경기옛길 아카데미
- ▶ 경기옛길과 관련된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프로그램으로 해당지역의 문화유산과 지역 고유의 문화를 도보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 프로그램은 주1회 4주간 30시간 진행됐으며, 이론 강의와 도보로 코스별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 강의로 이뤄진다. 참가비 3만

5000원, 중식 및 기념품 제공한다.

- ▶ 아카데미 이수자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코스 안내, 문화유산 해설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이들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자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 ▶ 2014년부터는 2013년도 교양 프로그램 아카데미와는 별도로 심화과정을 개설,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② 멘토와 함께 걷는 옛길

- ▶ 다양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도보를 통해 멘토와 멘티의 유대를 강화하고 일방적인 강의방식이 아닌 강사와 수강생이 쌍방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③ 클린 옛길

- ▶ 옛길이 지나는 주변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환경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④ 기타

- ▶ 주말을 이용한 ‘월말 경기옛길 탐방’, 청소년·대학생 ‘경기옛길 종주: 트레킹! 청춘 예찬’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경기옛길 자원봉사단 운영

- ▶ 경기도로부터 옛길 관리운영사업 위탁을 받은 경기학연구센터에서 옛길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해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 ▶ 아카데미 기본과정, 아카데미 심화과정, 이쁨이 양성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경험있는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 자원봉사센터와 협조 체계를 만들고 있다.
- ▶ 활동내용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자원봉사단 활동내용

구 분	업 무
경기옛길 유지 관리 (경기옛길 지킴이.이끌이)	경기옛길 상태 모니터링 스티커, 리본 부착 등 간단한 시설물 보수 활동보고서 작성
경기옛길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경기옛길 지킴이.이끌이)	역사탐방, 각종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소규모 도보행사 기획 운영 (경기옛길 이끌이)	자체 기획 도보행사 운영 등 활동보고서 작성

#### 4) 시사점

##### (1) 옛길 관련 조례 제정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경기도는 옛길 조성뿐만 아니라 조례 등을 통해 옛길 운영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즉 ‘옛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민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제주성 일대 옛길을 비롯 중장기적으로는 도내 옛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고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 (2) 민관 협업시스템으로 옛길 개발 운영

행정에서는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옛길이 지나는 각 시군이 참여하고, 예산편성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에 지역사 연구자와 지자체 담당자, 연구자, (사)아름다운도보여행 등과 같은 단체들이 옛길 노선을 연구고증하고 노선을 정하는 등 협력하고 있다. 옛길 연구조사와 조성 운영은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3) 옛길 노선 선정 시 원칙과 기준 등 마련

옛길 관련 각종 문헌과 지도, 지역사 연구자 등 전문가들을 통해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옛길 노선을 규명하고 선정하는 등 단계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

옛길 자체의 중요성도 고려하지만, 옛길과 연관된 역사문화유산들을 적극적으로 자원화 하는 등 활용하고 있다.

최대한 옛길 원형을 살리고는 있지만, 옛길 원형이 멸실되거나 끊어진 경우 등 대체노선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설정하고 옛길 노선을 정하고, 이를 노선에 표시하면서 탐방객의 이해를 돕고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도모하고 있다.

### (4) 옛길 관련 연구·운영 등 전담 중심 연구기관 선정

경기도는 (재)경기문화재단(경기학연구소)에 2011년부터 경기 남부 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면서부터 2012년부터 경기옛길에 대한 조성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이후 경기문화재단이 중심이 돼서 옛길 연구·조성·운영·관리·활용 등에 대한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도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옛길 관련 책임연구원과 팀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그림 Ⅲ-4] 삼남길 지도



[그림 Ⅲ-5] 남태령 옛길 설명

## 2. 제주시 원도심 문화유적 및 옛길 탐방 사례

### 1) 제주시 · 제주역사문화연구소의 원도심 문화유산 탐방

#### (1) 개요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역사문화연구소가 주관한 ‘걸으멍 쉬멍 즐기멍 원도심 문화유산 탐방’ 행사가 2015년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 사이 매주 일요일 마다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행사의 취지는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도심 일대의 옛길을 걸으며 문화유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데 있다.

#### (2) 탐방코스

제주역사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원도심 주요 문화요소들을 핵심주제로 삼아 벨트화하여 탐방 코스를 구성했다. 원도심 역사유적길, 원도심 옛길, 원도심 유배길 등 테마로 나눠 3개 코스로 운영되었다.

<표 III-2> 제주시 원도심 문화유산 탐방코스

코스 구분	탐방 내용
제1코스 원도심 역사유적길	관덕정-성내교회-조일구락부(구 현대극장)-향사당-이앗골-박씨초가-남문한길-칠성대(제일도)-남문터-제주성지-오현단-구명골-동문백화점-동자복-동문터-공신정터-칠성골-북신작로-옥터-영주관터-관덕정
제2코스 원도심 옛길	관덕정-이익유배지-목은성-서자복-서문터-서문샛길-남문샛길-남문터-남문한길-제주성지-가라쿠틀터-김정유배지-사마재터-광해군 유배지-이앗골- 병목골-칠성대(제삼도)-관덕정
제3코스 원도심 유배길	관덕정-최익현 유배지-송시열 유배지-김진구·김춘택 유배지-구명골-김정 유배지-가라쿠틀터-오현단-제주성지-광해군 유배지-김윤식 유배지-남문한길-이앗골-이승훈 유배지-조일구락부(구 현대극장)-이익 유배지-관덕정

## 2)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의 제주시 원도심 옛길 탐험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에서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제주시 원도심 옛길 탐험’을 진행해 왔다. 매회 진행 시 마다 ‘기억의 현장에서 도시의 미래를 보다’, ‘제주에서 만나는 제국들의 그림자’, ‘잃어버린 왕국의 옛길을 찾아서’ 등 주제를 달아 옛길을 따라 주요 건축물과 유적을 돌아보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원도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3) 시사점

제주시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들이 제주도민들에게 원도심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와 문화단체,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은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이 단발적 행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 상권과도 연계되어 경제적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Ⅳ. 제주성 일대의 환경 분석

### 1. 제주성의 개요<sup>19)</sup>

#### 1) 제주성의 축성

제주성이 처음 축조된 시기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탐라국시대부터 이미 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1481년) 제주목 고적 조의 ‘고성(古城)’ 항목에는 “주성(州城) 서북쪽에 고성의 유지(遺址)가 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제주성은 주성 또는 읍성으로 불렸는데, 이와 다른 옛 성이 고려시대 이전에 이미 축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성이 사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태종실록』(태종 8)에 “제주에 큰비가 내려서 물이 제주성에 들어와 관아와 민가가 물에 잠기고, 곡식의 절반이 침수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어 『태종실록』(태종 11)에 다시 “제주성을 수축하도록 명령” 을 내린 기사도 보인다. 따라서 최소한 조선 태종 이전에도 제주성은 축조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후 여러 차례 보수를 거치며 19세기까지 제주목 관아 및 민가를 보호하는 읍성으로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로 접어든 1913년 이후 1920년대까지 불과 20년 사이에 제주성은 철폐되어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축조물이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다.

문헌상 처음 제주성 성곽의 규모가 나타난 것은 1432년(세종 14)에 편찬한 『세종실록』 「지리지」(전라도, 제주목)에 “읍 석성은 둘레가 910보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를 환산해 보면 대체로 1.137km 둘레의 성곽이다. 이어 1481년(성종 12) 『동국여지승람』에는 “석축이며 둘레 4,394척, 높이 11척” 이라 하여 둘레 1.318km, 높이 3.3m의 성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성곽의 높이는 이후 모든 사료에 11척으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 제주성은 대체로 3m 전후의 높이로 축조된 사실이 확인된다.

19)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3), 『濟州城-제주성총서 사진·지도』, p.102~127.

한편 제주성 주변의 해자와 판교는 1512년(중종 7) 제주목사 김석철 당시 축조한 사실이 확인된다. 제주목사 김석철은 “제주성의 주위에 긴 참호를 아주 깊게 파서 성문보다 낮게 하여, 모두 널판으로 다리를 놓아 밤에는 들어 올리고 낮에는 깔아 놓아 걱정이 없게 방비” 했다고 한다.

제주성은 탐라국 시대의 고성(古城) 때는 동쪽 산지천과 서쪽 병문천을 자연적인 해자로 삼아 성곽이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성곽은 1565년 제주목사 곽홀 당시 산지천을 성안으로 들이기 위해 동성을 퇴축하면서 성곽의 둘레 규모가 확장되어 오늘날과 같은 제주성의 성곽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제주성의 규모와 각종 문루의 설치 및 격대·타첩 등의 부대시설을 자세히 전하는 사료는 이원진의 『탐라지』(1653)에서 부터이다. “석축, 둘레 5,489척, 높이 11척”의 규모, “동문·남문·서문의 3문과 남북수구의 수구 2문” 등 문루 설치, “격대 27개소, 타첩 404개” 등 부대시설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성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실이 소개되어 있는 사료는 제일 후대에 저술된 담수계의 『증보탐라지』이다. 여기에는 홍수 예방을 위해 산지천 서안에 간성(間城)을 쌓은 사실과 간성의 남북에 2문 축조 사실까지 전한다. 즉 1780년(정조 4) 제주목사 김영수는 산지천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간성을 쌓았는데, 높이 9척(약 2.7m), 길이 551보(약 689m)라고 하였다. 또한 두 문(門)을 설치하여 남문을 소민(蘇民), 북문(北門)을 수복(受福)이라 하였다. 1847년(헌종 13) 제주목사 이의식은 이 수복문(受福門)을 중인문(重仁門)으로 편액을 고쳤고, 북수구를 뒤로 더 물려 쌓아 북수구에서 서북쪽 성 위에 천일정이라는 누정도 세웠다고 전한다.

한편 제주성은 3문(동문·서문·남문), 2수구(남수구·북수구), 간성 2문(소민문·중인문)을 축으로 연결되며 이루어졌다. 제주성은 처음 축조되었을 때는 3문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의 북쪽은 해안과 지근거리에 있고 외적의 침입을 염두에 두어 북문은 축조를 안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565년 곽홀 목사가 동성을 퇴축하면서 산지천이 성안으로 들어왔다. 따라서 산지천의 서안과 동안을 연결하는 수구문 축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599년(선조 32) 성윤문 목사가 남북수구 2문을 축조하였다.

동성 퇴축의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성 동쪽 언덕에서 보면 성내가 완전히 노출되어 외적의 침입 방어에 문제점이 있었고, 둘째는 성안에 마실 샘물이 없어서 가락천과 산지천 등의 샘물을 성안으로 들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1780년 김영수 목사가 산지천 서안으로 간성을 축조하면서 간성 남북의 2문을 축조하였다. 그 이유는 잦은 산지천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 예방 차원이었다.

## 2) 제주성의 철폐 과정

제주성은 1910년 일제강점기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증개축 등을 통해 제주 섬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로 들어서면서 식민정책의 하나로 제주성이 헐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철폐한 것이 아니라 20년간에 걸쳐 서서히 무너뜨려갔다.

1910년대에는 주로 문루에 대한 철폐가 이루어졌고, 1920년대에는 성벽 전체를 헐기 시작했다. 특히 1926년부터는 일제가 동부두·서부두를 축조하고 산지포를 매립하는 산지항 축항공사를 진행하면서 제주성 3면의 성담 상당 부분을 바다에 매립함으로써 제주성의 성체는 대부분 철폐되었다. 제주성의 철폐 과정은 심재 김석익의 『탐라기년』·부록에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즉 1913년 북성문, 1914년 연상루(동성 문루), 진서루(서성 문루), 중인문(간성 북문), 1915년 소민문(간성 남문)과 북성, 1918년 정월루(남성 문루) 등 여러 성문이 훼손되었다. 이후 1923년 동성에 측후소 개설, 1926년 제주성의 3면을 헐어 산지항 축항, 1927년 남·북수구의 홍문 붕괴(홍수) 등의 기록들이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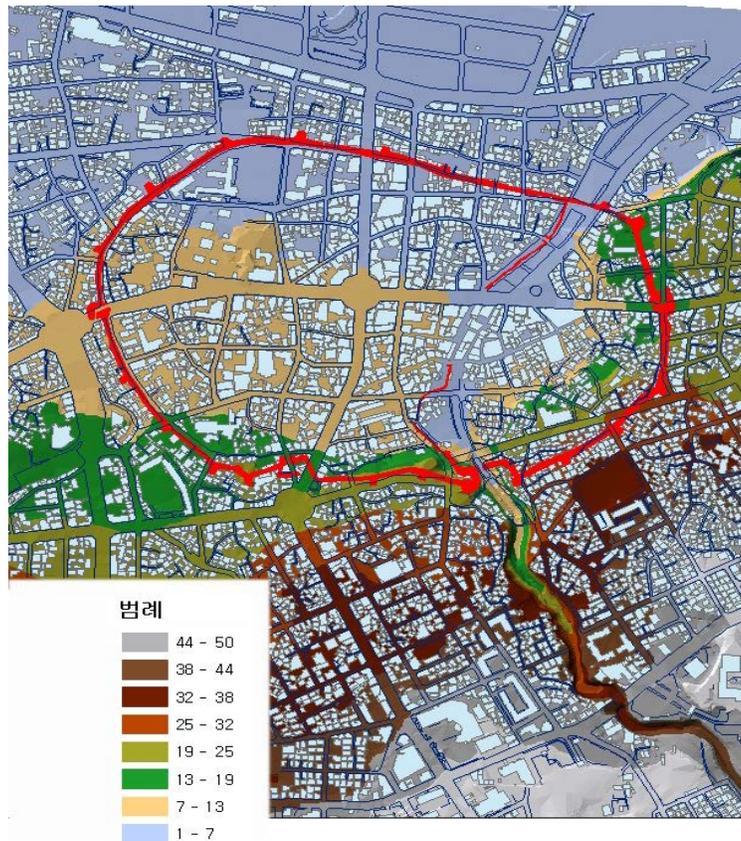
현재의 제주성은 잔존해 있던 남성 일부 구간인 오현단 후면 남쪽을 보수하여 남성 동쪽 150여m 구간과 3개의 치성을 정비하였다. 그 외에는 남서쪽 방향의 전 제주대학교부속병원 일원 및 동북쪽 제주기상대 지역에 일부가 남아 있어 대부분 이면도로로 활용하고 있다.

## 2. 제주성 주변 여건 분석

### 1) 물리적 현황

#### (1) 지형적 여건 현황

제주성지 및 주변지역의 표고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주성지는 표고 1~7m의 낮은 지역에서부터 표고 19~25m까지 넓게 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지 내의 경우 1/3 정도는 바닷가 쪽으로 낮은 지형이고, 1/3정도가 표고 7~13m에 해당되는 지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IV-1] 표고로 본 제주성지의 위치

## 2) 대상지 주변 현황

### (1) 도로체계 및 건축물 현황

제주성지가 위치한 원도심 지역은 병문천, 한천, 산지천을 끼고 해변에 위치한 읍성도시이자 해안도시이다. 옛날에는 산지포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고, 화북포구와 함께 육지부와 연결되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해안을 따라 신작로를 개설하면서 제주도의 해안마을이 크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도시화·근대화 과정 속에 제주도의 도시공간구조는 더욱 변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제주읍성을 중심으로 원도심은 1960년대의 횡단도로개설을 통한 도로확장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교차로의 확장과 산지천의 복개가 눈에 띄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한천, 병문천의 복개뿐만 아니라 탐동매립 등으로 인해 원도심의 도로체계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일제강점기 신작로를 기반으로 하여 해안변을 따라 어업중심의 1차 산업 위주의 시가지 형성에 초점을 두었던 1950년대와 달리 1960년대에 들어서는 관광산업도시로의 기반구축에 초점을 두고 제1횡단도로, 제2횡단도로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원도심의 공간구조는 동서남북으로 관통되는 도로에 의해 크게 4지역으로 분리되어 길과 길로 이어졌던 유기적인 공간연결체계가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덕정을 지나는 길들 역시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길이 넓혀지고 제주목의 관아 건축물을 철거하여 일제강점기의 행정업무를 위한 근대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이는 제주 사람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이었던 관덕정 광장을 빼앗은 것이며,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관덕정 앞 주성(州城) 시장을 철거함으로써 시민생활 그 자체와 정신적 가치를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아픔은 제주성을 허물고 돌들을 제주항 방파제 축조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철거된 성터에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들이

개설되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골목길이 만들어냈던 다양한 길의 풍경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의 외연적 확장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는 약화되었으나, 인접하여 여객터미널과 10여분 거리에 제주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여전히 물류와 교통의 주요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3), 『濟州城-제주성총서 사진·지도』, p.32.

[그림 IV-2] 원도심의 도로체계와 주변 현황

(주: 자세한 도로체계는 [그림 IV-4] 참조)



[그림 IV-3] 제주성지 주변의 도로체계 및 건축물 현황

## (2) 토지이용 규제 현황

제주성내는 도시계획상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무근성 일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한두기·서한두기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한 병문천 주변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제주목관아 일대는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자료: 제주시 · 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3), 『濟州城-제주성총서 사진 · 지도』, p.41.

[그림 IV-4] 도로체계, 토지이용계획 및 문화재 보호 적용범위 현황

### (3) 문화유적 분포현황

제주성지 내 및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 유적과 주요시설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주요 문화재로는 국가사적인 제주목관아를 비롯하여 제주도문화재인 향사당과 동자복, 오현단을 비롯하여 중인문 터, 복수구 터, 공신정 터, 옛 제주시청사 터 등 역사적 가치를 갖는 장소도 넓게 분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주변 문화유적 및 주요 시설-역사문화자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주성지 내에는 7개의 별자리와 관련된 칠성대가 위치하고 있다. 이는 탐라시대 도시 구성에 있어서 하늘의 별자리와 연계하여 삶의 공간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 있는 문화유적의 공간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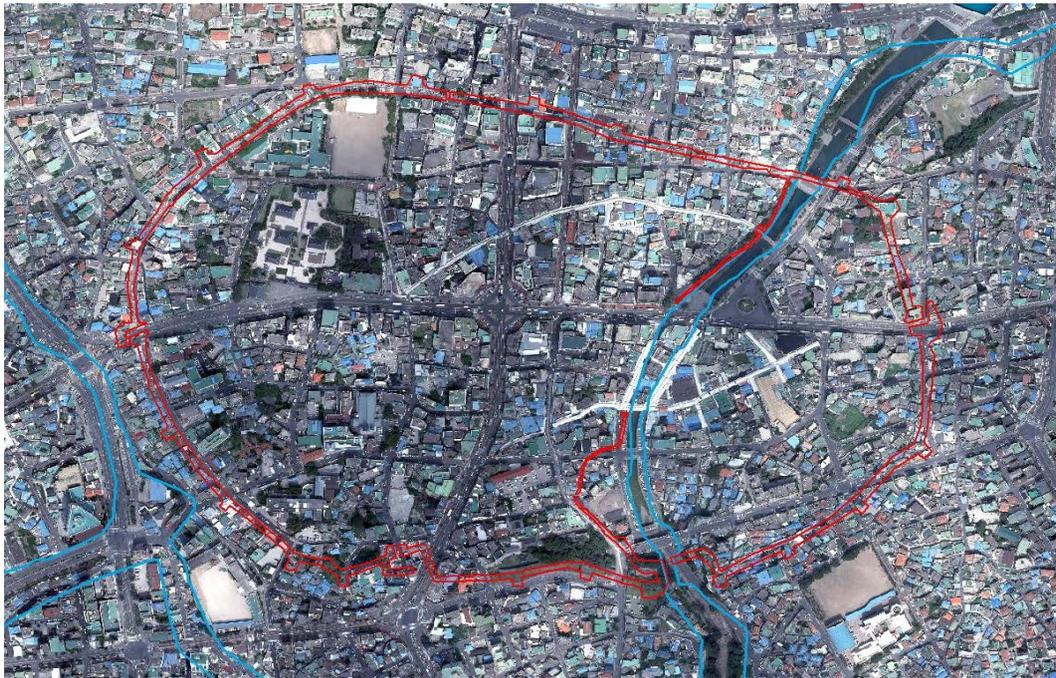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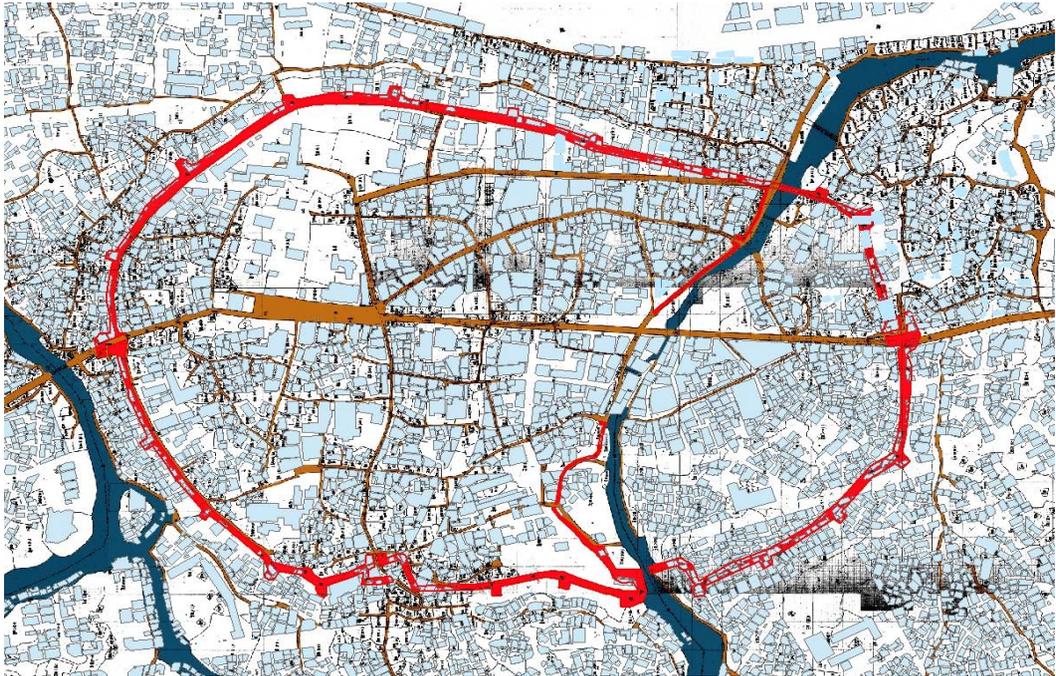


[그림 IV-5] 제주성내 문화유적 터 및 골목길

#### (4) 제주성내 성곽(城郭) 및 골목길 현황

##### ① 훼손 현황

1914년 지적도를 활용하여 제주성지 및 옛길 하천 등의 훼손 현황을 파악하여 보았다. 그 결과 제주성지의 상당 부분은 도로 개설로 훼손되었고, 일부는 건축물로 인해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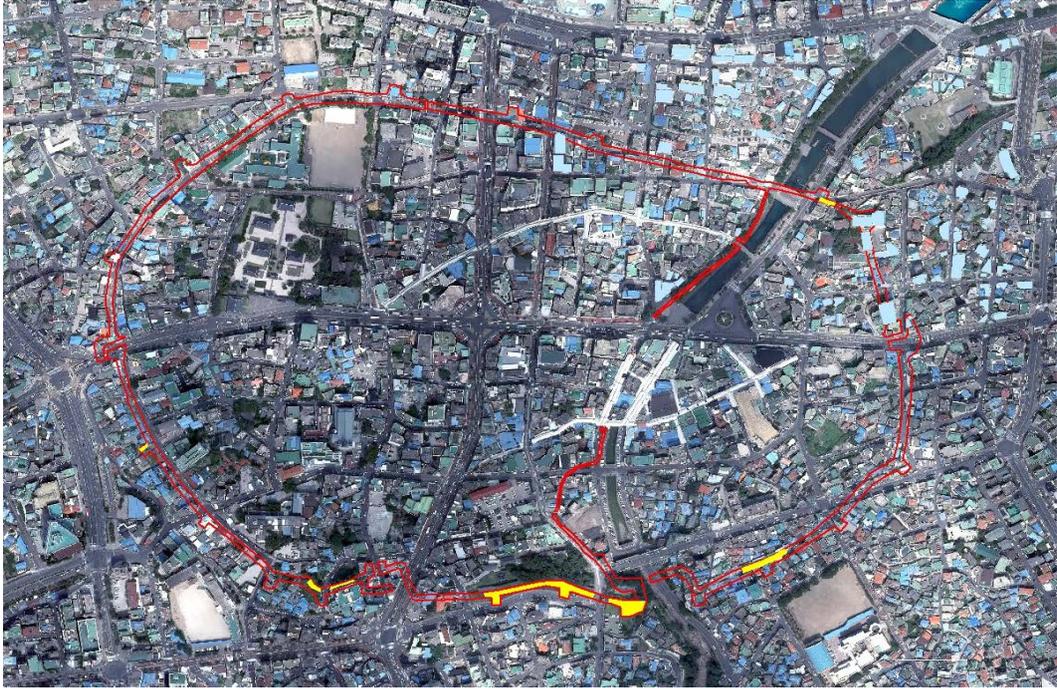


자료: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3), 『濟州城-제주성총서 사진·지도』, p.161.

[그림 IV-6] 1914년 지적도를 이용한 건축물 분포 위치와 제주성지 훼손 현황(위). 항공사진상의 제주성지 위치 파악(아래)

② 제주성지의 잔존구간

현지조사를 통해 제주성지의 잔존구간은 문화재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성지와 남문 일대, 남수구 일대, 기상청 일대 등 총 6곳으로 파악되었다. 잔존구간의 위치 및 구체적인 현황은 각각 [그림 IV-7]과 [표 IV-1]과 같다.



[그림 IV-7] 제주성지의 잔존구간

<표 IV-1> 제주성지 잔존구간의 길이 및 잔존상태

구간	잔존규모(측량중)		위치	잔존상태
	길이(m)	높이(m)		
1	17	5.5	기상청 후문계단	외벽 일부
2	15	4	일도1동 1095-28번지 일대(남수각 동편)	내벽 일부
3	139	3	오현단(현 제주성지 복원구간)	복원
4	6.5	2.8	삼도2동 175-1번지 일대	내벽 일부
5	11	2.2	삼도2동 184-6번지 일대	내벽 일부
6	1.5	1.2	삼도2동 177-2번지 일대	내벽 일부
7	-	-	삼도2동 830-5번지 일대	외벽 일부

### 3. 인문역사환경

#### 1) 제주성지 일대 마을의 역사적 환경<sup>20)</sup>

제주시는 1955년 9월 1일부터 시제(市制)가 실시됨에 따라 제주시(濟州市)라 하여 시(市)로 승격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탐라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금과 거의 같은 마을 체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일도(一徒)와 이도(二徒), 삼도(三徒) 등을 통합하여 대촌(大村) 또는 대촌현(大村縣)이라 했다. 제주성(濟州城)을 쌓으면서 성 안[城內] 마을은 주로 ‘성안’이라 하고, 성 밖 마을은 ‘목안(牧一: 실제 발음은 ‘모관’)이라 했는데, 이때도 성안을 대촌이라 했다.

조선 중기에는 ‘성안’을 ‘읍내(邑內)’라고도 했다. 조선 후기에는 지금의 제주시 일대를 중면(中面)이라 하였다. 18세기 중반의 자료로 보이는 『탐라방영총람』(방리)을 보면, 당시 중면에 27개 마을(성안 3개 마을, 동문 밖 8개 마을, 남문 밖 7개 마을, 서문 밖 9개 마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4월 1일부터 행정구역을 조정했는데, 당시 제주군(濟州郡) 중면(中面)을 제주군 제주면(濟州面)으로 바꾸고, 25개 마을을 거느리게 되었다. 1915년 5월 1일부터 행정상 도제(島制)를 실시하면서 제주군 제주면을 제주도(濟州島) 제주면이라 하였다. 1931년 4월 1일부터 제주면이 제주도(濟州島) 제주읍(濟州邑)으로 바뀌었다.

이후 1946년 8월 1일부터 제주도(濟州道)제 실시로 제주읍은 전라남도 관할에서 분리되면서 북제주군에 속하게 되어 제주도(濟州道) 북제주군(北濟州郡) 제주읍(濟州邑)이 되었다. 1955년 9월 1일부터 제주읍이 시(市)로 승격하여 북제주군 관할에서 분리되었다. 이때부터 제주도 제주시라 하였고, 당시는 조선 후기부터 이어져온 25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31일부터 제주시 관할의 25개 마을을 40개 동(洞)

20) 오창명(2005), 『3 동(洞) 및 마을 이름 유래』, 『濟州市五十年史』上卷, 제주시, pp.147-151. 오창명(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 행정명사·제주시 편』, pp.424-451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으로 개편하였다. 1962년 1월 1일부터 40개 동을 14개 행정동으로 축소하였다가, 1979년 5월 23일부터 일도동을 일도1동과 일도2동으로, 이도동을 이도1동과 이도2동으로, 오라동을 오라동과 연동으로 나누어 17개 행정동으로 바꾸었다. 1983년 10월 1일부터 삼도동을 삼도1동과 삼도2동으로 나누어 18개 행정동이 되었고, 1985년 10월 1일부터 용담동을 용담1동과 용담2동으로 나누었다. 2015년 현재는 19개 행정동, 40개 법정동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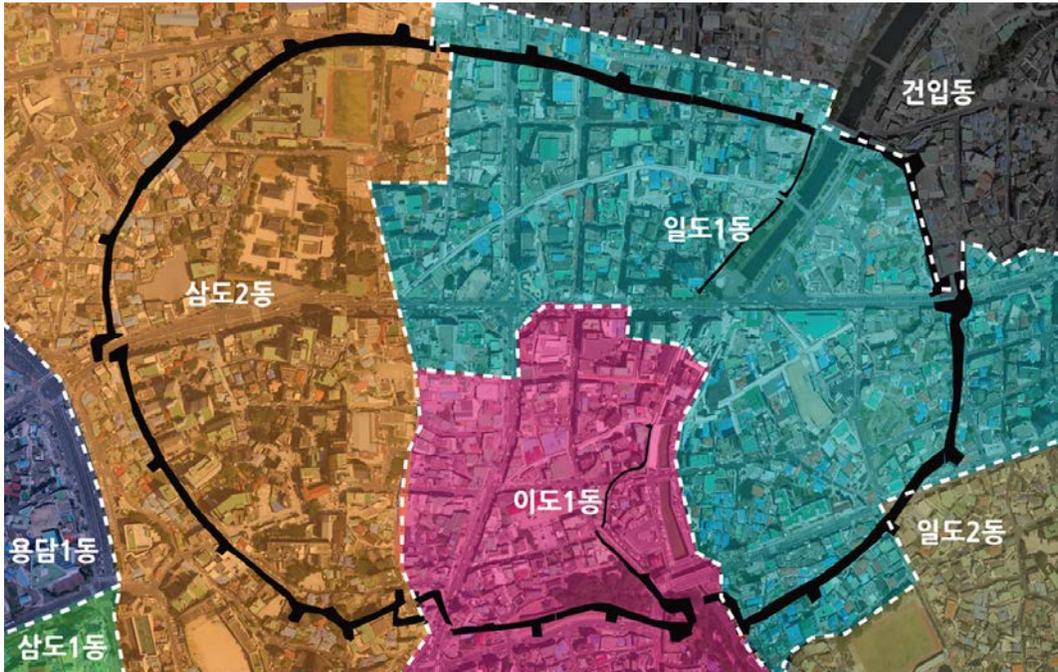
제주성지 일대의 역사적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원도심권에는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이 분포되어 있다. 1952년 제주시가 14개동으로 개편된 후, 1973년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일도동으로 20,914명이며, 다음으로 삼도동 18,146명, 이도동 16,960명, 용담동 16,950, 건입동 11,702명 순으로 나타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시 인구밀집 지역이었다. 그러나 2015년 7월 31일 현재 인구는 노형동이 54,342명으로 가장 많고, 원도심권인 일도1동은 3,495명, 이도1동은 7,971명, 삼도2동은 9,193명으로 1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건입동은 10,229명으로 1만 명을 넘고 있다.

## (1) 일도1동

일도1동은 제주시 중심마을 중 하나로 동문로터리 서북쪽과 동남쪽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다. 『고려사』(권57, 지리2, 탐라현)와 『영주지』·『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전라도, 제주목) 등에는 일도(一都)로 표기되어 있고, 『탐라국왕세기』와 이원진 『탐라지』(제주목), 이형상 『남환박물』 등에서는 일도(一徒:일너·일내)로 표기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제주목 중면 일도리(一徒里:일내마을)라 했는데, 1955년 9월 1일 시제(市制) 실시에 따라 제주시에 편입되어 일도1동과 일도2동으로 나뉘었다가 1962년부터 2개의 동을 일도동(一徒洞)이라 하였다. 이후 1979년부터 5월부터 다시 일도1동과 일도2동으로 분리된 뒤 객사골, 칠성골, 생곶골·생깃골, 막은골, 해깃골, 산지목골, 한깃골·한질골, 셋물골 등의 자연마을을 바탕으로 일도1동(一徒一洞)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한라산 방면으로 확장·개발됨에 따라 지금은 재구획되어 동문(東門)성안은 거의가 일도1동에 속하고, 일도2동은 신산동과 인화동으로 되었다.



자료: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3), 『濟州城-제주성총서 사진·지도』, p.34.

[그림 IV-8] 제주시 원도심권의 행정구역 분포도

현재 일도1동은 산지천 동쪽 동문시장 일대의 내팍골과 동문시장 안 옛 동부교회에서 옛 동양극장 뒷골목에 이르는 구멍골, 옛 영락교회, 운주당 등이 있었던 소로기동산, 고령전, 운주당골, 동문로터리 북쪽으로 공신정이 있었던 제주지방기상청, 삼천서당이 있었던 제주은행 앞 산지목골, 칠성동 일대의 칠성골, 셋물골, 막은골, 그리고 바다쪽으로는 해짓골까지로 제주시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지만 인구밀도가 조밀한 중심지이었다. 일도1동에 속하는 마을은 내팍골, 셋물골, 창신골, 칠성골, 운주당골, 막은골, 배부른동산, 성굽, 고령밭, 산지목골, 알생깃골, 소로기동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도1동은 제주시의 ‘명동’ 또는 ‘중앙동’으로서 여러 금융기관 및 동문재래시장,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고, 제주목관아, 산지천, 사라봉, 탑동을 연계한 문화·관광벨트의 중심지이자 중앙로, 동문로, 관덕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인접동으로는 서쪽으로 삼도2동, 남쪽에는 일도2동, 이도1동, 동쪽에는 건입동이 접해 있다.

## (2) 이도1동

이도1동은 제주시 중심마을 중 하나로, 남문로터리(남문사거리) 동쪽과 삼성혈 남쪽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다. 『고려사』(권57, 지리2, 탐라현)와 『영주지』·『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전라도, 제주목) 등에는 이도(二都)로 표기되어 있고, 『탐라국왕세기』와 이원진 『탐라지』(제주목), 이형상 『남환박물』 등에서는 이도(二徒:이너·이내)로 표기되었다.

태고 시 고을나(高乙那), 양을나(梁乙那), 부을나(夫乙那) 삼신 중의 양을나(梁乙那)의 양기(梁琪)와 양유침(梁有琛)의 거소로서 당시 가락천변(加樂川邊)에 있는 가령촌(嘉嶺村)을 중심으로 이도(二徒)라 칭한 데서 연유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제주목 중면 이도리(二徒里:이내마을)라 했는데, 1955년 9월 1일 시제(市制) 실시에 따라 제주시에 편입되어 이도1동과 이도2동으로 나뉘었다가 1962년부터 2개의 동을 이도동(二徒洞)이라 하였다. 이후 1979년부터 5월부터 다시 이도1동과 이도2동으로 분리된 뒤, 도목골·두목골, 오현단, 옷생깃골, 세병골, 모흥골 등의 자연마을을 바탕으로 이도1동(二徒一洞)이라 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도1동은 서쪽으로는 남문 한길 동쪽이며 동쪽으로는 ‘가락곶내’ 서쪽이 되고, 남쪽으로는 광양로를 경계로 하며 북쪽으로는 관덕로를 경계로 한다.

중앙로가 개설되면서 옛날의 지명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지만, 촌로들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혈 주변의 마을 ‘모흥골’, 중앙로 중간 지점 동서로 난 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 ‘두목골’, 옛 관음사 포교당 남쪽 골목길이 동서로 이루어진 ‘생깃골’, 중앙로에서 옛 남양방송 앞까지 이어진 골목 주변 마을인 ‘세병골’, 오현단 서쪽에 있었던 ‘항골’, ‘항골’에서 중앙로 건너 ‘통물’이 있었던 만수당 약국에서 ‘남문골’로 이어지는 ‘물항골’ 등의 마을이 이도1동 지역을 이루고 있다.

이도1동은 중앙로터리-남문로터리-광양로터리를 잇는 상가 및 교통문화의 중심지이며 삼성혈, 제주성지 및 오현단이 위치해 있어 유서 깊고 제주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3) 삼도2동

삼도2동은 제주시 중심마을 중 하나로, 관덕정·제주목 관아지 주변과

그 서·북쪽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다. 『고려사』(권57, 지리2, 탐라현)와 『영주지』·『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전라도, 제주목) 등에는 삼도(三都)로 표기되고, 『탐라국왕세기』와 이원진 『탐라지』(제주목), 이형상 『남환박물』 등에서는 삼도(三徒:삼너·삼내)로 표기되었다.

삼도2동은 삼성설화에 의하면 부을나가 도읍지로 정한 지역을 삼도리로 명하였으며,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고 신석기 시대 이후 유물이 한천을 중심으로 해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무근성(진성동)에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상에는 탐라국 시대부터 대촌의 한 마을로서 대관관행 중심지였으며 고려시대에는 부사, 판관, 만호 등이, 조선시대에는 목사, 판관, 좌수, 향창이 기거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 제주목이라 하여 중앙에서 파견한 목사가 제주를 다스리는 관청이 있는 제주성(현재 삼도 2동)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제주목 중면 삼도리(三徒里:삼내마을)라 했는데, 1955년 9월 1일 시제(市制) 실시에 따라 제주시에 편입되어 삼도1동과 삼도2동으로 나뉘었다가 1962년부터 다시 2개의 동을 삼도동(三徒洞)이라 하였다. 이후 1983년 10월 1일부터 삼도1동과 삼도2동으로 분동된 뒤, 객사골, 막은골, 목은성, 영뒤틀골, 창뒤틀골 등의 자연마을을 바탕으로 삼도이동(三徒二洞)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삼도2동 남쪽은 전농로를 경계로 삼도1동과 접해있고, 서쪽은 서사로를 중심으로 삼도1동, 탐동로를 중심으로 용담1동과 접해있다. 동쪽으로는 건입동, 이도1동과 인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탐동해안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삼도2동은 선사시대 이래 사람들이 거주한 유서 깊은 탐라의 발상지이며, 아득한 삼국시대부터 탐라국의 행정 중심지였다. 또한 육지부와 왕래하는 포구로 이어져 내려와 제주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를 이루기도 했다.

이처럼 천년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온 탐라국의 숨결을 따라 현재 역시 전통문화 유적지인 관덕정, 제주목관아지, 향사당 등을 보유한 역사 문화의 마을이며, 제주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 복개, 탐동해안지 매립

등으로 인한 상권 및 주민편익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도민 및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다.

#### (4) 건입동

건입동은 제주항 주변과 동문로터리 동북쪽, 사라봉 서쪽 일대에 형성된 마을이다. 제주항은 예로부터 ‘건들개’로 불렸고, 한자로는 건입포(健入浦·巾入浦)로 표기되었다. 이 포구 일대에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건입촌(巾入村)·건입리(巾入里), 건입포리(健入浦里), 건입리(健入里) 등으로 부르다가 건입동(健入洞)으로 바뀌었다.

한편 ‘건들개’ 남쪽에 ‘산젓물·산젓물[山地泉]’이 있는데, 이 ‘산젓물·산젓물’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산저촌(山底村·山底村) 또는 산지(山地) 등으로 표기되었다. 이 산젓물 앞을 흐르는 내를 ‘산젓물내·산젓물내’라 하고, 한자로는 산저천(山底川) 또는 산지천(山地川)으로 표기되었다. 이 내는 조선 후기에 가락천(嘉樂川:가락곶내)으로도 표기 되었다.

조선 후기 이후에 마을 이름은 주로 건입리(健入里)라고 하다가 건입동(健入洞)으로 바뀌었다. 내 이름은 주로 산지천이라 하고 있으며, ‘건들개’에 형성된 항(港)은 일제강점기 때 산지항 또는 제주항으로 부르다가 요즘은 제주항이라 하고 있다.

건입동은 1955년 제주시에 편입되어 동(洞)이 되었으며, 1962년 동제(洞制) 실시에 따라 건입동(健入洞)이 되었다. 건입동은 서쪽 산지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이기 때문에 ‘산지’라 속칭되고, 동쪽으로는 화북과 경계지점인 ‘고으니모르’를 중심으로 여러 동네가 하나의 자연마을로 독립되어 법정동을 이루고 있다.

건입동은 본래 어업과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던 마을이었으나, 제주의 관문인 제주항이 개발됨에 따라 상업을 위주로 하는 마을로 바뀌면서 공공기관과 각종 금융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지형은 동쪽의 사라봉과 북쪽의 바다, 그리고 제주시를 관통하여 흘러내리는 산지천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 산지천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일도 1동, 남쪽으로 일도 2동, 동쪽으로 화북동이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는 바다가 아름다운 전경을 뿜내면서 펼쳐져 있다.

사라봉은 사봉낙조라 하여 제주의 영주십경 중의 하나로, 높이 148.2m의 나지막한 오름으로 현재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사라봉 아래의 제주의항에는 해양공원이 포함된 제주의항개발공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 2) 경제산업 환경

### (1) 제주시 중앙로 상권

중앙로터리 주변의 상가는 1980년대까지 전자제품 판매점이 밀집 형성되어 있었다. 그 후 교통량의 증가로 주·정차를 할 수가 없는 단점으로 인하여 점차 분산 이전되면서 현재는 지하상가, 칠성로, 동문시장을 연계하여 의류, 유명 브랜드 신발, 스포츠웨어 판매점 등이 입점 되어 있다.

현재는 교통 요지의 성격에서 조성된 상권이 주차시설 부족과 도로 협소화, 신도로 개설로 인해 쇠퇴하는 추세이며, 교통 중심 상권으로 금융, 의원, 의류, 귀금속 업종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단란주점, 커피전문점, 한식류 등 음식업종 위주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 (2)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

1982년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1990년 3,000평 규모로 완공된 제주의 유일한 지하상가로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지역으로 칠성로와 동문시장, 중앙로와의 연결을 담당하는 ‘황금 상권’의 하나였다. 칠성로 상권과 더불어 도내 최고의 의류상권을 형성하고 구축했던 ‘브랜드 메카’였지만, 대형할인매장의 등장과 장기적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3) 제주시 칠성로 상가

제주지역에 근대적인 형태의 상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일제강점기에 상점들은 관공서와 주택가가 몰려 있었던 제주시 중심부(당시 제주읍 성안)인 칠성로[本町通]와 관덕로[元町通]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도

유명 상점들이 거의 칠성로에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연유로 칠성로는 ‘제주상권의 원조지’로 인정받아 왔다.

해방 이후 칠성로는 제주상권의 중심지이자 다방과 영화관 등 문화공간과 낭만의 장소로 이어져오다가 1960년대에 중앙로가 생겨나면서 변혁이 시작되었다. 1973년에는 도내에선 처음으로 백화점 형태의 대형매장이 입점하면서 칠성로는 최대의 호황을 누리게 되고 ‘제주의 명동’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신규 택지개발과 아파트의 신축 붐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중앙지하상가의 설립으로 인해 점차 상권이 분산되었고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위축되었다.

근래에 상가 사업자들은 번영회를 결성하여 ‘차 없는 거리’ 조성, 아케이드 공사 등 옛 명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도 유명 브랜드의 의류점과 액세서리점은 밀집되어 ‘패션 1번가’로 그 명맥이 이어가고 있다.

#### (4) 동문시장

제주 최초의 상설시장인 동문시장은 제주 서민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곳으로 1만2천여 평의 부지에 950여 명의 상인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이곳은 크게 동문공설시장과 남수각 일대 노점에서 출발한 동문재래시장, 옛 시네하우스 극장이 있는 동문시장(주), 수산물만 취급하는 동문수산시장, 새벽에 문을 여는 동문새벽시장, 흥원시장(주) 등 6개의 시장으로 구분된다.

#### (5) 서문공설시장

1954년에 11월에 개설된 서문재래시장은 민속오일시장, 동문공설시장과 더불어 제주시의 3대 시장 중 하나로 동문공설시장과 같은 시기에 형성되었다. 타 지역의 상권발달로 인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의 지속적인 애용으로 1995년에 노후 된 시장을 재건축, 2년 만인 1997년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817평의 부지에 212개의 점포를 갖추고 식품판매업과 약초, 건어물, 과일 등 다종 품목을 판매하는 상권 특색을 보이며 주변의 음식점과 가구시장의 발달이 특색이다. 몇 년 전부터 고기특화시장으로 조성하여 싸게 육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6) 이마트**

제주시 삼도 2동에 소재한 이마트는 제주도 최초의 대형 할인점으로서 제주지역경제를 많이 바꾸어 놓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준 상권이며, 현재 제주에 대표적인 대형마트로서 자리를 잡은 상권이라 할 수 있다.

**(7) 기타 상권**

이 밖에도 탐동놀이공원, 서부두 횃집거리 및 삼겹살 거리 등 탐동거리 상권이 있으며, 용담 해안도로변 레스토랑과 횃집거리 등 특색상권이 제주 성지 주변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4. 주변 문화유적 및 주요 시설**

**1) 역사문화자원<sup>21)</sup>**

제주성지 주변 도심지에는 역사문화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4건, 사적 2건 등 6건이 있으며,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0건, 중요무형문화재 1건, 무형문화재 1건, 기념물 12건, 민속자료 13건 등 모두 37건이 있다. 제주성지 일대 도심지의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 현황은 <표 IV-2, IV-3>과 같다.

<표 IV-2> 제주성지 일대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단위: 건)

국가지정문화재 (6)		도지정문화재 (37)					계
보물	사적	유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4	2	10	1	1	12	13	43

21)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유적 소재지는 도로명 신주소로 변경하기 어려운 곳은 옛 주소 그대로 표시하였음을 밝혀 둔다.

<표 IV-3> 제주성지 일대 지정문화재 연혁과 현황

명 칭	소재지	시 대	현 상 태
관덕정(觀德亭)	삼도2동 983-1	1448년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322호 지정 2004~2006 전면해체보수공사 완료
탐라순력도	제주시청	조선 후기	1979년 2월 8일 보물 제652-6호 지정
예산김정희종가 유물일괄	국립제주박물관	조선 후기	2006년 7월 18일 보물 제547-2호 지정
안중근의사유묵	제주시 일도2동 417-3 서해 APT 2동 301호	근대	1999년 12월 15일 보물 제569-24호 지정 안중근 의사가 직접 쓴 친필 휘호로, 유묵(遺墨) 가운데 최상의 가치를 지닌 작품
삼성혈(三姓穴)	이도1동 1313외 7필지	미상	1964년 6월 10일 사적 제134호 지정 1971년 해체 보수해 다시 세움.
제주목관아지 (濟州牧官衙址)	삼도2동 43-3 외 23필지	조선 1435년 이전	1993년 3월 31일 사적 제380호 지정 2001년 목관아 1단계 정비사업으로 홍화각, 연희각, 굴림당 등 8동 건물 복원
제주향교 (濟州鄕校)	용담1동 298-1	1392년	1971년 8월 26일 도유형문화재 제2호 지정 1970년대 콘크리트로 지어진 명륜당을 2002년 복원
향사당(鄕社堂)	삼도2동 970-2	조선	1975년 3월 12일 도유형문화재 제6호 지정 현재 건물은 1981년 해체해 다시 지음.
용방록(龍榜錄)	제주향교 내	1892년	1991년 6월 4일 도유형문화재 제10호 지정
연방록(蓮榜錄)	제주향교 내	1893~ 1904년	1991년 6월 4일 도유형문화재 제11호 지정
급제선생안 (及第先生案)	(재)고양부 삼성사재단	1720년	1991년 6월 4일 도유형문화재 제12호 지정
탐라지도 및 지도병서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1709년	1991년 6월 4일 도유형문화재 제13호 지정
제주삼읍 도충지도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1734~ 1754년	1991년 6월 4일 도유형문화재 제14호 지정
홍화각기 (弘化閣記)	(재)고양부 삼성사 재단	1435년	1991년 6월 4일 도유형문화재 제15호 지정
보림사목조관음 보살좌상	건입동 388	조선 후기	2002년 5월 15일 도유형문화재 제18호 지정
효열록	제주교육박물관	조선 후기	2009년 7월 24일 도유형문화재 제28호 지정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건입동		1980년 11월 17일 도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지정

명 칭	소재지	시 대	현 상 태
제주농요	건입동 1044-6		2002년 도무형문화재 제16호 지정
오현단	이도1동 1421-3	조선	1971년 8월 26일 도기념물 제1호 지정
지석묘	제주시 일원 10기		1971년 8월 26일 도기념물 제2호 지정
제주성지	이도1동 1437-6외 3필지	1411년 이전	1971년 8월 26일 도기념물 제3호 지정
수근연대	용담3동 2290	조선	1978년 보수 1996년 7월 18일 도기념물 제23-8호 지정
용담동 선사무덤유적	용담2동 741-1	선사	1990년 5월 30일 도기념물 제40호 지정
용연·용두암	용담1동 2581-4		2001년 3월 7일 도기념물 제57호 지정 2004~2006년 구름다리 재건축
복신미륵	제주시 일원		1971년 8월 26일 도민속자료 제1호 지정
동자복	건입동 1247 주택가내		1971년 8월 26일 도민속자료 제1-1호 지정
서자복	용담1동 385-5 용화사내		1971년 8월 26일 도민속자료 제1-2호 지정
돌하르방	10기		1971년 8월 26일 도민속자료 제2호 지정
"	삼도2동 983-1 관덕정 앞(남)		" 도민속자료제2-1호 지정
"	삼도2동 983-1 관덕정 앞(북)		" 도민속자료 제2-2호 지정
"	일도2동 996-1 박물관 입구(동)		" 도민속자료 제2-3호 지정
"	일도2동 996-1 박물관 입구(서)		" 도민속자료 제2-4호 지정
"	삼도2동 983-1 관덕정 후문(남)		" 도민속자료 제2-5호 지정
"	삼도2동 983-1 관덕정 후문(북)		" 도민속자료 제2-6호 지정
"	이도1동 삼성혈 입구(동)		" 도민속자료 제2-7호 지정
"	이도1동 삼성혈 입구(서)		" 도민속자료 제2-8호 지정

명 칭	소재지	시 대	현 상 태
돌하르방	이도1동 삼성혈 건시문(동)		" 도민속자료 제2-9호 지정
"	이도1동 삼성혈 건시문(서)		" 도민속자료 제2-10호 지정
"	용담2동 공항 입구(동)		" 도민속자료 제2-19호 지정
"	용담2동 공항 입구(서)		" 도민속자료제2-20호 지정
상여(제구)	도민속자연사 박물관	1763년	1991년 6월 4일 도민속자료 제6호 지정
용담 지식묘 1호	용담3동 581		" 제2-1호 지정
용담 지식묘 2호	용담3동 588		" 제2-2호 지정
용담 지식묘 3호	용담2동 2002 (공항구내)		" 제2-3호 지정
용담 지식묘 4호	용담2동 2002 (공항구내)		" 제2-4호 지정
용담 지식묘 5호	용담2동 2704-1		" 제2-5호 지정
용담 지식묘 6호	용담2동 2623-1		" 제2-6호 지정

## 2) 주요 현존유적 현황

### (1) 관덕정(觀德亭)

- 지정번호 : 보물 제322호(1963년 1월 21일 지정)
- 소재지 : 제주시 삼도2동 983-1번지
- 관덕정은 조선시대 제주의 대표적인 정자다. ‘관덕(觀德)’이란 문무의 올바른 정신을 본받기 위해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쌓는 것이다(射者所以觀盛德也)’라는 ‘예기(禮記)’의 내용에서 유래되었다.
- 관덕정은 『탐라지(耽羅誌)』에 의하면 조선 세종 30년(1448) 신숙청(辛

淑晴) 목사가 병사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건했다. 성종 11년(1480) 목사 양찬이 고친 뒤, 영조 29년(1753) 김몽규 목사, 고종 19년(1882) 박선양 목사 등에 의해 여러 차례 수리됐다. 일제강점기인 1924년 당시 도지사(島司) 前田善次 때 보수하면서 긴 처마 부분을 많이 잘라냈다. 현 건물은 1969년 보수한 것이다.



-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건물은 사방이 탁 트이게 뚫려 있고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짠 구조는 새부리 모양으로 뻗쳐 나온 재료를 기둥 위에 두 개씩 짜 놓았다. 2004년부터 전면 해체 복원공사를 하였다.

## (2) 삼성혈(三姓穴)

- 지정번호 : 사적 제134호(1964년 6월 10일 지정)
- 소재지 : 제주시 이도1동 1313번지
- 제주도 고·양·부 삼성(三姓)의 시조인 고을나(高乙那), 양을나(梁乙那), 부을나(夫乙那) 세 신인(神人)이 솟아났다는 곳이다. 세 구멍은 품(品)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하나만 바다와 통하고 나머지는 흔적만 남아 있다. 조선 중종 21년(1526) 이수동 제주목사가 돌 울타리를 쌓고 삼성혈 북쪽에 홍문(紅門)과 비석을 세워 단장했다. 삼성의 후예로 하여금 봄·가을에 제사를 모시고, 매년 11월 상정일(上丁日)에 도민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현재 삼성혈 건물은 1971년 해체보수 후 다시 세운 것이다.



### (3) 제주목관아(濟州牧官衙)

- 지정번호 : 사적 제380호(1993년 3월 31일 지정)
- 소재지 : 제주시 삼도2동 43-3번지
- 관아(官衙)란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보던 건물로서, 지방통치의 산실이다. 따라서 제주목 관아터는 제주의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였다. 발굴조사 결과 탐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관아의 중요한 시설이 확인됐다. 관덕정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목사의 동헌과 관아시설, 남쪽(옛 제주대학병원)에는 판관과 관련된 관아시설이 있었다. 이로써 제주목 관아터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의 중심지 구실을 한 중요한 곳임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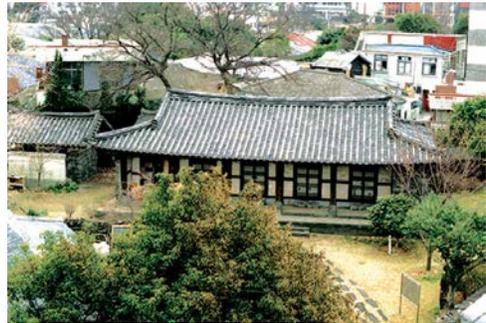
### (4) 제주향교

- 지정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호(1971년 8월 26일 지정)
- 소재지 : 제주시 용담1동 298-1번지
- 제주향교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에게 제사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을 위해 세운 국립교육기관이다. 조선 태조 원년(1392) 제주성내 교동(현 관덕로)에 세웠으며, 여러 차례 옮겨진 뒤 순조 27년(1827)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로는 공부하는 곳인 명륜당, 사당인 대성전과 계성사 등이 있다. 1960년대 콘크리트로 다시 지어졌다가 다시 옛 모습으로 보수됐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책, 노비 등을 받아 학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1894) 이후 지금은 봄가을에 석전제를 지내고 있다.



**(5) 향사당(鄕社堂)**

- 지정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6호(1975년 3월 12일 지정)
- 소재지 : 제주시 삼도1동 970-2번지
- 조선시대 나이 많은 어른들이 마을의 여러 일을 의논하고, 향안(鄕案)을 보관하던 곳이다. 또 각 고을 무반(武班)들이 봄·가을 2차례 모임을 갖고 활쏘기와 잔치를 베푼 장소이기도 하다. 가락천 서쪽에 처음 지었던 것을 조선 숙종 17년(1691)에 판관 김동(金凍)이 현 위치로 옮겨 짓고 향사당(鄕射堂)이라 이름 지었다. 정조 21년(1797) 유사모방어사가 건물 이름을 향사당(鄕社堂)이라고 변경했다. 이 건물은 1981년에 동남향이던 방향을 동북향으로 바꾸어 다시 지은 것이다.



**(6)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 지정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1980년 11월 17일 지정)
- 소재지 : 제주시 건입동
- 제주 칠머리당굿은 제주시 건입동의 본향당(本鄕堂)인 칠머리당에서 하는 영등굿이다. 건입동은 제주도의 작은 어촌으로 주민들은 물고기와 조개를 잡거나 해녀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마을 수호신인 도원수감찰 지방관(都元帥監察地方官)과 요왕해신



부인(龍王海神夫人) 두 부부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비는 곳을 했다. 영등신은 외눈백이섬 또는 강남천자국에서 2월 1일에 제주도에 들어와서 어부와 해녀들에게 풍요를 주고 2월 15일에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내방신(來訪神)이다. 당굿은 칠머리당에서 음력 2월 1일에 영등환영제와 2월 14일에 영등송별제로 한다. 굿을 하는날은 건입동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시

내의 어부와 해녀들도 참가한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제사에 쓰일 음식을 차려서 당으로 가져온다. 메인심방이 징과 북, 설쇠 등의 악기 장단에 맞추어 노래와 춤으로 굿을 진행한다. 굿의 순서는 모든 신을 불러 굿에 참가한 집안의 행운을 비는 초감제, 본향당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과 요왕해신부인을 불러 마을의 평안을 비는 본향뚝, 용왕신과 영등신이 오시는 길을 닦아 맞이하고 어부와 해녀의 안전을 비는 요왕맞이, 마을전체의 액을 막는 도액막음, 해녀가 바다에서 잡은 것들의 씨를 다시 바다에 뿌리는 씨드림, 영등신을 배에 태워 본국으로 보내는 배방송, 처음 불러들인 모든 신들을 돌려보내는 도진으로 끝이 난다. 제주 칠머리당굿은 영등신에 대한 제주도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져 있는 굿이며,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의 굿이라는 점에서 그 특이성과 학술적 가치가 있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2009년 9월 30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7) 오현단

- 지정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호(1971년 8월 26일 지정)

- 소재지 : 제주시 이도1동 1421-3번지

- 조선시대 제주도에 유배되거나 방언사로 부임하여 이 지방의 교학 발전에 공헌한 다섯 분 오현(五賢)을 기리고 있는 제단이다.



- 오현단은 고종 8년(1871)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굴림서원이 철회된 뒤 고종 29년(1892) 제주유림들의

건의로 굴림서원에 배향되었던 오현을 기리기 위해 비석을 세운 제단이다. 그 시초는 선조 11년(1578) 임진 목사 당시, 판관 조인후가 가락천 동쪽에 충암 김정을 모시기 위한 충암묘를 지은 데서 비롯되었다. 현종 6년(1665) 판관 최진남이 이 충암묘를 이 자리로 옮겨놓은 뒤, 숙종 8년(1682) 예조정랑 안건지를 제주도에 파견하여 '굴림서원'이라는 현판을 내려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은

등 네 분의 위패를 모시도록 하였다. 숙종 21년(1695) 우암 송시열도 함께 모시면서 오현을 배향하게 되었다.

- 굴림서원은 조선시대 유학과 유교문화의 전당으로서 제주 유생들의 지주 역할을 했던 서원이다. 굴림서원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유배된 뒤 사사된 충암 김정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선조 11년(1518) 판관 조인후가 가락천 동쪽에 충암묘를 지은 것이 그 시초이다. 고종 8년(1871) 서원 철폐령에 의해 폐원되었다가, 2000년 이후 복원하여 현재 장수당과 향헌사 등이 복원되었다.

### (8) 제주성지(濟州城址)

- 지정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3호(1971년 8월 26일 지정)
- 소재지 : 제주시 이도1동 1437-6번지 외
- 탐라국의 중심 성곽으로 오래 전에 쌓은 것이라 전해진다. 『태종실록』에 태종11년(1411) 제주성 수축을 명하였고,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성 둘레를 910보(步)라 썼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둘로 쌓았고, 둘레 4,394척, 높이 11척이라 적었다. 그 후 조선 중종 7년(1512)에 둘레를 5,486척으로 확장하고 방어시설을 갖추었다. 성안에 샘이 없어서 겪었던 급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했다.
- 명종 10년(1555) 을묘왜변 때는 왜적이 침입하여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으나, 이를 물리치는 데 성공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벽을 5척 높여 쌓고 방어시설을 갖추기도 하였다. 1925년까지 성이 보존됐으나, 일제강점기인 1925~1928년에 제주항을 개발하면서 건입동 포구 앞바다를 매립할 때 성곽의 돌을 매립 골재로 사용하면서 크게 훼손되었다.



### (9) 동자북

- 지정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 제1-1호 (1971년 8월 26일 지정)
- 소재지 : 제주시 건입동 1275번지

- 동자복은 만수사 옛터인 개인주택지 안에 자리하고 있는 미륵으로, ‘복신미륵’, ‘자복신’, ‘자복미륵’, ‘미륵불’, ‘큰어른’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옛 제주성의 동쪽에 성안을 수호하듯 세워져 있었던 높이 2.9m의 다공질 현무암으로 제작된 석불로 제작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동자복이 있는 곳은 조선 초까지만 해도 만수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제주시 용담1동의 해륜사와 함께 서로 대칭적으로 마주보고 있어 현재 터에 미륵석상이 현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옛 절터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만수사는 고려시대에 해륜사와 같은 시기에 세워졌을 것으로 짐작되고, 18세기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유추된다.



### (10) 서자복

- 지정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 제1-2호 (1971년 8월 26일 지정)
- 소재지 : 제주시 용담1동 395번지

- 서자복은 제주시 용담동 해륜사지 옛터에 보존되어 있는 미륵으로, ‘복신미륵’, ‘자복신’, ‘자복미륵’, ‘미륵불’, ‘큰어른’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옛 제주성의 서쪽에 성안을 수호하듯 세워져 있었던 높이 1.9m의 석불로 제작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서자복은 동향을 하고 있는



데, 이는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만수사지의 미륵불인 동자복과 제주성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안을 보호했던 상징으로 세워진 석불로 보인다. 용담동 동한두기의 절동산이라는 언덕에 있는 서자복의 자리는 고려 때 해륜사, 일명 서자복사라는 사찰이 있었던 곳으로 조선시대 18세기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 1910년경 용화사라는 사찰이 지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석불도 용화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11) 돌하르방

- 지정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 제2호(1971년 8월 26일 지정)
- 소재지 : 제주시내 일원

- 돌하르방은 장승의 일종으로서, ‘우석목’, ‘무석목’ 등으로 불리다가 1970년대부터 제주어로 ‘돌하르방’이라 불리기 시작하였다. 제주목(濟州牧)·정의현(旌義縣)·대정현(大靜縣)의 성문(城門) 입구에 세워졌던 것이다, 현재는 제주대학·시청·삼성혈·관덕정 등에 산재해 있으며 제주시내에 21기, 성읍(城邑)에 12기, 대정의 인성·안성·보성에 12기 등 도합 45기가 있다. 석상의 형태는 대체로 병거지형 모자, 부리부리한 왕방울눈, 큼지막한 주먹코, 꼭 다문 입과 두 손은 배 위에 아래로 위엄 있게 얹은 모습을 하고 있다.



- 돌하르방의 제작 연대는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기년(耽羅紀年)』(1918)과 담수계(淡水契)에서 펴낸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 의하면, 돌하르방을 옹중석이라 하여 1754년(영조 30)에 당시 제주목사 김몽규가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확실한 연대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돌하르방은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며 기원하는 수호신적·주술종교적 의미와 도읍지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경계 금표적 기능을 하였다.
- 돌하르방의 위치 이동 상황은 현재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여러 연구자들의 자료를 종합 분석해 보면 다음 <표 IV-4, IV-5> 와 같다.

<표 IV-4> 돌하르방의 위치 이동 상황

원위치	일제 초기	일제 말기	현용준 조사 (1963년)	김영돈 조사 (1968년)	김두하 조사 (1977년)	김두하 재조사 (1987년)
동문밖 8기	원위치 8기	원위치 8기	원위치 8기	도청 2기 민속박물관 2기 제주대학 2기	도청 2기 KBS방송국 2기 제주대학 2기	시청 2기 KBS방송국 2기 제주대학본관

원위치	일제 초기	일제 말기	현용준 조사 (1963년)	김영돈 조사 (1968년)	김두하 조사 (1977년)	김두하 재조사 (1987년)
				국립민속박물관 2기	국립민속박물관 2기	앞 2기 국립민속박물관 2기
서문밖 8기	원위치 6기 삼성사 2기	?	원위치 1기 삼성사 4기 제주여고 앞 2기 (불명 1기)	원위치 1기 삼성사 4기 제주여고 앞 2기 (불명 1기)	목석원 1기 삼성사 4기 공 항 2기 (불명 1기)	목석원 1기 삼성사 4기 공 항 2기 (불명 1기)
서문밖 8기 ?	원위치 6기 관덕정 2기	관덕정 6기 (불명 2기)	관덕정 6기 (불명 2기)	관덕정 6기 (불명 2기)	관덕정 6기 (불명 2기)	관덕정 4기 자연사박물관 2기 (불명 2기)
남수구문 (불명)						
북수구문 4기	원위치 4기	삼천서당 앞 4기	제주대학 2기 삼천서당 앞 2기	제주대학 2기 (불명 2기)	제주대학 2기 (불명 2기)	제주대학 강당 앞 2기 (불명 2기)
합계 28기	28기		(불명 3) 25기	(불명 5) 23기	(불명 5) 23기	(불명 5) 23기

자료 : 김두하(1990), 『벽수와 장승』에서 인용함.

<표 IV-5> 돌하르방의 현소재지와 문화재 지정번호

원위치	소재지	지정번호 (1971년 8월 26일)
제주읍성 동문 밖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정문 (동)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정문 (서)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현관 (동)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현관 (서) 제주시 도남동 제주KBS 방송국 앞 제주시 도남동 제주KBS 방송국 앞	민속자료 제2-11호 민속자료 제2-12호 민속자료 제2-15호 민속자료 제2-16호 민속자료 제2-17호 민속자료 제2-18호
제주읍성 남문 밖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 입구 (동)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 입구 (서)	민속자료 제2- 7호 민속자료 제2- 8호

원위치	소재지	지정번호 (1971년 8월 26일)
제주읍성 남문 밖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 건시문앞 (동)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 건시문앞 (서) 제주시 용담동 공항 입구 (동) 제주시 용담동 공항 입구 (서) 제주돌문화공원 내	민속자료 제2- 9호 민속자료 제2-10호 민속자료 제2-19호 민속자료 제2-20호 민속자료 제2-21호
제주읍성 서문 밖	제주시 삼도2동 관덕정 앞 (남) 제주시 삼도2동 관덕정 앞 (북) 제주시 일도2동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입구(동) 제주시 일도2동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입구(서) 제주시 삼도2동 관덕정 후문 (남) 제주시 삼도2동 관덕정 후문 (북)	민속자료 제2- 1호 민속자료 제2- 2호 민속자료 제2- 3호 민속자료 제2- 4호 민속자료 제2- 5호 민속자료 제2- 6호
제주읍성 북수구문 밖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박물관입구 (동)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박물관입구 (서)	민속자료 제2-13호 민속자료 제2-14호

### 3) 근대문화유산

옛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지역 근대문화유산은 건조물 12건, 동굴진지 20건, 4·3 유적 149건 등 모두 161건으로 조사되었다. 제주도가 2003년 발간한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에 보면, 32건의 근대문화유산이 조사되었다. 이 보고서는 개항 이후부터 제주도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신제주 신시가지 조성계획이 마련되는 60년대까지를 제주 근대 시기로 설정하고, 근대적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물과 구조물을 근대 문화유산의 대상으로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제주 4·3 유적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주도와 제주4·3연구소가 2003년 발간한 『제주 4·3유적 I』에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지역 4·3 유적을 조사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4·3 당시 행정구역, 즉 제주읍, 조천면, 구좌면, 애월면, 한림면 등으로 구분하여 4·3 유적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가장 최근 제주 지역의 근대 역사문화시설 목록을 검토하고 문화자원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로는 제주발전연구소에서 2013년 발간한 『제

주 근대 역사문화시설의 문화자원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1900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역사문화시설을 조사하여 제주도의 근대화 지역은 어느 곳인지, 근대화의 산물인 시설들은 어느 지역에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근대문화유산 목록 가운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제주성 일대에 현존하는 건조물 분야 근대문화유산은 8건이며, 동굴진지 분야 근대문화유산은 1건, 4·3 유적 관련은 3건이다. 제주성지 일대 근대문화유산 현황과 4·3유적 현황은 다음 표 <Ⅳ-6, Ⅳ-7, Ⅳ-8>과 같다.

<표 Ⅳ-6> 제주성지 일대 근대문화유산 동굴진지 현황

명칭	소재지	건립연도	비고
사라봉 일제동굴진지	제주시 사라봉동길 74	1945	제주시민공원으로 이용

<표 Ⅳ-7> 제주성지 일대 근대문화유산 건조물 현황

연번	명칭	소재지	건립연도	비고
1	옛 제주극장	제주시 관덕로 2길 11	일제 강점기	- 지상 2층 / 석조 - 제주시 최초의 극장 - 현재 대교산업카렌다공장으로 이용
2	중앙로 박씨 초가	제주시 중앙로 14길 15-16	1750년경	- 지상 1층 - 초가 안거리는 건축 당시 구조 그대로 근대 이전 모습 유지
3	중앙로 박태훈 가옥	제주시 중앙로 12길 14	일제 강점기	- 지상 1층 - 현재 박태훈 후손 거주, 보존 상태 양호
4	제주화교소학교	제주시 관덕로 2길 19	1953	- 지상 2층/ 석조 - 1953년 건축 당시 양식 그대로 유지 - 현재 폐교 상태
5	제주 시민회관	제주시 고전길 26	1964	- 지상 3층/ RC+철골 - 보존상태 비교적 양호
6	옛 동양극장, 동문시장	제주시 동문로16	1965	- 지상 2층 - 제주출신 건축가 김한섭의 대표작 - 보존 상태 양호 - 현재 극장 폐업

연번	명칭	소재지	건립연도	비고
7	옛 제주 관광호텔(현 하니크라운호텔)	제주시 삼성로 10	1963	- 지상 4층 - 제주 최초 민간호텔 - 외관 및 내부 일부 개조 불구, 보존상태 양호 - 김택식 설계, 전체적으로 수평성이 강조된 입면 구조가 특징
8	제주시 산지등대	제주시 사라봉동길 108-1	1916	- 현재 본 등대의 서쪽 높이 18m의 등대를 세워 가동 중

<표 IV-8> 제주성지 일대 현존 4·3유적지 현황

연번	구분	명칭	소재지	비고
1	비석	공적비	제주시 만덕로 6길 32	- 1기 온전, 나머지 거의 파손
2	역사현장	관덕정과 관덕정 앞 광장	제주시 관덕로 19 일대	- 1947년 제28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군중들이 빠져나오다 경찰의 발포로 희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곳
3		현 제주북초등학교	제주시 중앙로 8길 18	- 1947년 3월 1일 제28주년 3·1절 기념식 개최된 곳

#### 4) 경관자원

##### (1) 용연과 용두암

한천 하구인 용연(龍淵)은 예로부터 취병담(翠屏潭)이라 하며 영주 12경의 하나인 용연야범(龍淵夜泛)의 절경지로 용두암(龍頭岩)은 제주시 대표하는 유명 관광지이다.

##### (2) 용연 구름다리

제주시는 그동안 용연 및 주변일대를 야간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탄생시켜

나가고자 용연구름다리 재현 및 야간경관조명 시설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아 2005년 4월에 완공되었다.

### (3) 사라봉

해발 148m의 사라봉은 제주항 동쪽으로 바닷가를 접해 위치한 오름으로 제주시를 대표하는 오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름 북쪽으로 망망한 바닷가가 눈앞에 펼쳐지고, 남쪽으로 웅장한 한라산이 보이며, 발아래에는 제주시의 시가지와 주변의 크고 작은 마을들이 그림같이 아름답다. 특히 저녁 붉은 노을이 온 바다를 물들이는 광경은 사봉낙조(沙峰落照)라 하여 영주십경(瀛州十景)의 하나로 꼽힌다.

### (4) 산지천

산지천은 제주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전형적인 도시하천으로 예로부터 산저천(山低川)으로 불렸으며, 영주 10경 중의 하나인 산포조어(山浦釣漁)의 장소이기도 하다. 『탐라순력도』에는 건포배은(巾浦拜恩)이라 하여 선비들이 북쪽을 향해 배례를 하는 곳이기도 하였으며, 중국 피난선이 산지천에 정박하여 거주하면서 ‘파배기’ 등을 판매함으로써 중국음식이 널리 퍼지기도 하였다. 최근에 복원된 산지천의 하류 구간이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었으며, 제주도에 의해 탐라문화광장 사업이 본격 추진 중에 있다.

## V. 제주성 일대의 옛길 고증 및 현황

### 1. 고지도에 나타난 제주성의 옛길

조선시대에 제작된 제주고지도에는 대부분 읍치인 제주성이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지도를 통해 본 제주성은 지도의 축적 비례와 도판 상에 표현되는 건축물이 관아 및 관방시설에 한정되며, 이외에는 생략법이 주를 이루어 성내의 도로망이나 세부적인 옛길의 분포와 구조를 묘사한 것은 전무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민가와 민간조성물들은 생략되어 도판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나마 몇몇 지도에는 개략적인 가옥의 분포 정도만 보여줄 뿐 당시의 정황을 살필 수 있는 지식정보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그림 V-1 「제주목도성지도(濟州牧都城之圖)」]

그 중 성내의 관아건물과 민가의 분포와 도로구조를 가장 잘 나타낸 것으로 그나마 「제주목도성지도(濟州牧都城之圖)」를 꼽을 수 있다. 이 그림 지도는 제주 향교가 가락천(嘉樂川)의 동쪽에 있는 동성(東城) 안에 있는 향교로 보아 1724년부터 1754년 이전에 제작한 지도이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제삼(第三) 「제주(濟州)-향교(鄉校)」에 의하면, “제주목사 신유익(愼有益)은 화변(火變)으로 제주향교를 1724년에 동성(東城) 안으로 다시 옮겼다. 그러다가 제주목사 김몽규(金夢奎)가 1754년에 남문 밖 광양 땅으로 옮겨 세웠다.” 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주목도성지도(濟州牧都城之圖)」의 주기(註記)에 의하면, “제주읍성(州城)은 본래 옛 탐라국(耽羅國)에서 고을나(高乙那)·양을나(梁乙那)·부을나(夫乙那)가 나누어 살던 곳이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이형상 제주목사가 도(徒)를 도(都)로 정리한 것을 보아서 ‘도성(都城)’으로 해석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도성지도(都城之圖)’는 ‘도성(都城)의 지도(地圖)’라고 볼 수 있다.<sup>22)</sup>

도판에는 관덕정 동쪽 끝에서 객사(客舍)로 연결되는 도로 입구에는 홍살문(紅箭門)을 두어 위엄을 표시하고 있다. 또 객사의 정면에서 남문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어 중요한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은 골목처럼 보이는 남문한짓골이 대로로 묘사되어 있어서 왜 ‘한질’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도판상의 제주 읍성의 도로 체계는 조선시대 대부분의 읍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T’자형 주도로 체계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도상에서 목관아를 세부적으로 묘사하다보니 산지천과 동성부분은 비례가 무너져버렸다. 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옛길은 한짓골과 이앗골이 제대로 묘사되어 있으며, 반면 칠성골은 동성부가 왜곡되어 버리면서 축약되어 버렸다. 이는 동성의 향교를 묘사하면서 산지천 부근과 동성부가 왜곡되어 묘사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문-동목골-광제교-칠성골-관덕정 광장은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이나 도상으로는 산지천을 지나는 두 다리 중 어느 것이 광제교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22) 제주대학교 오상학 교수의 설명이다.

## 2. 제주성 일대의 옛길 현황

### 1) 제주성내 마을 이름과 옛길 이름<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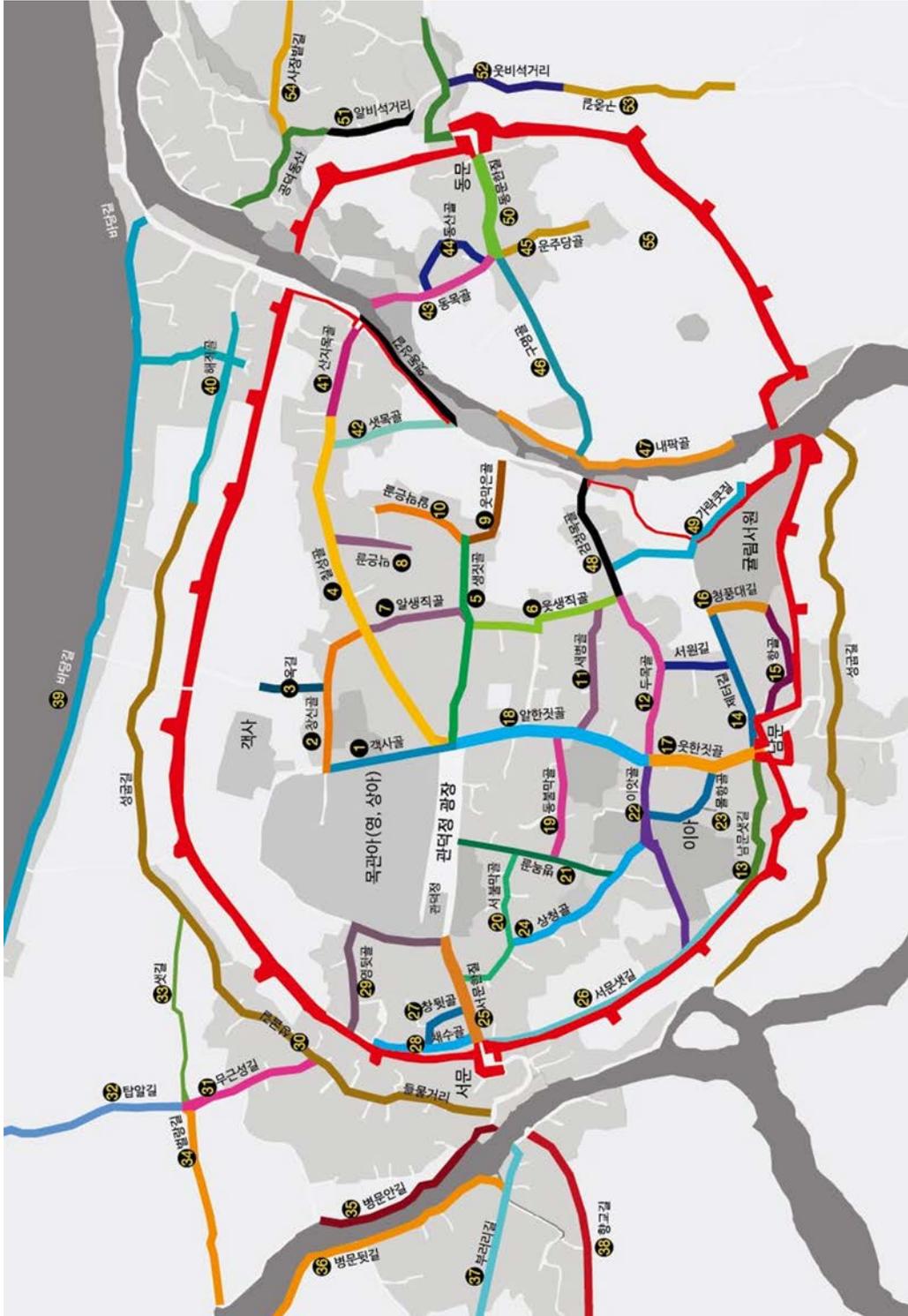
제주성과 그 주변의 옛길 이름과 마을 이름들은 길 이름만 있는 경우와 길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로 나뉜다. 옛길 이름이 남은 경우는 대부분 일직선상의 길 자체만을 지칭하지만, 마을 이름들은 길 이름과 동시에 혼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옛날의 마을은 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길과 마을 이름의 경우도 해지>해짓>해직 등으로 방언형의 변화가 일어나며, 길의 경우 ‘질’로, 동네를 뜻하는 골의 경우 ‘골’과 ‘굴’로 동시에 불렸다. 길 이름의 대부분은 한길>한질로 발음되듯 ‘질’로 끝나며, 마을 이름도 실제에 있어서는 영뒹골>영뒹굴처럼 ‘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시 원도심의 도로 변화로 인해 제주성 일대의 도로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현존하는 옛길의 크고 작은 혹은 넓고 좁은 골목길들이 많이 남아 있다. 제주성 주변의 마을 이름과 옛길 이름은 다음 <그림 V-2>와 같다.

특히 눈여겨 볼 사항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큰길과 작은 길이 연결되어 있는 체계와 각각의 길들에 붙여진 이름의 의미이다. 동문으로 가는 넓은 길목이라는 의미의 ‘동문한질’, 남문으로 가는 좁은 골목길이라서 ‘남문샛길’, 화재로 인한 불길을 막는다는 의미로서 동쪽의 불길을 막는 ‘동불막골’, 서쪽의 불길을 막는 ‘서불막골’ 등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넓고 좁은 옛길들은 상호 연결되는 유기적인 조직체이고, 한편으로는 장소적 특징과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제주시 원도심의 마을과 옛길 이름은 제주시·제주문화원(1996), 『濟州市 옛地名』, 사료집, 마을지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 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김익수 선생의 고증을 토대로 재정리하였다. 그런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제주북초등학교 부근에서 70여년 살았던 고희식(전 삼도2동 동장) 선생, 무근성에서 90여년 살고 계신 고두연(1922년생) 할머니 등 지역 어른들께 재확인을 걸쳐 정리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였지만,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는 몇몇의 옛길 이름은 그와 관련된 여러 설을 전부 소개하였다. 추후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자료와 증언을 확보하여 보완할 것을 과제로 남긴다.



자료: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3), 『濟州城-제주성총서 사진·지도』, p.231.

[그림 V-2] 제주성내 마을 이름과 옛길 이름

### (1) 객사골(객사골, 客舍洞)

지금의 제주북초등학교와 옛 전매청 자리에서 남쪽으로 관덕로에 직선으로 뻗어 있었고 북쪽에 제주목의 객사인 ‘영주관’이 있었다. 현재의 우체국과 칠성로 서쪽 출구가 만나는 지점에서 북초등학교의 객사터까지 골목길이 이어져 있었는데, 이 길의 동쪽 주변 마을이 객사골이다. 제주북초등학교에 있었던 영주관이라는 객사 때문에 생긴 마을 이름이다. 이원진의 『탐라지(耽羅誌)』에는 “영주관은 북성 안에 있다. 바로 객사 대청이다(瀛洲館 在北城內 卽客舍大廳)”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 (2) 창신골

칠성골에서 서쪽 객사골 동서로 이어지는 동네이고 중간에 북쪽으로 옥길과 연결된다. 관가에서 사용되는 가족제품과 가족신을 다루는 공방이 있는 동네이다. 1910년대에 들어서서 북초등학교 관사, 일본인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다. 김익수(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선생에 의하면, 이곳은 예전에 감옥이 있어서 주변에 민가가 없고 주로 천민집단인 가족신을 짓는 갓바치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라 해서 창신골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그러므로 이곳의 땅값이 싸고 산지향과 가깝다는 물류의 이점이 있어서 일본인들이 싼값에 땅을 구입하여 집단 거주지로 만들었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면서 동네이름을 창신동이라 한데서 비롯된 이름으로 ‘신설동’이나 ‘새동네’라고 읽히는 명칭이다. 현재 칠성로길에서 중앙로와 관덕로 7길이 이어지는 골목길이다.

### (3) 옥길

북성 안에 감옥이 있었다. 객사 남동쪽 부근으로 지금의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일대, 즉 탐사우나 쪽으로 가는 관덕로 9길에 해당한다. 이원진의 『탐라지(耽羅誌)』에 “옥(獄)은 9칸의 건물로 담장을 높이 두르고 문은 하나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이형상의 『남환박물관(南宦博物)』에는 “형옥, 21칸이다.”라고 되어 있어, 시대별로 옥의 규모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최수는 옥리를 두어 감시하였으며, 유배인 김윤식의 『속음청사(續陰晴史)』

에 보면 육중한 나무문에 쇠사슬에 통쇠를 채우고 주위에 가시를 쌓았다고 기록하였다.

#### (4) 칠성골

제주성내의 산지목골에서 서쪽 관덕정 광장까지의 길로 조선시대에 성내 도로 중 가장 중요한 도로 중의 하나이다. 건입포와 산지천 그리고 제주성 동문에서 이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칠성골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탐라국 시대부터 제주성내의 일도·이도·삼도동에 분거해 있던 칠성대(七星臺, 七星圖)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칠성대 7곳의 장소 중 3곳이 이 도로의 양쪽에 분거해 있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칠성골로 불렸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주성 안에 도로 쌓았던 옛터가 있다. 삼성(三姓)이 최초 이 땅에 나와 삼도를 나누어 차지하고, 북두성 모양으로 대를 쌓아 나누어 살았으므로 칠성도라 칭하였다(在州城內 石築有遺址 三姓初出 分店三徒 做北斗形 築臺分據之 因名七星圖).” 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는 칠성도(七星圖)에 대해 “제주읍내에는 석축 옛터가 7곳(칠성동 3, 향교동 1, 아전 앞 1, 향청 뒤 1, 두목동 1)이 있다. 고양부(高粱夫) 삼을나(三乙那)가 일도·이도·삼도를 나누어 차지하고 북두칠성 별자리 모양을 본 따 누대(樓臺)를 축조하여 살았던 까닭에 성내(城內)를 대촌(大村)이라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sup>24)</sup>

#### (5) 생깃골(생깃골, 생깃굴, 생직골)

‘생깃’은 ‘향교’의 방언형으로 향교가 있었던 마을을 뜻한다. 향교는 성내의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용담동에 자리 잡았는데, 조선 초기에 들어선 성내 최초의 향교는 현재의 오현로 옛 관음사 포교당 자리에 있었다. 일제 때 생긴 신작로인 원정통의 동문다리에서 알한깃골 입구까지의 길과 마을을 생깃골이라고 불렀다. 도로의 남쪽에는 꽤 넓은 면적의 향교전이라 불리던 큰 밭이 구한말까지 존재했다.

24) 제주문화원(2005), 『譯註 增補耽羅誌』, p.174.

**(6) 옷생짓골(옷생깃골, 옷생직골)**

일제강점기 최초 측량 당시 이도리 1349번지 전체가 향교터였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남북으로 난 길 주위를 ‘상교동(上校洞)’, 즉 향교 윗동네라는 뜻으로 옷생짓골이라 했다. 옷생직골은 원정통에서 남쪽으로 두목골에 이어지는 골목이다. 그 주변은 성안에서 세력이 있는 집안이나 유림 등 양반들이 사는 동네였다. 그곳에는 박종실과 김응빈 판관, 김근시 참사 등이 살아서 이 마을은 세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7) 알생짓골(알생깃골, 알생직골)**

알생짓골은 하교동(下校洞)으로 향교의 아랫동네를 이른다. 범골, 병골, 부엉골이라고도 하였다. 원정통에서 칠성골에 이어지는 북쪽 길을 알생짓골이라 했다. 현재 중앙사거리 우리은행에서 칠성로길 사이의 길을 말한다.

**(8) 막은골**

막은골은 풍수설에 의하여 지형이 사통오달이 아니어서 막혔다는 뜻으로 두동(杜洞)이라 한다. 즉 길이 한쪽으로는 트여 있지만 막다른 골목길로 끝난다는 의미에서 막은골이라 했고, 이 길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칠성로길 18(일도1동) 부근에 해당한다.

**(9) 옷막은골**

옷막은골은 지금의 제주삼성안과의원 주변 골목길에 해당한다. 원정통 길에서 활모양으로 굽어져 향교밭(이도1동 1349번지)에 이어지는 골목이다. 즉 이도 1동 1352번지 남쪽 골목 일대로 현재 제주은행 본점에 편입되었다.

**(10) 알막은골**

알막은골은 옷막은골 북쪽으로 난 아주반점 골목길인 관덕로 13길에 해당한다.

**(11) 세병골(새병골)**

세병골은 균기좌기청인 세병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로 이 주변 골

목길을 말한다. 이원진의 『탐라지(耽羅誌)』에는 “세병헌은 신과원 남쪽에 있는 군기좌기청이다(洗兵軒 在新果園南 卽軍器坐起廳也)” 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는 “신과원 남쪽에 있다. 곧 군기좌기청이다. 1717년(숙종 43) 목사 정석빈(鄭碩賓)이 창건하고, 1875년(고종 12) 목사 이희충(李熙忠)이 중수했다. 1909년(융희 3)에 제주경찰서 터에 편입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세병골은 웃생짓골에서 중앙성당에 이어지는 남문한질까지의 골목길인 지금의 중앙로 12길에 해당한다.

김익수(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선생에 의하면, 새병골은 병영으로 가는 새로 난 길이란 뜻이라고 한다.

### (12) 두목골(두뭇골)

두목(斗目), 즉 북두칠성의 눈에 해당되는 지점에 있는 마을로 성안에 분처해 있던 칠성대로 인한 명칭이다. 남문한질에서 검정목골로 이어지는 사이의 웃생짓골과 교차하는 골목길에 있던 마을이다. 지금의 중앙로에서 관덕로 8길로 이어지는 중앙로 14길에 해당한다.

『속음청사(續陰晴史)』 번역본에는 “두뭇골”이라는 항목을 달아서 “소만절(小滿節)날이다. 오늘은 일곱 번째 모임인데, 소운(篠雲 黃炳郁)이 두뭇골 [杜蕪洞] 규원(葵園 鄭丙朝)이 사는 집에서 모임을 열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 역주에서 김익수 선생은 두뭇골은 “농협제주중앙지점에서 동서로 남문로에 이르는 길가 동네” 라고 설명하고 있다.<sup>25)</sup>

### (13) 남문셋길

남문으로 가는 좁은 골목길이다. 현재 남문빌라와 접해 있는 남성로 23길에서 남성로 25길로 이어지는 골목길에 해당한다.

### (14) 제터길(재터길)

남문한질에서 굴림서원으로 가는 골목길이다. 현재 관덕로 8길에서 중앙로를 걸쳐 중앙로 15길로 이어지는 골목길에 해당한다. 예전에 이 길에 영

25) 金允植 著, 金益洙 譯(1996), 『續陰晴史』, 濟州文化院, p. 98.

혜사(永惠祠)와 향현사(鄉賢祠)라는 사당과 굴림서원(橘林書院)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한편 고희식(전 삼도2동 동장)에 의하면, 남문로터리 서쪽에 큰 나무가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제를 지내러 다니던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붙여진 길 이름으로도 추정된다. 또한 남문사거리 부근에 만들어진 이도 1동 옛길 표지판에는 ‘재터길’로 명칭을 붙여 “남문 안 성급길에서 굴림서원의 재사(齋舍)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 설이 있지만 현재까지 명칭의 연원은 자세히 알 수 없다.

### (15) 향골

남문한길에서 중앙로를 거쳐 오현단으로 들어오는 작은 골목길을 말한다. 오현단 서쪽의 작은 마을을 향골이라 했고, 이 골목길은 굴림서원 터로 통한다. 그 유래는 상고할 수 없다.

### (16) 청풍대길(광풍대길, 굴원길)

청풍대길(광풍대길)은 제터길 동쪽에서 향골 사이 굴림서원으로 가는 길을 말한다. 굴림서원, 즉 오현단 경내에는 ‘증주벽립’, ‘광풍대(光風臺)’라 새겨진 마애명이 있다. 이 마애명은 채동건 목사가 재임 시에 흥경섭이 굴림서원 서쪽 벼랑, 속칭 병풍바위에 새겨 놓은 글자이다.

광풍대의 ‘광풍’은 송나라 육현 중의 한 사람인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의 전(傳)에 나오는 ‘광풍제월(光風霽月)’에서 따온 것이다. 즉 비 개인 뒤의 풍월처럼 시원한 바람과 맑은 달이라는 의미로 인품이 고결하고 시원한 천성과 마음을 비유하고 있다. 제주 삼읍 제일의 대(臺)인 광풍대가 있는 곳은 원래 바람이 맑은 곳이라는 뜻의 ‘청풍대(淸風臺)’라 불리었는데, 굴림서원이 세워진 뒤 증주벽립이 각석되면서 광풍대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sup>26)</sup>

또 하나의 이름인 굴원길은 제터길 동쪽 끝에서 굴림서원의 사당(祠堂)으로 가는 길이라는 데서 붙여진 명칭이다.

26) 제주도·제주동양문화연구소(1999), 『濟州島 磨崖銘』, p.22.

### (17) 옷한짓골

한짓골은 한길>한질>한짓(한직) 등의 큰길의 방언형이다. 제주성 남문에서 칠성골 입구까지 이어진 길로 조선시대에는 성내에서 가장 폭이 넓은 큰길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 한짓골은 옷한질과 알한질로 나뉘는데, 옷한질은 남문에서 세병골 서쪽까지 이르는 길이다. 즉 제주중앙성당에서 남문사거리로 가는 길로 관덕로 8길에 해당한다.

### (18) 알한짓골

알한짓골은 지금의 관덕로 8길로 세병골 서쪽(즉 동불막골 동쪽 입구)에서 칠성로 입구까지 이어진 길이다. 옷한질과 구분하여 알한짓골로 불렀다.

### (19) 동불막골

민간의 화재가 관아로 번지는 불길을 막는다는 의미로 동쪽의 불길을 막는 길과 그 일대의 마을을 말한다. 지금의 제주중앙성당 북쪽 골목길인 중앙로 12길로 알한짓골에서 서쪽으로 병목골에 이르는 골목길에 해당한다.

### (20) 서불막골

화재로 인한 불길을 막는다는 의미로 서쪽의 불길을 막는 길을 말한다. 지금의 향청 동쪽 병목골에서 서문한질에 이어지는 골목길로 로베로호텔 뒤 골목길인 관덕로 4길에 해당한다.

### (21) 병목골

병목골은 구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삼도2동 주민센터 앞까지의 골목길로 이 길 동쪽 마을 말한다. 길 서쪽 마을은 상청골이다. 여기에서 병목은 절제사가 있는 병영과 이아가 있는 목관에 이어지는 길을 말한다.

### (22) 이앗골

남문한질에서 이아(貳衙)로 이어지는 마을길로 지금의 제주중앙성당에서 인천

문화당으로 이어지는 중앙로 14길에 해당한다. 이아는 구 제주대학교 병원 자리에 있었다. 이아는 목사의 집무처인 목관아를 상아(上衙)라 부른 것과 구분하여 붙인 명칭으로 관관의 집무처인 찰미헌(察眉軒)과 그 부속 건물들을 말한다.

이원진의 『탐라지(耽羅誌)』에 “이아는 남성 안에 있다(貳衙 在南城內).” 라고 했으며, “찰미헌은 이아의 동헌(察眉軒 卽貳衙東軒)” 이라 하여 이아를 찰미헌이라 하고 있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 “찰미헌은 제주읍 삼도리에 있다. 곧 관관의 동헌이다. 1810년(순조 10)에 관관 손응호(孫應虎) 중수하고, 1897년(광무 1)에 군수 김희주(金熙胄)가 중수했다. 지금의 도립병원 터<sup>27)</sup>이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다.<sup>28)</sup>

### (23) 몰항골

옛 제주대학교 병원 동쪽 좁은 골목길로 메가박스 제주점 앞에서 한짓골로 나가는 중앙로 14길에 해당한다. 이아에 자혜의원이 생기면서 몰항골 북쪽 입구는 의사들의 숙소가 해방 후까지 관사와 간호원 숙소로 있었고, 골목 안에는 병원 직원들이 집을 얻어 살았다.

### (24) 상청골

이앗골에서 서불막골로 이어지는 골목길로 이 길에 향청, 즉 향사당(鄉社堂)이 있어서 향사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과 마을길을 말한다. 상청은 향청의 방언형이다.

향사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6호 지정되어 있다. 지방의 자치기관인 향청이다. 그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좌수와 별감으로 천거 추대하고, 봄과 가을에 각 고을 사람들이 모여 향사음례(鄉射飲禮), 즉 주연과 활쏘기를 행하던 곳이다.

향사당은 처음에 가락천 서쪽에 있었으나 1691년(숙종 17) 김동(金凍) 관관이 찰미헌 서북쪽인 지금의 위치로 옮겨 짓고 향사당(鄉射堂)이라 하였다. 1797년(정조 21) 유사모(柳師模) 방어사가 건물 이름을 향사당(鄉社堂)

27) 옛 제주대학교 병원 자리이다.

28) 제주문화원(2005), 『譯註 增補耽羅誌』, p.246.

이라고 편액하였다.

이후 1909년 신성학원의 교지로 이용되다가 일제 때인 1916년 폐쇄된 후 일본인의 사찰로 사용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1981년에 동남향이던 방향을 동북향으로 자리를 바꾸어 새로 지은 것이다.

이원진의 『탐라지(耽羅誌)』에 “향사당은 가락천 서쪽에 있다. 좌수 1명, 별감 3명을 두었고, 봄·가을에 전 고을 사람들이 모여 향사례를 행하였다 (鄉射堂 在嘉樂泉西 座首一人 別監三人 春秋一鄉齊會 行鄉射禮).” 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원조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에는 “향사당은 찰미현 서북쪽에 있다. 숙종 17년 신미년(1691년) 김동(金凍) 판관이 현 위치로 옮겨 지은 것이다(鄉射堂 在察眉軒西北 肅宗辛未 判官金凍建 座首一人 別監三人).” 라고 기록되어 있다.

## (25) 서문한길

관덕정에서 서문으로 가는 큰 길을 말한다.

## (26) 서문셋길

남문셋길에서 성급 안을 따라 서문으로 좁은 길을 말한다.

## (27) 창뒤편

창뒤편은 사창(司倉) 뒤쪽에 있는 마을로 이 주변 골목길을 말한다. 현재 관덕로 9길에 해당한다. 사창은 진흥창과 함께 같은 경내에 있었는데, 관덕정 서쪽 옛 시청 청사 자리에 있었다.

## (28) 채수골(추수골)

서문한길에서 북으로 난 짧은 골목인데 창뒤편과 이어진다. 명칭의 유래는 두 가지가 전한다. 하나는 구한말까지 서문 밖에서 재배한 채소를 이 골목에서 행상들이 팔아서 생긴 이름으로 채수골은 숯과 땀감을 팔던 서문셋길과 이어져 하나의 상권을 이루었다. 오일장이 활성화되면서 시들해졌

다고 한다.<sup>29)</sup> 다른 하나는 주사(州司)가 있어 이 주사의 명칭이 방언형으로 변하면서 추수골, 채수골로 변했다는 것이다.

『탐라지(耽羅誌)』에 “주사는 서문 안에 있다. 땀감을 저장하며 호장이 이를 주관한다. 목감관이 있다(州司 在西門內 貯柴炬 戶長主之 有牧監官).”, “서문 안에 있다. 땀나무와 건조, 솥을 받아 관리하는 곳이다. 감독관인 좌수 1인, 담당 구실아치인 수·부호장 2인이 있다(在西門內 柴炬 草炭捧上之所 監官座首一人 色吏首副戶長二人).” 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 (29) 영뒷골(영두굴)

영뒷골은 영리청(營吏廳) 뒷길을 의미한다. 지금의 관덕정에서 북쪽으로 상아의 서쪽을 따라 가다가(관덕로 3길) 무진장모텔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무근성 7길의 좁은 셋길로 이 골목길과 주변 마을을 이른다. 영리청은 제주목관아 내의 홍화각(弘化閣) 터에 있었다. 다시 말해 홍화각은 안무사영(安撫使營) 또는 영리청이라고 했으며 군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었다. 홍화각이 영청이라 불리게 된 것은 제주목사가 전라도관찰사의 임무를 일부 넘겨받아 대정현감·정의현감을 지휘, 감독하여 제주도의 전권을 장악한 데서 유래한다. 또한 불에 타기 전의 관아 명칭은 만경루라 하였는데, 홍화각이라 명명한 것은 왕의 어진 덕화(德化)가 백성에게 두루 미치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당시 제주목사는 목민관이면서 동시에 전라도 관찰사의 군무를 위탁받은 수군, 병마의 군사령관의 역할(절제사, 후에 방어사로 바뀜)도 겸해 있었다. 이로 인해 목사의 집무처인 목관아는 판관의 집무처인 찰미헌을 이아라 부르는 것과 구분하여 상아로 불렸으며, 목사가 군사령관이라는 의미 또는 홍화각이라는 영청이 있어서 ‘영’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므로 영뒷골은 영청(營廳)의 뒷마을 또는 뒷길을 의미한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 홍화각은 제주읍 삼도리에 있다. 1435년(세종 17) 최해산(崔海山) 안무사(按撫使)가 창건한 뒤, 1648년(인조 26)에 김여수(金汝水) 제주목사가 중수하였다. 안무사와 절제사의 영청으로 사용되다가 1713년(숙종 39) 제주목사가 방어사를 겸하면서 별도로 정아(正衙)를 설

29) 김익수(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선생의 설명이다.

치함에 따라 홍화각은 영리청(營吏廳)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1772년(영조 48) 양세현(梁世絢) 제주목사가 중수하였고, 1829년(순조 29)에 이행교(李行敎) 제주목사가 개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30)</sup>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에 홍화각은 “연희각 남쪽에 있다. 세종 을묘년(17년, 1435)에 목사 최해산이 창건하였다. 예전에는 안무사가 정무를 보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영리청으로 사용하고 있다(在延曦閣 世宗乙卯 牧使崔海山創建 古安撫使政堂 今爲營吏廳)” 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홍화각은 일제 때 1940년에 헐렸다.

### (30) 성굽길

성터의 해자 자리가 남아 있는 부근의 마을을 ‘성굽’이라 한다. 남문의 성터굽이 남아 있는 골목길은 남성굽길, 북성의 성터굽이 남아 있는 골목길은 북성굽길이라 한다.

### (31) 무근성길

무근성은 제주성 밖의 서북방, 탑동과 병문천 하구 제주성 주변의 삼각주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탐라국 시대에 있었다는 옛 성터를 뜻한다. 무근성은 옛 성이 있었다는 곳에서 병문내 위로 난 한길과 ‘탑알’로 난 작은 길 사이를 말한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 “고주성(古州城)은 주성 서북쪽에 옛 성터[古城]의 유적이 있으니, 마을 이름은 묵은성[陳城]이라 부른다.”<sup>31)</sup>라고 하여 무근성을 진성동이라고도 하였다.

### (32) 탑알길

옛날 탑을 쌓았던 곳이라 해서 탑알이라 칭했으나 후에 한자 표기에 의해서 탑동(塔洞)이라 하였다. 무근성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는 인가는 없고 대부분 밭이었다고 한다. 탑을 쌓은 아래쪽 마을이라는 뜻에서 ‘탑알’, ‘탑바리’ 등으로도 불렸으며 탑알길은 이 마을길을 말한다. 지금의 북성로

30) 제주문화원(2005), 『譯註 增補耽羅誌』, p.196.

31) 제주문화원(2005), 『譯註 增補耽羅誌』, p.308.

에서 북쪽 오리엔탈호텔로 내려가는 무근성길에 해당한다.

### (33) 셋길

삼도2동 포제단 앞에 있는 가느다란 길을 말한다.

### (34) 별랑길

탐알 북쪽 바다에서 솟는 물을 ‘별엉’이라 하는데 썰물 때만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길는다. 수량이 풍부하여 유창산업이 탐알에 있을 때는 공업용으로 사용했다. 이 물이 있는 곳의 포구가 ‘별랑포’로 버렁이각, 버렁개, 별랑개라고도 하였다. 고려 때 수심이 좋아 군항으로 사용했으나 하구에 먹돌이 쌓여 후대에는 들물 때만 선박이 출입하였다. 별랑포는 병문천의 말류에 있던 포구로 이 일대의 길을 별랑길이라 한다.

『탐라지(耽羅誌)』에 “별랑포는 본주 서쪽 1리경에 있다(伐浪浦 在州西一里).” 라고 했으며,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에 “병문천(屏門川)은 제주 서성 밖에 있다. 말류는 별랑포(伐浪浦)가 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 (35) 병문안길

병문천은 한라산 북쪽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오라동을 거치고 삼도1동 서쪽을 휘어 돌아 북쪽 바닷가로 흘러가는 내를 이른다. 병문천 안쪽, 즉 동안의 갯길을 병문안길이라 한다. 병문천은 현재 복개되어 탐동로라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 (36) 병문뒷길

병문천 바깥쪽, 즉 하천 서안의 갯길을 병문뒷길이라 한다.

### (37) 부러리길(부러릿길)

‘부러리’는 부월리(浮月里)라고도 하는데, 지형이 달과 비슷하다는 데서 ‘부러리’라 하였다고 한다. 부러리는 용담 1동 경로당 뒷동네로 용담동에서 제일 먼저 생긴 마을이다. 부러리길은 향교길 위쪽으로 난 구한질(옛날의

큰길)이다. 부러리길은 원래 신작로라 했고, 이 길이 대정고을 가는 ‘웃한  
질’로 이어져 있었다. 서쪽으로는 한내를 건너 ‘정드르’로 가는 길이다. 부  
러리길은 지금의 태광식당 옆으로 난 골목길로 지금의 비룡길에 해당한다.

### (38) 향교길

서문사거리를 지나 서문시장 입구 한길 건너편 북쪽으로 난 골목길에 안  
에 있었던 ‘비룡못’에서 서쪽으로 목사가 향교에 참배하러 갔던 길을 말한다.  
제주향교가 최종적으로 자리한 다음에 붙여진 명칭이다.

### (39) 바당길(바당길)

탐동 바다 길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탐동로로 부르는 도로의 뒷길이다.  
탐동매립 이전까지는 이 길이 바다에 종사하는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하  
러 다니던 길이다. 탐동에서 산지천까지 먹돌로 깔린 길이었다.

### (40) 해짓골(해짓골, 해짓굴, 해직골)

북성의 산지천에서 동서로 뻗다가 북쪽 ‘바당길’에 연결된 동네로 후에 해  
지동(海池洞)으로 표기되었다. 해짓골은 칠성로 북쪽에 있는 성 밖의 마을로  
일제강점기 때 낸 북신작로 북측의 작은 골목과 그 주변 마을을 말한다.

### (41) 산지목골

칠성골 동쪽 광제교 부근의 마을이다. 동문으로 나가는 동목골에 이어서  
는 골목으로 산지천 입구라 해서 산지목골이라 했다. 산지목골 입구인 광  
제교 입구에는 중인문이 세워져 있었다.

### (42) 셋목골(셋물골)

동문 하천을 정비하기 전에는 냇물이 마을 사이로 흐른다고 해서 셋목골  
(셋물골)이라 불렀다. 한자 표기로는 간수동(間水洞)이라 하며, 일도 1동의  
중심 마을이었다. 대동호텔이 있는 골목길로 SC제일은행에서 북쪽 일도 1  
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나가는 관덕로 15길에 해당한다.

**(43) 동목골**

산지목골 입구의 증인문에서 동문으로 가다가 동문한길과 이어지는 골목을 말한다. 즉 동문한길의 목에 해당하는 골목 동네를 동목골이라 한다. 지금의 동문로에서 칠성로 3길로 이어지는 산지로에 해당한다.

**(44) 동산골**

동문로타리에서 동문으로 가는 길에 높은 동산이 있는 곳으로 동목골에서 활처럼 굽은 길을 말한다. 지금의 만덕로 6길에 있는 하이드파크텔에서 산지로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과 서울종묘사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에 해당한다.

**(45) 운주당골**

운주당골은 제주읍성 위쪽에 있는 운주당 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운주당(運籌堂)은 원래 주(州)의 장대(將臺)로 관아의 건물이었으나 후에는 일도동의 마을 수호신을 모신 일도동 본향당으로 널리 알려졌다. 옛 동양극장 건물이 있는 동문로에서 운주당으로 올라오는 좁은 골목길을 말한다. 지금의 동문로 6길에서 신산로 2길로 이어지는 골목에 해당한다.

『탐라지(耽羅誌)』에 “운주당은 동성 위에 있다. 목사 곽흠이 짓고 이산해가 제액하였다(運籌堂 在東城上 牧使郭屹建 李山海題額).” 라고 기록되어 있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는 “제주읍 일도리 동성 안에 있다. 주(州)의 장대(將臺)이다. 1566년(명종 21)에 목사 곽흠(郭屹)이 동성을 뒤로 물러 지어 높은 언덕에 운주당을 창건했다. 이산해(李山海)가 편액을 지었다. 1682년(숙종 8)에 목사 신경윤(愼景尹)이 중창하고, 1783년(영조 19) 목사 안경운(安慶運)이 중수하였다. 1892년(고종 29)에 화재로 소실됨으로 찰리사 이규원(李奎遠)이 개건하였다. 지금은 없어졌다.”<sup>32)</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46) 구명골**

동문시장 안 옛 동부교회 남쪽에 ‘구명못’이 있었는데 거기서 유래된 이름이다. 동문시장 안 내파굴로부터 운주당 골목 경계선까지의 좁은 길을

32) 제주문화원(2005), 『譯註 增補耽羅誌』, p.253.

말한다. 조선조에는 제주목에서 정의로 가는 대로였다. 추사 김정희, 정헌 조정철 등이 유배길에 들어오고 나가던 길이다.

#### (47) 내팍골(내팍굴, 내팍굴)

내팍골은 ‘내(川)의 밖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남문 안 남쪽 가락곶 내 밖에 있는 마을로 가는 길을 말한다.

#### (48) 검정목골

검정(檢井)은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마치 호미 모양을 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검정목골은 검정 입구에 이루어진 마을로 이 일대의 골목길을 말한다. 지금의 중앙로에서 NH농협 제주중앙지점 북쪽 골목길을 지나 동문시장 안 내팍골까지의 길목으로 오현길 75에서 오현길 78로 이어지는 동문시장 길이다.

김익수 선생은 외부에 수집되는 넓적한 돌을 뜨겁게 하여 가족의 기름을 제거했는데, 피혁 가공을 하는 공원들이 많이 거주하여 이곳의 명칭이 검정목으로 불린데서 유래한다고 한다.

일제 지적도의 지면을 보면, 이곳이 ‘雜(屠)’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 또한 일제가 작성한 1932년 <제주성내 음료수등가지역도>에서 이곳에 용출하는 샘물이 있는 것으로(이 샘이 ‘검정’이었던 것 같다.) 보아 산지천 중류 동안인 이곳에서 성안의 마소를 잡는 도살장이 있었고, 이곳에서 나오는 우마피의 가공을 위해 하천 바닥의 넓은 바닥돌을 이용하면서 이곳의 바위들이 검정색을 띠게 되어 이곳의 명칭이 검정목으로 불린 데서 유래한 듯하다.

#### (49) 가락곶질(가락곶길)

오현단 동쪽에 한라산에서 발원한 산지천 상류의 가락곶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가락곶물로 가는 길을 말한다. 지금의 오현단에서 북쪽으로 내려오는 오현길에 해당한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 “가락천(嘉樂泉)은 제주읍 일도리에 있다. 커다란 바위 아래 구멍이 있는데 한줄기 샘에서 물이 솟어나니 깊이가 한 길[一丈] 남짓이다. 겨울에는 수량이 적음이 보통이나 여름철과 장마 때는

넘쳐흐른다.”<sup>33)</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 (50) 동문한길

동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한다. 동목길, 운주당길, 구명길이 이 동문한길에 마주친다.

### (51) 알비석거리

비석거리는 선정비 등 옛 비석들을 모아 세워 놓은 곳을 말한다. 비석거리의 아랫길로 지금의 공덕길 12 흥진빌라에서 만덕로 6길로 이어지는 골목길에 해당한다.

### (52) 옷비석거리

옛 비석들을 모아 세워 놓은 곳인 비석거리의 윗길로 지금의 만덕로 6길에서 신산로 2길로 이어지는 동문로에 해당한다.

### (53) 구중길

구중길은 제주동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마을길이다. ‘구중’의 중은 무거운 중(重)자를 쓰는데, 그곳에 옛날 높은 사람이 다니던 길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마을을 ‘구중동네’라 했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 구중의 유래는 상고할 수 없다. 지금의 신산로 2길에서 성지로로 이어지는 골목길이다.

### (54) 사장밭길

사라봉 기슭, 건입동 노인당이 있는 터에 활을 쏘는 사장(射場)이 있어 무예를 연마했던 곳이 있었는데, 이곳으로 오가는 길을 말한다. 지금의 만덕로에서 연무정동길로 이어지는 만덕로 1길에 해당한다.

33) 제주문화원(2005), 『譯註 增補耽羅誌』, p.104.

## 2) 사진으로 본 옛길 현황



북초등학교에서 칠성로 입구  
방향으로 본 객사골



칠성로 입구에서 북초등학교  
방향으로 본 객사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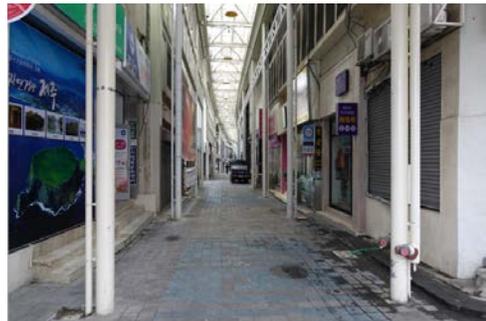
창신골 동쪽에서 서쪽 객사골  
방향으로 본 창신골



칠성골에서 객사골 방향으로 본  
창신골



북쪽에서 남쪽 창신골 방향으로  
본 옥길



관덕정 광장 입구에서 동쪽  
방향으로 본 칠성골

[그림 V-3]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1

V. 제주성 일대의 옛길 고증 및 현황



동문로터리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본 생짓골



중앙사거리에서 남쪽 방향으로 본 옷생짓골



중앙사거리에서 칠성골 방향으로 본 알생짓골



칠성통에서 남쪽 방향으로 본 막은골



옷막은골 1  
(동문로 올리비아하트 건물 옆 옷막은골인데 현재 멸실됨)



옷막은골 2  
(옷막은골이 제주은행 본점에 편입되어 멸실됨)

[그림 V-4]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2



칠성로에서 남쪽 아주반점  
방향으로 본 알막은골



중양로에서 서쪽 방향으로 본  
세병골



중양로에서 서쪽 방향으로 본  
두목골



남초등학교에서 동쪽 방향으로  
본 남문샛길



오현단 아래 골목 동쪽에서  
중양로 방향으로 본 제터길



한짓골에서 중양로 방향으로 본  
제터길

[그림 V-5]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3



남문사거리에서 서쪽 방향으로  
본 향골



굴림서원으로 가는 길목의 향골



제터길 동쪽 입구에서 굴림서원  
방향으로 본 청풍대길



굴림서원 방향에서 제터길 동쪽  
입구 방향으로 본 청풍대길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본  
웃한짓골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본  
알한짓골

[그림 V-6]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4



서쪽 병목골에서 동쪽으로 본  
동불막골



로베로 호텔 뒷길인 서불막골



로베로 호텔 뒷길 동쪽에서 서쪽  
서문한길 방향으로 본 서불막골



옛 제주대학교 병원 쪽에서  
관덕로 방향으로 본 병목골



한짓골에서 서쪽 방향으로 본  
이앗골



한짓골에서 옛 제주대학 병원  
방향으로 본 몰항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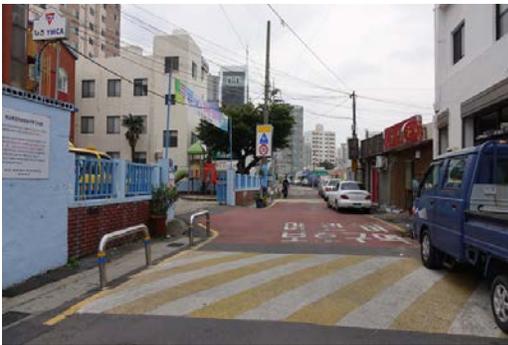
[그림 V-7]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5



병목골 입구에서 서쪽 방향으로  
본 상청골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본  
상청골



제주성내교회 앞 골목길인  
서문샛길



서문한질(가로 대로)과  
서문샛길(삼화종합철물 옆 골목길)



서쪽에서 관덕정 방향으로 본  
창뒤틀골



관덕로 9-3번지 골목길인 창뒤틀골

[그림 V-8]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6



창뫼골 서쪽 입구에서 서문로  
방향으로 본 채수골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본  
영뫼골



무근성 일대의 북성굽길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본  
북성굽길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본  
무근성길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본  
탑알길

[그림 V-9]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7



셋길



별랑길



서문사거리에서 탑동 방향으로 본 병문안길과 뒷길이나 복개되어 확장되어 있음.



부러리길 시작점인 태광식당 옆 골목길



부러리길



서문사거리에서 본 향교길

[그림 V-10]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8



서문로 63-2번지 골목길인 향교길



팔레스 호텔 뒷길인 바당길



중앙로에서 동쪽 산지천 방향으로 본 해짓골



동쪽에서 서쪽 중앙로 방향으로 본 해짓골



칠성골에서 동쪽 산지천 방향으로 본 산지목골



칠성골에서 남쪽 동문로 방향으로 본 셋목골

[그림 V-11]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9



동문로 황제주단 옆 골목길인  
동목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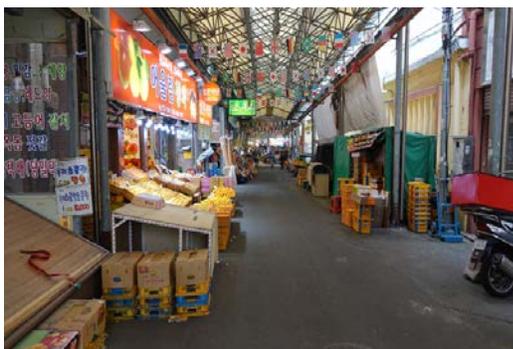
동목골 입구에서 제주기상청  
방향으로 본 동산골



운주당에서 북쪽 동문로  
방향으로 본 운주당골



구명골 동쪽 입구에서 남쪽  
방향으로 본 운주당골



동쪽 구명골 입구에서 동문시장  
서쪽 방향으로 본 구명골



동문시장 안 내곽골 입구에서  
동쪽 방향으로 본 구명골

[그림 V-12]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10



동문시장 안 주차장에서 본  
내팍골



동문시장 안 주차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본 내팍골



중안로 입구에서 본 검정목골



동문시장 안 검정목골



오현단 앞 도로인 가락곶길



동문한질

[그림 V-13]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11



공덕길 흥진빌라에서 본  
알비석거리



동문로 제주축협 옆 골목길인  
웃비석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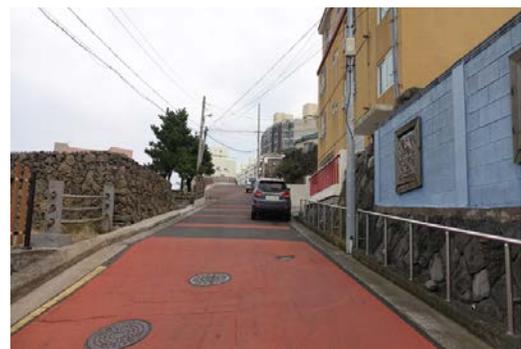
동문로에서 본 웃비석거리



웃비석거리는 동문로로 단절되어  
남북 방향으로 골목길이 남아 있음



신산로 2길인 구중길



공덕동산에서 본 사장밭길

[그림 V-14] 사진으로 본 옛길 모습 12

### 3) 옛길의 실태조사 결과

제주성 일대 옛길 잔존여부 및 원상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54개의 옛길이 파악됐다. 옛길의 잔존 유무와 이용 상황 등 현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 노선 잔존 유무 ▶ 옛길 유지 실태로 구분해서 개략적으로 분석하면 다음 <표 V-1>과 같다.

먼저 노선 잔존 유무를 살펴보면 총 54곳 가운데 전체 유지가 50곳으로 나타났으며, 노선 일부 잔존은 3곳, 멸실 1곳으로 조사됐다. 제주성 일대 옛길 54곳 가운데 92.5%에 이르는 50곳이 오늘날까지 거의 온전하게 노선 전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잔존하고 있는 제주성 일대 옛길이 오늘날 어떻게 유지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옛길 유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멸실 1곳을 제외한 총 53곳 가운데 원상 보존이 27곳(50.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선을 전체적으로 확장한 경우가 15곳(28.3%), 노선 일부 확장(일부 구간은 원상 유지하고 있음)은 9곳(17%), 일부 구간 단절은 2곳(3.7%)으로 조사됐다. 즉 제주성 일대 옛길 가운데 절반은 원상을 보존하는 형태로 유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3곳 가운데 나머지 26곳(49.05%)은 도심 확장과 도시화 진전으로 인해 도로로 확대 편입되거나 구간이 단절된 양상을 보여준다.

원상을 보존하고 있는 27곳을 분석한 결과 골목길로 이용되는 경우가 20곳(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이면도로 5곳(18.5%), 시장길 2곳(7.4%) 순이었다. 원상을 보존하고 있는 옛길 가운데 74%는 오늘날도 대부분 도심의 골목길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면도로와 시장길로도 활용되면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노선 전체 확장 15곳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왕복 4차선 도로로 편입 확대된 경우가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왕복 2차선 도로로 확대된 경우가 5곳, 이면도로 3, 시장길 1곳 등으로 조사됐다. 도시화 등으로 옛길 노선을 확대한 경우 대부분 왕복 4차선 도로나 2차선 도로로 편입 확대돼 주요 도로나 간선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선 일부 확장 9곳의 실태를 보면 이면도로 6곳, 골목길 2곳, 4차선도로 확대 편입(일부 구간 잔존)이 1곳이었다. 옛길 노선을 일부 확장한 경우에

도 대부분 이면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옛길 노선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옛길 유지상태가 원상보존하고 있는 경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옛길 노선을 전체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 5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곳(54%)이 옛길을 거의 그대로 원상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근성 일대의 창뒹골, 채수골 등은 골목길 형태가 온전히 보존되고 있으며, 창신골, 몰항골, 서불막골, 남문새길, 운주당골 등 나머지 대부분도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성급길 같은 경우에도 일부 단절된 구간이 나타나지만 잔존구간은 골목길 형태로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옛길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심도 있는 조사연구와 함께 보존 활용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V-1> 제주성 일대 옛길 잔존여부 및 원상유지 실태

연번	옛길 이름	노선 잔존유무			옛길 유지 실태				비고
		전체 유지	일부 잔존	멸실	원상 보존	노선 전체 확장	노선 일부 확장	일부 구간 단절	
1	객사골	○			○				이면도로
2	창신골	○			○				골목길
3	옥길	○			○				골목길
4	칠성골	○			○				골목길
5	생짓골	○				○			왕복4차선 도로 (편입 확대)
6	웃생짓골	○					○		골목길(일부 왕복4차선 도로 편입 확대)
7	알생짓골	○				○			왕복4차선 도로 (편입 확대)
8	막은골	○			○				골목길
9	웃막은골			○					건축물로 사라짐
10	알막은골	○				○			이면도로
11	세병골	○					○		이면도로

연 번	옛길 이름	노선 잔존유무			옛길 유지 실태				비 고
		전체 유지	일부 잔존	멸 실	원상 보존	노선 전체 확장	노선 일부 확장	일부 구간 단절	
12	두목골	○					○		이면도로
13	남문샛길	○			○				골목길
14	제터길	○					○		이면도로
15	항골	○			○				골목길
16	청풍대길		○		○				골목길
17	웃한짓골	○			○				이면도로
18	알한짓골	○			○				이면도로
19	동불막골	○			○				골목길
20	서불막골	○			○				골목길
21	병목골	○					○		이면도로
22	이앗골	○					○		이면도로
23	몰항골	○			○				골목길
24	상칭골	○			○				골목길
25	서문한길	○				○			왕복4차선 도로 (편입 확대)
26	서문샛길	○				○			이면도로 (성담 허물며 도로편입)
27	창뒷골	○			○				골목길
28	채수골	○			○				골목길
29	영뒷골	○					○		골목길
30	성급길	○						○	골목길
31	무근성길	○				○			왕복2차선 도로
32	탑알길	○				○			왕복2차선 도로
33	샛길	○				○			왕복2차선 도로
34	벌랑길	○				○			왕복2차선 도로
35	병문안길	○				○			왕복4차선 도로 (편입 확대)
36	병문뒷길	○				○			왕복4차선 도로 (편입 확대)
37	부러리길	○					○		이면도로

연번	옛길 이름	노선 잔존유무			옛길 유지 실태				비고
		전체 유지	일부 잔존	멸실	원상 보존	노선 전체 확장	노선 일부 확장	일부 구간 단절	
38	향교길		○				○		왕복4차선 도로(일부 구간 잔존)
39	바당길	○			○				이면도로
40	해짓골	○			○				골목길
41	산지목골	○			○				골목길
42	샛목골	○				○			이면도로
43	동목골	○			○				이면도로
44	동산골	○			○				골목길
45	운주당골	○			○				골목길
46	구명골	○			○				시장길
47	내팍골	○				○			시장길
48	검정목골	○			○				시장길
49	가락곶길	○				○			왕복2차선 도로
50	동문한길	○				○			왕복4차선 도로 (편입 확대)
51	알비석거리	○			○				골목길
52	웃비석거리	○			○				골목길
53	구중길	○			○				골목길
54	사장밭길		○					○	이면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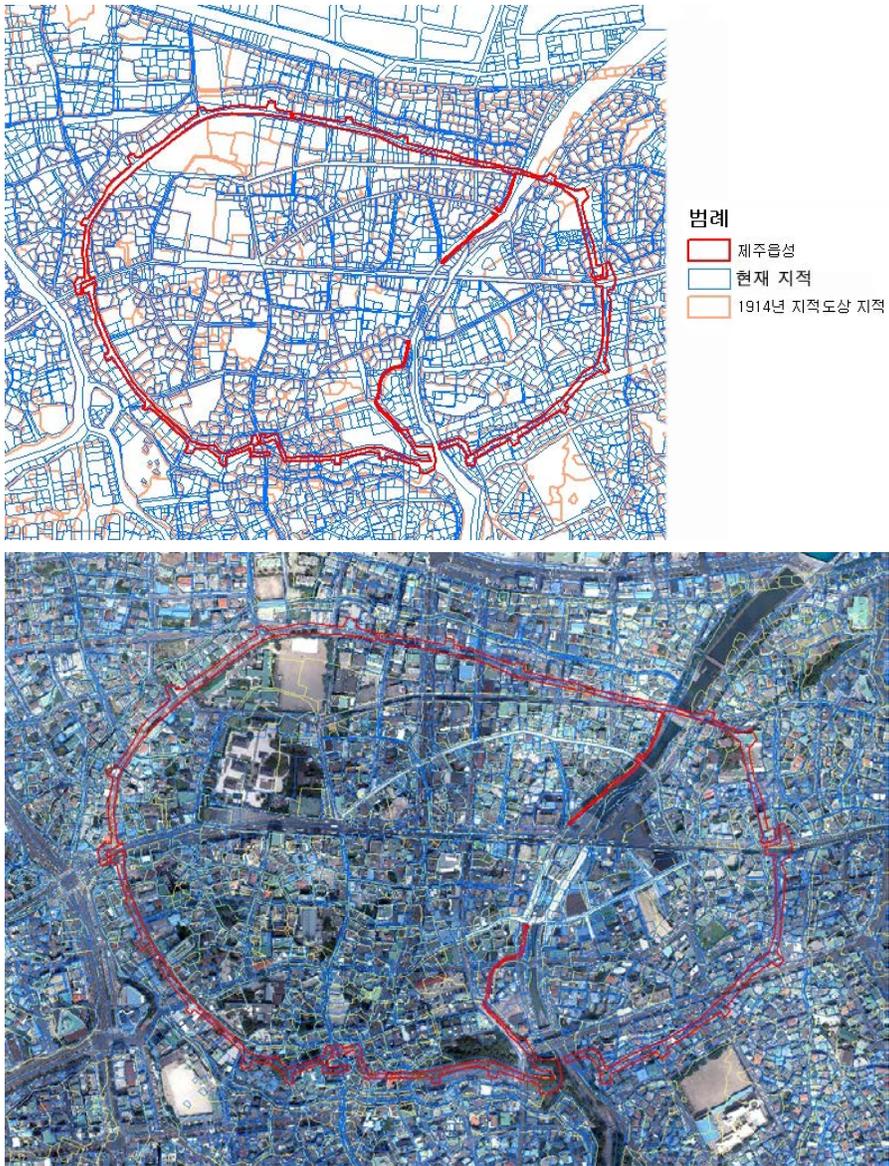
### 3. 제주성 일대의 옛길 및 도로체계 비교

#### 1) 제주성 일대 옛길 형태 및 현 도로와의 관계

##### (1) 훼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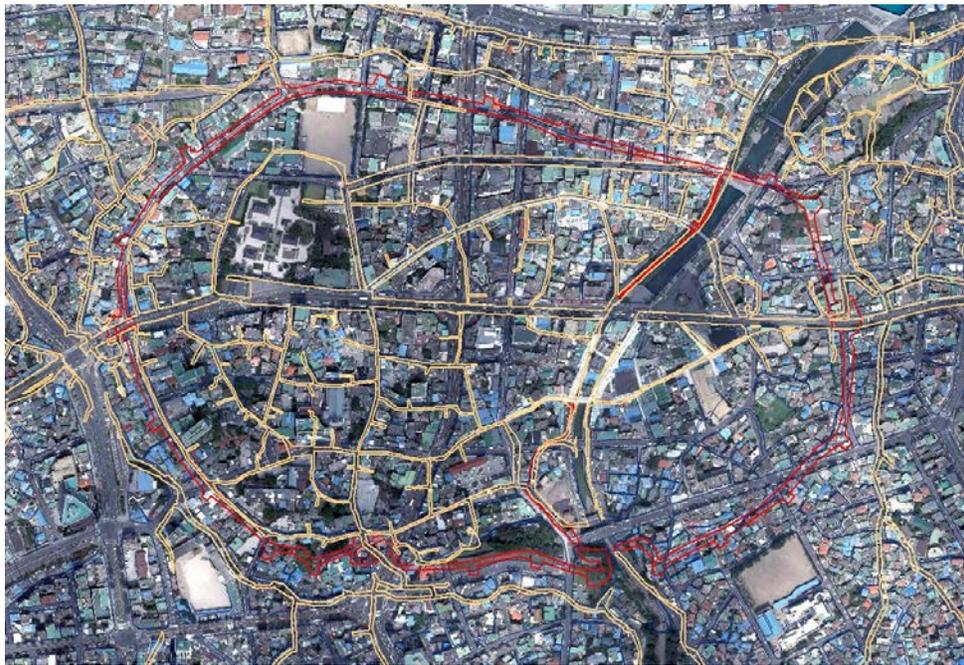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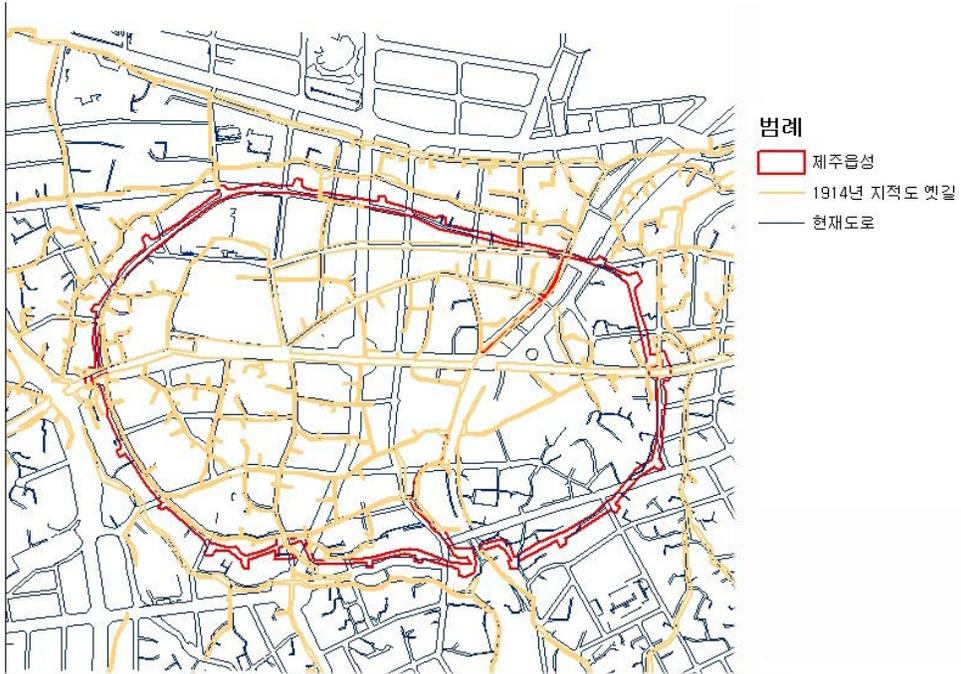
제주성 일대의 지적과 옛길의 훼손 정도를 파악한 결과 일부 도로개설 및 복개 등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지적이 변화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옛길의 경우도 상당 부분 길이 확장되고 지적상의 변경으로 인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제주성지 내의 옛길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료: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3), 『濟州城 제주성총서 사진·지도』, p.161.

[그림 V-15] 1914년 지적과 현재 지적 변화(위)와  
항공사진상의 비교(아래)



자료: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3), 『濟州城-제주성총서 사진·지도』, p.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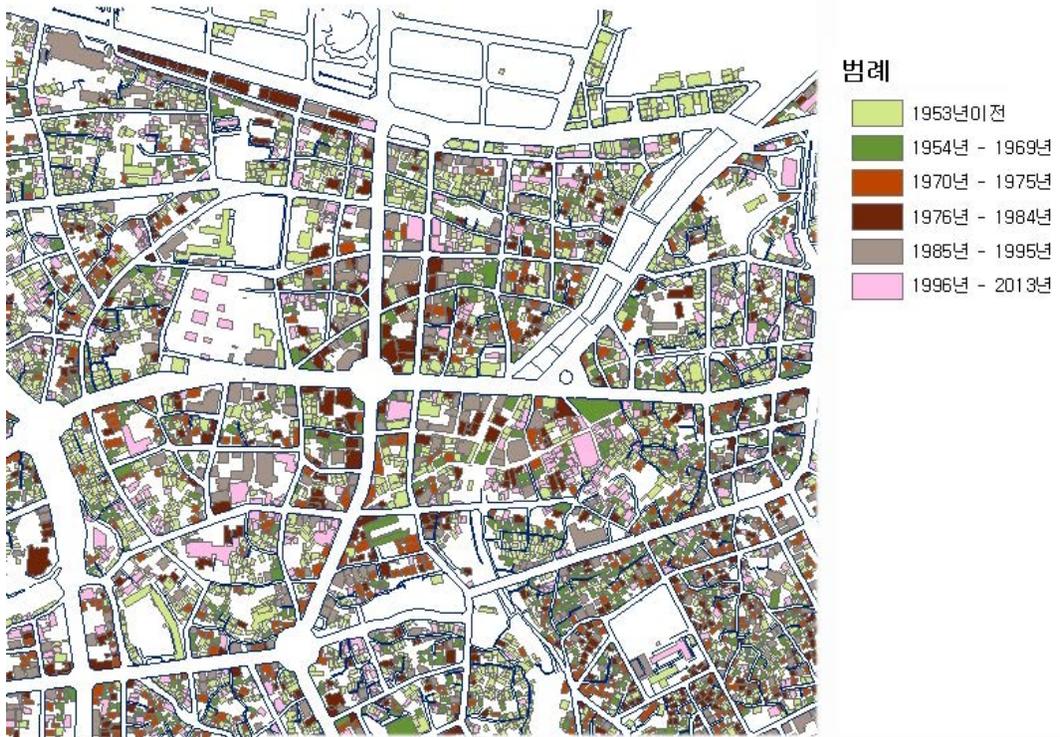
[그림 V-16] 1914년 지적도상의 옛길과 현재 도로 비교(위).

항공사진상의 옛길 보존현황(아래)

## (2) 건축 현황

제주시가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여 GIS데이터화하여 제주 성지 및 주변지역 건축물의 건축연도, 주용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전반적으로 도로주변의 건축물은 1976년~1984년에 건축된 건축물이 집중되어 있고, 블록 안쪽 지역에는 1953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용도의 경우, 산지천 주변의 안쪽 지역에 단독주택의 비율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제주성지 내의 경우 중앙로타리를 기준으로 북동지역은 근생+주택, 단독주택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밀집된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반면 남서지역의 경우는 블록에 따라 단독주택이 비교적 여유 있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료: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3), 『濟州城-제주성총서 사진·지도』, p.54.

[그림 V-17] 제주성지 및 주변지역의 건축물 건축연도 현황



자료: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3), 『濟州城-제주성총서 사진·지도』, p.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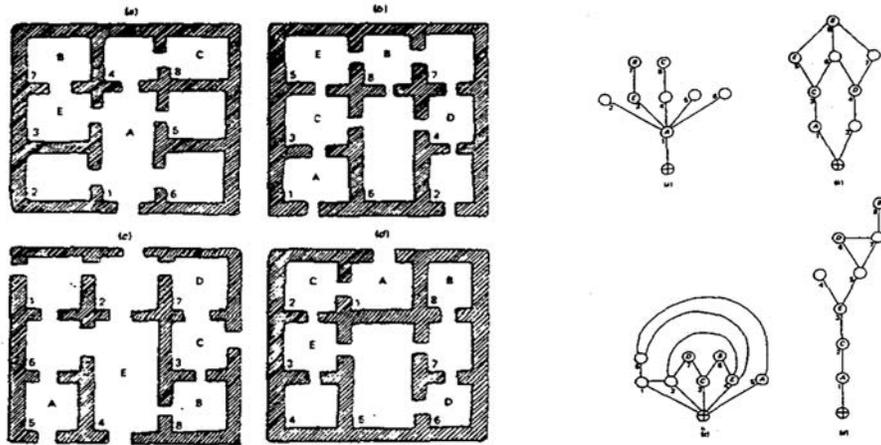
[그림 V-18] 제주성지 및 주변지역의 건축물 주용도 현황

## 2) 공간구문론으로 본 옛길과 현 도로의 기능적 변화 분석

### (1) 공간구문론의 개념<sup>34)</sup>

공간구문론(Space Syntax Theory)은 런던대학 Bartlett 건축대학의 Bill Hillier와 Julienne Hanson 등에 의해 연구된 공간구조에 대한 이론이다. 공간구문론은 공간구조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공간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면 규모와 위치가 동일한 부지 내 설계된 주택이지만 내부평면이 달라짐에 따라 공간의 기능과 구조가 달라짐으로써 공간구조의 차이를 명료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공간구문론이다.

34) 이규인(1995), 「空間構文모델에 의한 團地計劃代案評價方法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6호, 통권 80호, pp.92-93.



[그림 V-19] 규모와 위치가 동일한 주택(왼쪽)과 각각 상이한 공간구조(오른쪽)

기본적으로 공간구조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 즉 불록공간도(convex map)와 공간축도(axial map) 등이 있다. 불록공간도는 형태에 초점을 둔 것으로 모든 형태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구성되며 공간의 경계를 횡단하지 않는 선에 의해 이루어진다. 불록공간에서는 어느 곳으로도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 불록공간도는 부분 공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국부적 차원의 분석에 주로 쓰인다.

공간축도는 공간의 물리적 구조를 직선축으로 표현하여 그 연결의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인간의 시각적 최대점을 연결한 축이다. 공간축도는 공간전체의 시스템을 표현하기 때문에 공간의 통합성 및 국부공간과 전체공간과의 관계분석에 이용된다.

공간의 해석에 사용되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입력이 완료된 공간도는 분석 명령을 통해 분석된 후 데이터, 그림, 통계뷰에서 원하는 형태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이론을 이용하여 ArchiSpacer에서 구현된 분석지표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공간연결도

공간도에서 특정 공간과 연결된 공간의 개수를 말한다. 즉, 선 공간도에서는 한 선에 교차된 다른 선들의 개수를, 면 공간도에서는 한 선이 가지고 있는 연결 공간의 개수를 의미한다.

## ○ 지점 공간깊이

공간깊이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에 도달하기 위해 통과하기 위한 최소 공간의 개수를 의미한다. 한 지점과 지점 사이의 공간깊이는 그래프 이론의 최단거리 경로 탐색(Shortest path)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한 지점에서 다른 모든 지점에 이르는 각각의 공간깊이이다.

## ○ 전체 공간깊이

한 지점에서 시작하여 모든 지점에 이르는 각각의 공간 깊이의 총합이 전체 공간깊이이다.

## ○ 평균 공간깊이

전체 공간 내에서 특정 공간이 갖는 평균 깊이이다. 특정 공간에서 시스템의 모든 공간에 이르는 각 공간깊이의 평균치로,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특정 지점에서 모든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연결선의 개수를 말한다. 이는 시스템 내의 특정 공간이 시스템 내의 다른 모든 공간들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공간의 평균 공간깊이가 작을수록 다른 공간에 직접 연결된(인접한) 공간이 많다. 공간도에서 평균 공간깊이가 가장 작은 공간일수록 다른 공간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반면 평균 공간깊이가 높을수록 다른 공간으로의 접근(이동)이 어렵다. 더 많은 공간을 거쳐야만 다른 공간까지 도달할 수 있다.

## ○ 전체 공간위상도

전체 공간위상도는 평균 공간깊이를 이용하여 공간의 크기와 형태 등에 관계없이 비교 가능하도록 일반화한 수치이다. 전체 공간위상도를 구하기 위해 우선 상대적 비대칭도를 구한다.

상대적 비대칭도는 전체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이론적인 평균 공간깊이 최대 최소값을 1과 0으로 만들고, 실제 평균 공간깊이를 상대적인 값으로 변환한 것이다. 이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전체 공간위상도는 커진다. 한편 크기가 크게 다른 시스템 사이의 공간위상도를 비교하려면 크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상대 비대칭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의 크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상대적 비대칭도 값을 한 단계 더 변형, 크기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 상수 값으로 나눈 수치이다. 그런데 실제 상대 비대칭도의 값이 작을수록 접근성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전체 공간위상도는 실제 상대 비대칭도의 값을 역수로 취한다.

#### ○ 부분 공간위상도

전체 공간위상도와는 달리 3단계 떨어진 공간만을 대상으로 평균값이를 구하여 최종적인 공간위상도를 구한 값이 부분 공간위상도이다. 공간 내의 지역 공간의 접근성을 나타낸다.

#### ○ 공간통제도

특정 공간과 인접한 모든 인접 공간의 공간연결도에 역수의 총합으로, 도시 시스템의 부분적인 동적측정치이다. 한 공간과 인접하는 공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값이 1보다 작으면 인접하는 공간보다 약한 공간통제도를, 1보다 크면 인접공간보다 강한 공간통제도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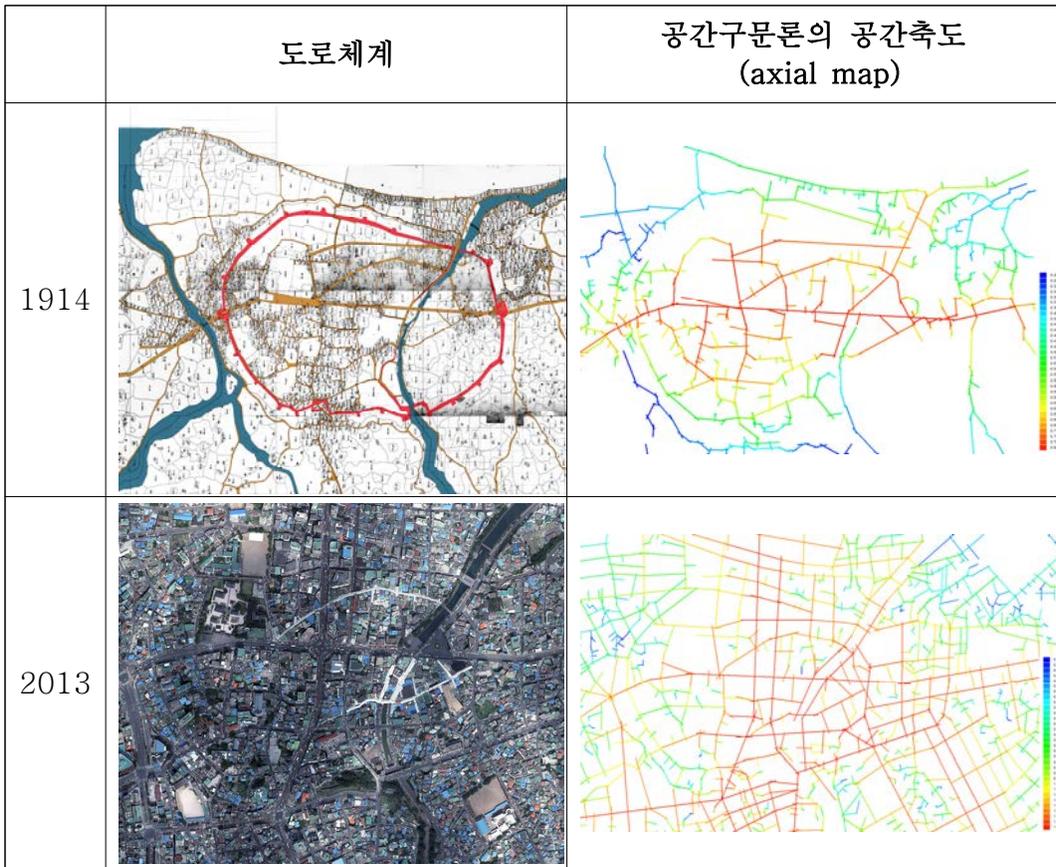
### (2) 1914년 지적도상의 옛길과 현 도로와의 기능적 체계 변화

1914년과 2013년, 100년의 시간 변화 속에 원도심의 도로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각 지점(장소)별 혹은 도로별로 정확한 분석데이터에 근거한 도로체계 위상분석 보다는 제주성내 중심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관덕정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위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분석 수준에 머무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간구문론의 공간축도(axial map)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주성내 도로체계의 위상을 분석한 결과, 1914년 당시 도로는 동문과 서문으로 이어지는 도로인 관덕정 앞 도로가 핵심적인 도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도로는 전체 공간위상도 0.8984로 높은 편이고, 공간연결도 10.98로 공간의 명료도도 높은 편이다.

반면 2013년의 경우 1914년과는 달리 중심적인 도로가 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본적으로 관덕정 동문과 서문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위상은 변함이 없으나, 1960년대 이후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로 인하여 편중되어 있었던 도로 기능이 분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시 확장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남문로터리에서 중앙로터리로 이어지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의 위계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20, 표 V-2).



[그림 V-20] 1914년과 2013년의 도로체계 분석 결과

<표 V-2> 1914년과 2013년 도로체계 변화 비교

		전체공간 위상도	부분공간 위상도	공간 연결도	공간 통제도	전체 공간 깊이	평균공간 깊이	연결도로 10이상 개수
1914년	평 균	0.753801	5.222541	17.5	9.466667	6718	10.33538	2
2013년		1.020774	4.666624	13.92713	2.105123	12657	8.907284	241

## Ⅵ. 제주도 일대 문화공간 분포 변화

### 1. 1974년과 2013년 사이 40년간 문화공간 분포 비교

#### 1) 분석 방법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도심은 동서남북으로 도로의 개설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건축되기 시작하면서 중심지역 및 경계지역의 확장으로 인한 도시공간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과거의 도시는 어떤 생활공간으로 구조화 되었는지에 대한 파악은 매우 흥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생활시설들의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원도심 공간구조의 맥락을 개략적으로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생활 관련 시설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하여 당시 신문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전화번호자료라 생각된다. 전화번호부에는 업종분류,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지 등 기초적인 자료 모두 수록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당시 전화 설치가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중심지의 분포현황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발간된 제주도 전화번호부 중에서 현재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전화번호부는 1974년 발간된 자료이다. 이들 자료를 3단계로 나눠 데이터화한 후 Arc INFO GI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간분포 등을 분석하였다. 데이터화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1974년 전화번호부에 수록된 모든 자료를 엑셀자료로 입력 정리하여 기초적인 자료화를 실시하였다. 1974년 제주도 전화번호부에 수록된 전화번호는 제주시(읍면동 지역 포함) 2052곳, 서귀포시(읍면동 지역 포함) 705곳으로 총 2757곳의 자료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지인 제주 동지역의 데이터는 총 1694곳으로 주소 파악이 가능한 데이터는 1161곳으로 약 69% 정도였다. 약 70% 정도의 자료 분석이지만, 본 연구가 개별적인 자

료의 정확도에 초점을 둔 것이기 보다는 생활시설의 분포패턴을 통한 공간 구조의 특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1〉 1974년 제주도 전화번호부 자료

	전화번호 자료	위치 파악된 분석자료		
		전체	동지역	읍면지역
제주시	2052곳	1694곳	1161곳	533
서귀포시	705곳	304곳	-	-

2단계에서는 개략적이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토지 및 건축물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GIS기반의 랜드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포현황 등을 분석하였다<sup>35)</sup>. 랜드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련시설의 분포와 좌표를 파악하여 도로, 지적, 항공사진 등과 연계한 복합적인 분석이 가능한 GIS자료로 전화하였다.

3단계에서는 범용GIS프로그램인 Arc INFO를 이용하여 2단계에서 정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1914년 지적자료 및 1967년 항공사진, 2009년 항공사진 등 다양한 자료와 연계한 중첩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항공사진의 경우, 현재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가장 오래된 항공사진은 1967년이다.

1967년 항공사진은 1974년 전화번호부와 약 7년간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다. 그러나 당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급속한 도시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아 1974년 전화번호부 발간 당시의 도시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 판단된다.

## 2) 시설분류

1974년 전화번호부상에서 시설분류는 업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아니어서 사용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업종분류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되, 현재 분류와의 통일성을 갖기 위해 통계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전화번호상의 시설을 분류하여 활용하였다.

35) 사용 프로그램인 랜드맵에서는 주소를 중심으로 위치 파악이 이루어지게 된다. 제주 동지역의 경우 1694곳의 자료이지만, 지번의 변동 등으로 파악이 되지 않아 실제 파악된 자료는 1161곳 자료(68%)이다. 그러나 관련 시설 분포의 전반적인 흐름과 특징 분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2〉 전화번호부상의 업종 분류와 통계청의 업종 분류 비교

전화번호부에 따른 용도 분류		통계청의 산업 분류에 따른 용도	
세부업종	업종분류	업종분류	세부업종
관공서 중요기관 학교	관공서, 중요기관, 학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중요기관, 관공서
요식	소매점 음식점	제조업	공장, 목공소
종교	종교시설, 절	금융업	은행, 금융
잡화	소매점	교육 서비스업	학교, 학원
농축	소매점	협회 및 단체	종교시설, 절
공장 공업	공장, 소매점	영상 제작 및 배급업	극장
곡물	소매점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목욕탕, 미용실
가방	소매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통신시설, 전기업
고무	소매점	도매 및 소매업	서점, 소매점, 약국, 한약방, 철물점, 제과점, 고물상, 주유소, 백화점
과자	소매점	숙박 및 음식점업	여관, 여인숙, 호텔 음식점, 다방
극장	극장	건설업	설비, 건설사
금융	금융	보건업	병원
금은보석 시계	소매점	운수업	운수업, 유통업
기물	소매점	농업	농장
라디오 TV 전축	통신시설	임업	목장
목욕탕	목욕탕	서비스업	동물병원, 사진관, 예식장, 언론사, 건축설계사무소, 법무사
미싱	소매점	업무시설	사무소
병원	병원		
산소 용접	공장		
서점	서점		
세탁	소매점		
수도 난방	설비		
식품	소매점		
약국 약방	약국, 한약방		
의류	소매점		
여관	여관, 여인숙, 호텔		
오토바이	소매점		
운수	유통업, 운수업		
자전거	소매점		

전화번호부에 따른 용도 분류		통계청의 산업 분류에 따른 용도	
세부업종	업종분류	업종분류	세부업종
주류	음식점		
철공 철물	철물점		
미용	소매점		
다방	다방		
건재	소매점		
농장 목장	농장, 목장		
식품	소매점		
가구	소매점		
고물	고물상		
사진	사진관		
섬유	공장		
예식장	예식장		
기계	공장		
목재 제재	목공소, 소매점		
전업	전기업		
선구 어구	소매점		
언론기관	언론사		
관광	사무소		
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법무사		
인쇄	소매점		
목욕탕	목욕탕		
유류, 주유소	주유소		
건설	건설사		
납시	소매점		

### 3)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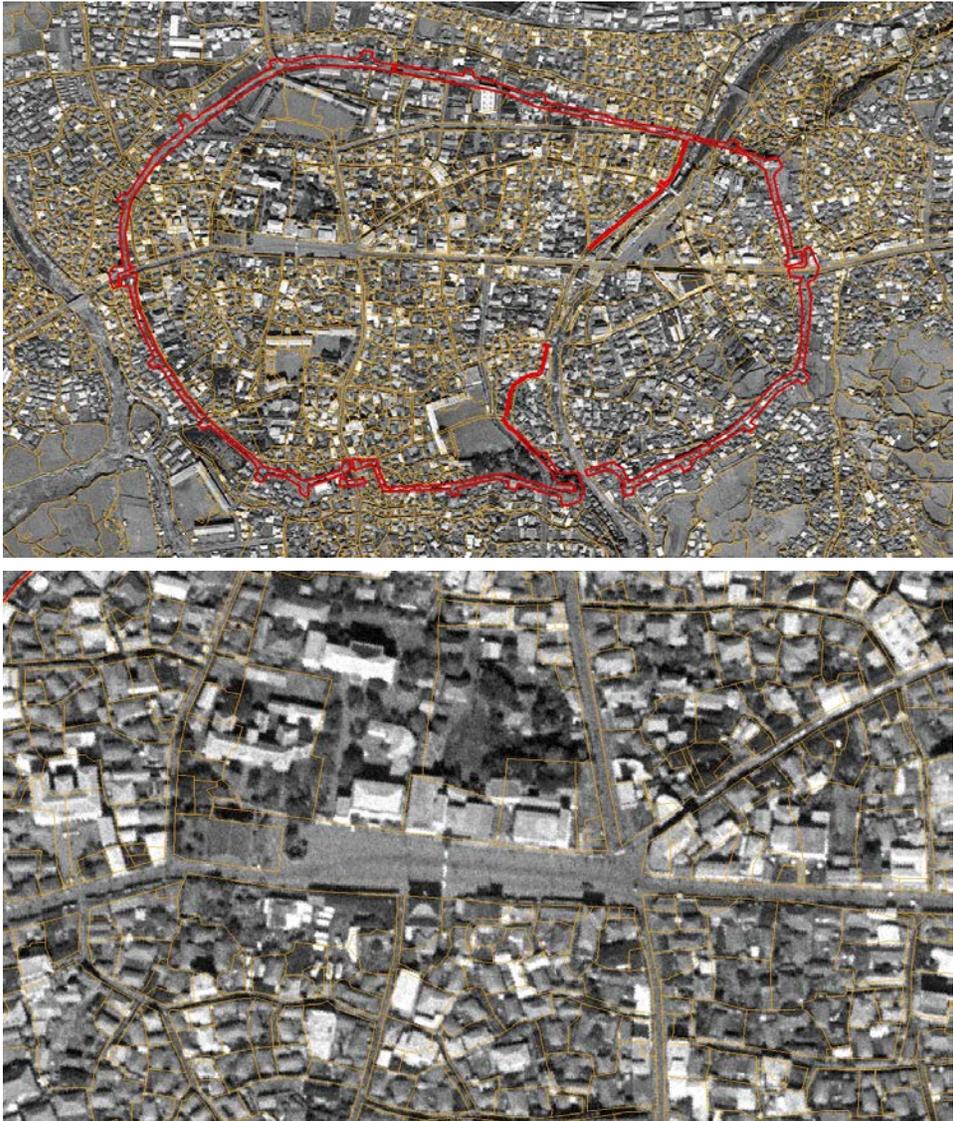
#### (1) 1914년 지적현황과 1967년 항공사진상의 변화 비교로 본 제주성내 생활공간 검토

여기서는 1974년 전화번호부 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제주성내 옛길을 중심으로 생활공간형성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적 자료가 1967년 항공사진이다. 국립지리원이 제공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항공사진으로 당시 사진을 보면 일부 도로개설 등으로 변화는 있으나, 해방 이후 대규모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지 못했던 당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제주성의 원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성내 물리적 공간변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1914년 지적도를 1967년

항공사진 위에 중첩시켜 본 결과, 부분적으로 도로개설로 인한 변화는 있었으나 해방 전·후의 제주읍성의 모습을 거의 원형 가깝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V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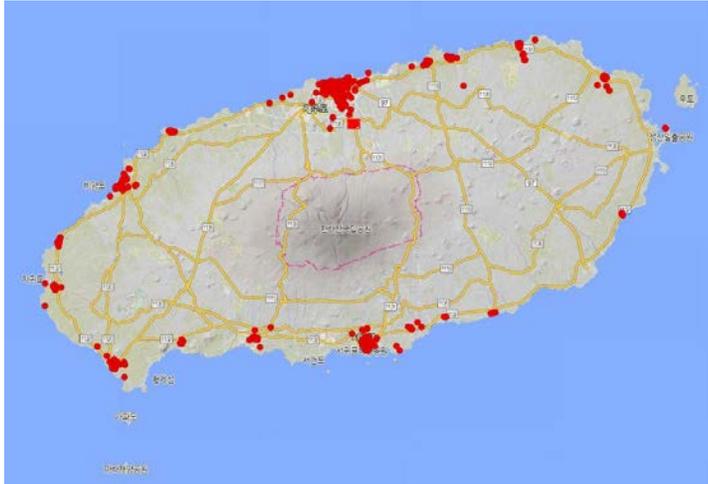
따라서 1967년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1974년 전화번호부의 업종별 공간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제주성내 일제강점기 전후의 생활공간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림 VI-1] 1914년 지적도와 1967년 항공사진의 중첩으로 본 제주성내 공간변화 비교

## (2) 전반적인 분포 현황

1974년 당시의 전화 소유자의 제주도 전체분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략적이지만 중산간 지역에는 거의 전화 소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다음으로 서귀포시 동지역, 한림읍, 그리고 대정읍, 중문동 지역이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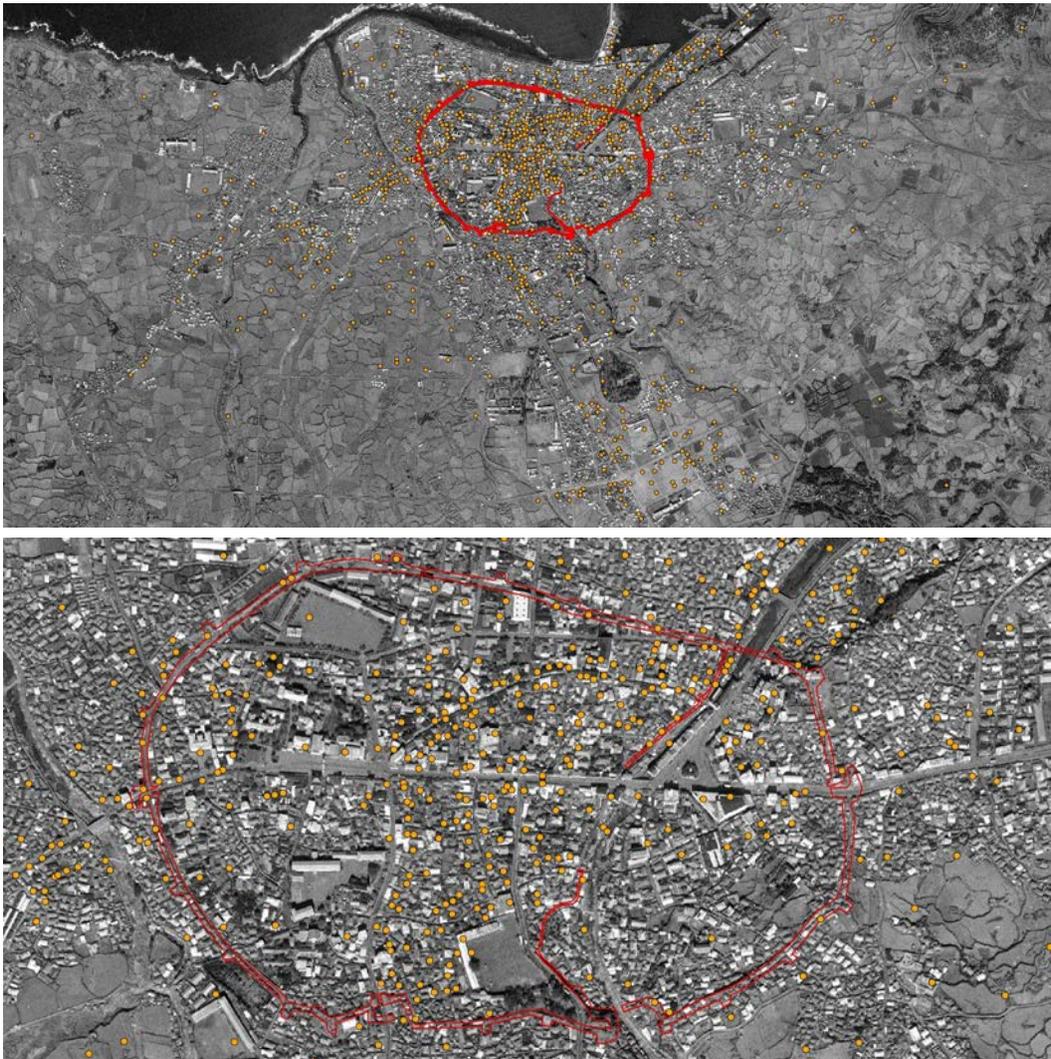
[그림 VI-2] 1974년 전화 소유자의 분포

## (3) 1967년 항공사진으로 본 업종별 전화 소유자 분포

제주 동지역의 업종별 전화번호 소유자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5곳 정도의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밀도가 높은 장소로 분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일도동 지역의 경우는 ① 칠성골과 산지천 사이의 지역, ② 산지천을 따라 바닷가 지역, ③ 이도동 지역의 신성여중·고와 오현고 사이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④ 서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관덕정 뒤편과 서문시장 일대에도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⑤ 동문시장 주변, ⑥ 제주시민회관 주변이 비교적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대체로 이들 지역이 제주성내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중심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분포의 밀도를 고려할 때, ① 칠성골과 산지천 사이의 지역, ③ 이도동 지역의 신성여중·고와 오현고 사이의 지역이 중심적 활동공간이었다고 평가된다.

흥미로운 점은 1967년 항공사진상으로는 건축물이 없는 장소이지만, 전화 소유자 분포가 나타나는 지역이 눈에 띈다. 현재의 삼도2동 지역 제주남초등학교 남쪽 지역과 제주시청 주변 지역이 1967년과 1974년 사이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VI-3).

아울러 업종별로 구분하여 제주성내 분포를 살펴본 결과, 업종에 따라 지역별 분포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서 40년 전 1974년 제주성내 거주영역과 상업적 생활공간구조를 개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그림 V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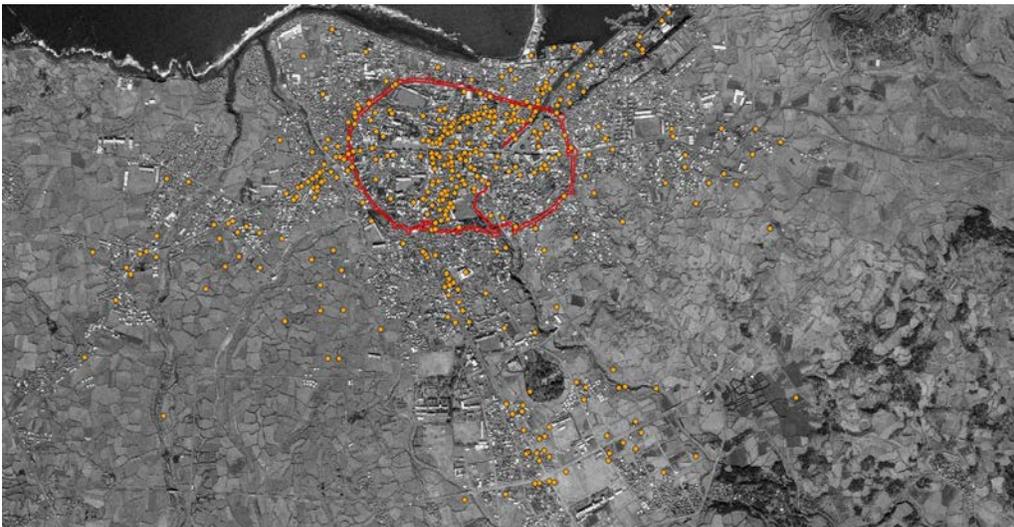


[그림 VI-3] 1974년 전화 소유자의 제주성 주변 분포(위) 및 제주성내 분포(아래)



[그림 VI-4] 업종 분류에 따른 제주성내 전화 소유자 공간분포

#### (4) 도소매업의 분포



[그림 IV-5] 주변지역으로 본 도소매업의 분포

도소매업은 서점, 소매점, 약국, 한약방, 철물점, 제과점, 고물상, 주유소, 백화점 시설들이 해당된다. 이런 시설들은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도소매업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67년~1974년

사이 읍성의외곽으로 도시기능이 확산되어 갔음을 도소매업의 분포를 통해 잘 파악할 수 있다(그림 VI-5). 확산형태는 크게 동문과 남문 사이의 외곽, 서문과 남문 사이의 외곽, 그리고 시민회관에서 제주시청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소매 중 서점은 일반인들이 용이하게 방문하여 스스로 지식과 교양을 쌓아가는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 1974년 전화번호상의 제주 동지역 서점은 총 9곳이 운영되었고(표 VI-3), 그 중 4곳의 서점이 제주성내에서 운영되었다(그림 VI-6).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주성내는 일반적인 소비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문화계층이 문화소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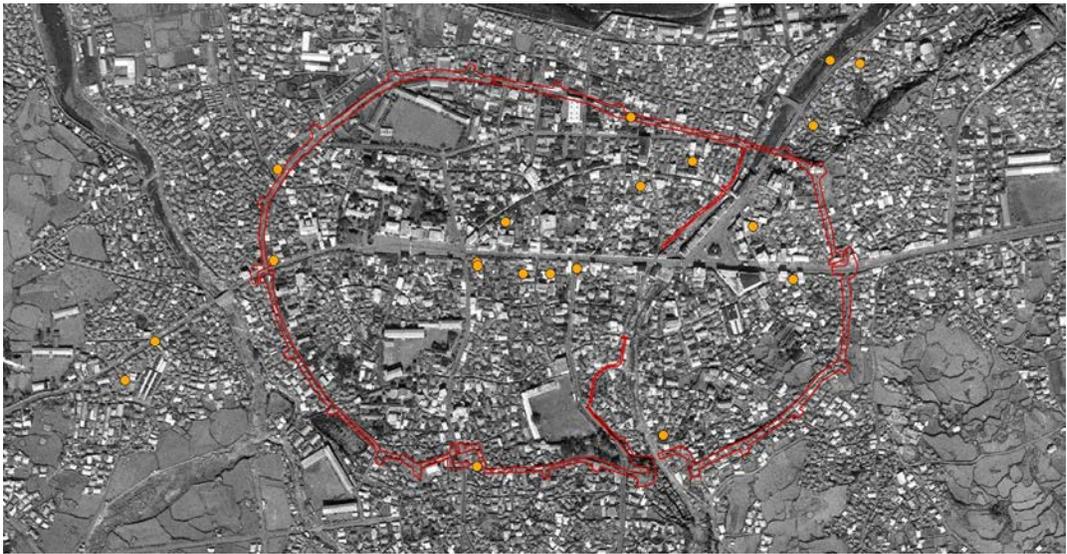


[그림 VI-6] 서점 분포

<표 VI-3> 도소매업 중 서점

상호명	소재지
문화서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521
해동서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897
신우서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783-2
남문서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212
대성서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956-1
제주서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190-2
삼성서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222-1
삼우서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471-1
양문서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389-1

약국은 총 29곳이 운영되었는데(표 VI-4), 그 중 15곳의 약국이 제주성내에서 운영되어 일반시민의 건강관리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그림 VI-7). 대부분 현재의 관덕로 중앙지하상가가 있는 도로에 인접하여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 서점과 약국, 그리고 소매업(소매업 분포 참조) 등이 밀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주변 일대가 주요 생활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VI-7] 약국 분포

<표 VI-4> 도소매업의 약국 분포

상호명	소재지
광주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351-4
동성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436
백제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498
정민당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709-16
호남한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430
해성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430
제일약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359-3
중국한약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011
서울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991-45
세영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498
신화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218

상호명	소재지
영성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566
유한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379-2
은성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일동 100
인자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093-1
고려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078
광제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358-3
남광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186-4
대성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일동 301-3
도매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084
동문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145-2
동아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동 1498
동아제약(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300-1
만수당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87-1
보령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일동 146
정화당한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146-24
종로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476-1
중앙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437-1
천우당약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일동 135-7
삼화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289-10
성모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259-3
성빈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710-1
수산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774-11
수정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140-1
안일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129
위생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146-1
시민약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171-1

도소매업 중 소매업으로 분류된 곳의 분포를 살펴 본 결과,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① 칠성골을 따라 형성된 선(線)적인 형태와 ② 이도동 지역의 신성여중·고와 오현고 사이의 지역에 분산된 형태, ③ 관덕정에서 서문시장의 도로를 따라 형성된 선(線)적인 형태로 소매업 시설이 확산,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그림 VI-8). 궁극적으로 이 지역들이 제주성내 중심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Ⅵ-8] 도소매업 중 소매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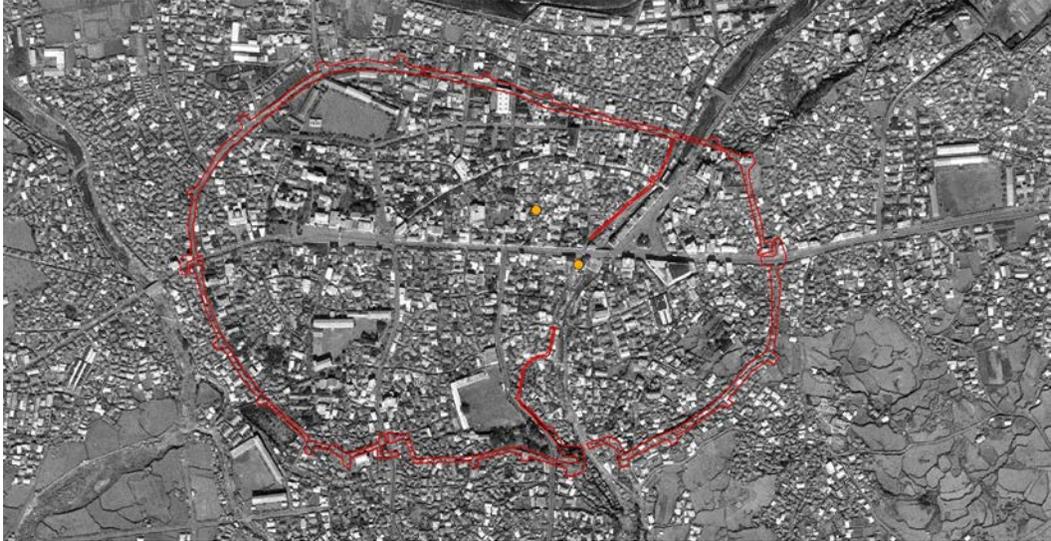
#### (5)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시설은 여관, 여인숙, 호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관·여인숙은 1974년 전화번호상 제주시 읍면동 지역에서 총 95곳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 제주성내와 산지천 포구 근처를 포함하여 운영되었던 여관·여인숙은 44곳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산지천 포구 근처에 여관·여인숙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포구라는 장소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Ⅵ-9] 여관 여인숙 분포

한편 호텔의 경우, 그 당시 상당히 고급시설로 평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시 읍면동 지역에서는 총 5곳이 운영되었고(표 VI-5), 그 중 제주성내에는 2곳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VI-10).



[그림 VI-10] 호텔 분포

<표 VI-5> 호텔 시설

호텔명	소재지
라이온즈호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356-2
제주라이온즈호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356-2
태을호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476-2
KAL 호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691-1
제주관광호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315

## (6) 보건업

보건업의 시설은 병원, 의원으로 총 36곳의 병의원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VI-6). 제주성내에는 14곳의 병의원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그림 VI-11), 약 40%의 병의원이 제주성내에서 운영되었다. 병의원은 환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구밀집 지역에 개원하는 특징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제주성내 병의원의 분포를 보면 칠성골에 분포하는 형태와 소매업이 밀집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VI-11] 병의원 분포

<표 VI-6> 병원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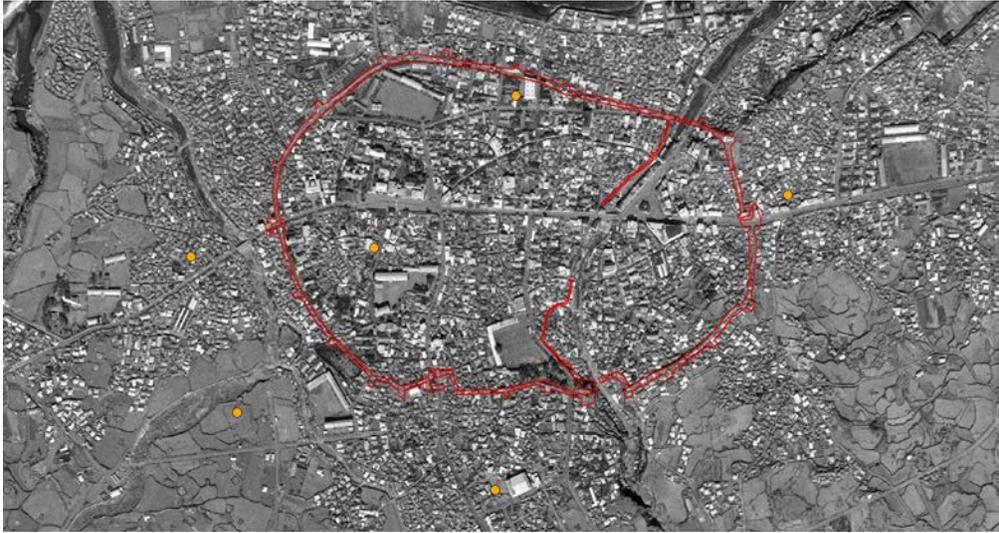
상호명	소재지
김산부인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402-2
박국선조산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123-9
제민신경전신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034-2
제일산부인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48-2
청십자복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401-13
부삼환치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430
신산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022-8
장산부인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554
장생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393
서울산부인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364-1
제주도립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154
고산부인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69
고택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146
광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95
김민자조산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596
김상휘조산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388-3
김애순조산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248
김용국소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388-3
김윤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69
김형구외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349
김희식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826-3
나사로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425

상호명	소재지
동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102
동성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725
명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319
정웅영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145-2
제주기독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949
부삼환치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402-1
서울치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146-1
성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204-6
성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801-10
소승우정골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81-1
안치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492-1
영도치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478-1
송재치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387-1
성모지압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104

### (7)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시설에는 목욕탕, 미용실이 해당된다. 주택 내 설비기능이 취약했던 1970년대에는 목욕탕은 몸의 청결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의 도시 시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커뮤니티 시설이었다. 현대사회에 들어 주택 내 설비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고급 사우나 기능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원도심 내 목욕탕도 사라지고 있다.

1974년 전화번호 분석 결과 총 9곳이 운영되었고(표 VI-7), 제주성내에는 2곳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VI-12). 중심적인 경제활동 지역이 ① 칠성골과 산지천 사이의 지역, ② 이도동 지역의 신성여중·고와 오현고 사이의 지역이었다면, 제주성내 목욕탕 2곳이 있는 지역은 일반 주택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었던 생활공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극장 분포와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극장 역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VI-12] 목욕탕 분포

<표 VI-7> 목욕탕 시설

상호명	소재지
금화목욕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일동 71
남문목욕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563-3
대영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298-23
은양목욕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358-29
광성목욕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787-1
금천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116-2
만복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750-1
제성목욕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60-3
삼화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593-25

### (8) 영상 제작 및 배급업

영상 제작 및 배급업에 해당되는 시설은 극장이다. 현 시대에도 그렇지만 극장은 대표적인 일반 시민들의 문화여가 활동 공간이자 도시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문화시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의 극장은 영화를 감상하는 기능에 국한되어 있다면, 1960년~1980년대의 극장은 영화 감상을 비롯하여 극단의 공연과 각종 부대행사의 공간으로도 활용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문화공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VI-13] 극장 분포

1974년 전화번호 자료 분석 결과, 극장은 제주성내에만 분포하고 있었는데, 북쪽 2곳,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1곳 총 4곳에서 영업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VI-13, 표 VI-8). 도소매업의 업종이 밀집되어 있던 지역과는 달리 목욕탕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VI-8> 극장 시설

상호명	소재지
코리아극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298-1
현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907-11
동양극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148-2
아세아극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289-1

### (9) 교육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에는 학교와 학원시설이 해당되는데, 학교 시설의 경우 총 26곳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VI-9). 그 중 제주성내 및 인접한 곳에 7곳의 학교가 운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어(그림 VI-14), 제주시 전체의 약 1/4를 차지할 정도로 중심 지역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VI-14] 학교 분포

<표 VI-9> 학교 시설

상호명	소재지
제주교육대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 4810
오현중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 4675
제주여자중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2360
제주동국민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305
화북국민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3994
제주대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581
제주간호전문대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9-2
제주실업전문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일동 254-1
제주농업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280
제주상업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동 360
제주제일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650
제주제일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283
제주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일동 83
제주중앙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280
신성여자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108
신성여자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402-1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043-6
제주중앙여자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594-13
광양국민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257-1
일도국민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038-1
제주남국민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811-1
제주북국민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7-3
제주서국민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603-3

상호명	소재지
영락고등공민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098
제주맹아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690
제주화교소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909

학원 시설은 총 11곳이 운영되었는데(표 IV-10), 정확한 위치가 파악 가능한 시설은 2곳 정도였다(그림 VI-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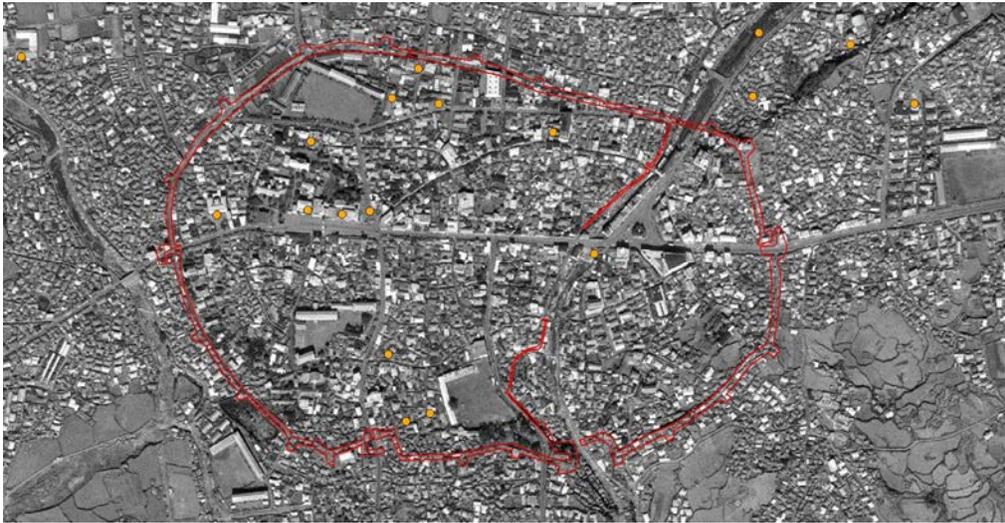
[그림 VI-15] 학원분포

<표 VI-10> 학원 시설

상호명	소재지
대성학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48-2
진일양재학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691-3
국동TV통신기술학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258-1
라사라양재미용기술학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171-5
신진미용기술학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059-1
영주미용기술학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903-1
이화피아노학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143-2
제일학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2421
제주관광요원양성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982-1
한일주산고사학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430-18
한일타이프학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동 48-2

(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974년 전화번호상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에 주요 관공서들이 읍성내 행정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제주시청, 제주도경찰국, 제주우체국, 제주세무서, 제주전매서 등이 제주목관아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VI-16).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성내 행정의 중심이었던 목관아를 식민지배의 중심지로 활용하면서 해방 이후 큰 변화 없이 행정 장소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VI-16] 제주성내 주요관공서 분포(위) 및 명칭(아래)

#### 4) 시사점

1914년 지적도상의 옛길과 1974년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생활문화공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914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는 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읍성의 흔적의 기록을 잘 남겨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14년 지적도상의 필지형태와 지목에 기초하여 당시 제주읍성의 정확한 위치와 관아시설의 위치, 옛길의 형태와 위치, 그리고 제주성내 주민들의 주거공간분포 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국립지리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항공사진은 1967년 사진들이다. 1914년 지적도를 1967년 항공사진 위에 중첩시켜 본 결과, 부분적으로 도로개설로 인한 변화는 있었으나, 해방 전·후의 제주성의 모습을 거의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들 1914년 지적자료와 1967년 항공자료를 중첩시켜 분석해 봄으로써 제주성의 공간구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즉 땅의 기록을 시각적 자료와 결합하여 복합적인 시각정보자료화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1974년 전화번호부상의 생활관련 문화시설들의 분포를 덧씌워 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주성의 옛길을 중심으로 어떠한 생활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던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면, 옛길을 따라 업종에 따라 지역별 분포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제주성내 거주영역과 상업적 생활공간구조를 개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동문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서문과 남문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이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주거의 규모로 본다면 서문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이 좀 더 컸으리라 짐작된다. 상업적 생활공간은 칠성골과 옛동성길 사이의 지역, 옷한질골, 알한짓골과 가락kut길 사이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약간의 경계상의 차이는 있으나, 옛길을 중심으로 일정한 생활공간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제주성 내의 경우, 주거지역은 관덕정을 중심으로 남쪽에 밀집되어 주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제주목의 중심지가 관아가 밀집되어

있었던 관덕정 앞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공간구문론 분석을 통해 주거가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1914년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것으로 전해지는 관덕정 앞 광장에서 열리는 시장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생활과 거리모습, 그리고 주변의 경관을 짐작할 수 있다.



자료: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3), 『濟州城-제주성총서 사진·지도』 p.177.

[그림 Ⅵ-17] 1900년대 관덕장 마당의 제주읍 오일장 풍경



자료: 제주도(1996), 『제주100년』 p.46.

[그림 VI-18] 1930년대 관덕정 마당의 제주읍 오일장 풍경

## VII. 제주성 일대 옛길의 보존 활용방안

### 1. 옛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원칙 수립

옛길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행하여 원칙과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핵심적인 사항은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 개발, 흔적과 기억의 공간 유지, 옛길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이며 이와 관련한 세부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기준 1: 지역의 특성반영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단순한 옛길 보전과 활용의 개념을 벗어나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원도심의 장소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도심의 일정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합필, 건축고도,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 교통 및 주차문제 등을 원도심 지역 특성이 반영되도록 계획,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

#### 2) 기준 2: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과거 흔적 유지

기존의 블록형태와 과거 골목길의 흔적을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역사적 문화적 흔적을 존중해야 한다.

#### 3) 기준 3 :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합필 규제

옛길이 훼손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각종 건축물들이 건축되면서 관련법규상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원도심 내에서 개발행위를 억제하면서도 지역 여건이 고려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규제와 개발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필지를 합필하는 등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

거나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건축물을 여러 개의 매스로 분할하는 등 최대한 원래 땅의 조건을 유지하도록 한다.

#### **4) 기준 4: 역사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물 고도 규제**

향후 건축물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제주 전통가옥의 의장(意匠) 및 공간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함축적인 의미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컨트롤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 고도(高度)를 규제하도록 한다.

#### **5) 기준 5: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정비**

옛길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주성내의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보행권 중심의 권역으로 조성하고 2구역은 일방통행권역으로 교통을 통제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설치된 민영 및 시영주차장을 적극 활용하여 각 구역별 보행환경 및 차량을 통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 **6) 기준 6: 정주민구 확대를 위해 주거기능 확보**

옛길 활용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정주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사전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원도심 내 건축되는 건축물의 저층은 상업공간, 상층은 주거공간으로 하고 주거공간은 젊은 층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면의 주거공간을 제공할 필요성이 높다.

#### **7) 기준 7: 문화예술의 기능이 접목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 이외에 적절한 문화공간을 계획하되 복원 가능한 장소 및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 8) 기준 8: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소공원 확보

도심소공원 조성은 노후건축이 집중되어 있는 블록의 노후주택을 매입한 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핵심적인 3개 광장과 옛 골목길과 연결하여 보행 환경과 거주환경의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 9) 기준 9: 원도심 주변공간과의 연계 활용

제주성내를 지나는 산지천, 병문천, 한천 주변을 친수녹색공간으로 조성하여 차도와의 적절한 완충기능과 경관조성 기능을 갖도록 한다. 아울러 민속자연사박물관, 삼성혈 그리고 제주시민회관으로 이어지는 길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관광객의 원도심 체류 시간이 연장되도록 한다.

## 2.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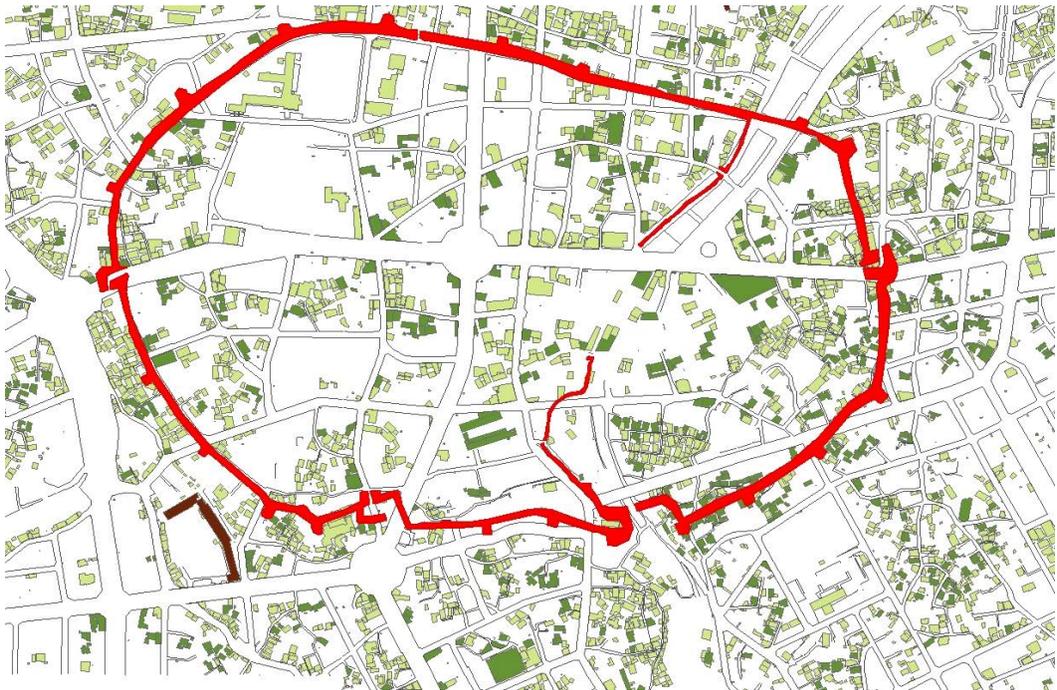
기본적으로는 원도심의 재생수법으로서 골목길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때 지역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원도심의 역사풍경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1) 도시재생 수법으로서의 골목길 활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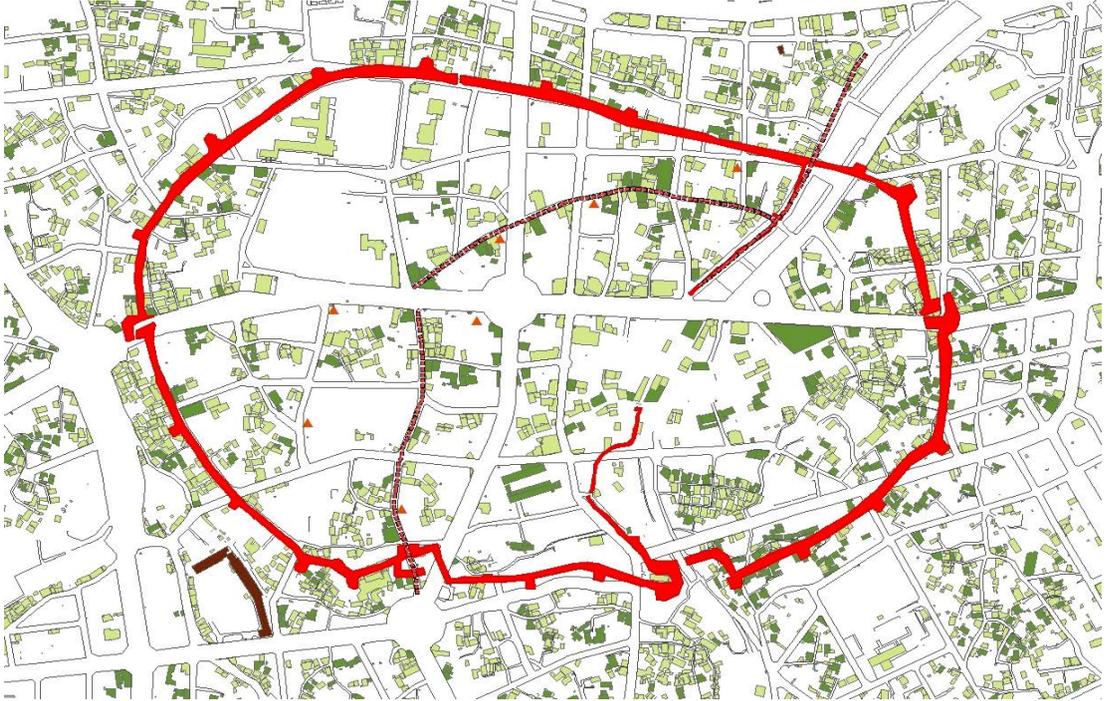
옛길 중심 주거와 소공원+문화공간 중심의 정주환경 개선 활용방안이다. 원도심 내 옛 골목길 활용은 단순히 골목길을 복원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1914년 지적도에 나타난 옛길 자료에 근거하여 가능한 한 옛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훼손된 경우 바닥 등에 그 흔적을 정확히 표시하여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원도심 내 건축연도를 분석한 결과, 1969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약 46년 경과된 건축물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건축물들은 리모델링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도 있지만 상당히 노후화되어 철거 후 신축해야 하는 건축물이 많다. 옛길과 연계하여 이들 건축물을 단계별로 신축하되, 여러 채의 건축물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2~3채의 주거군으로 개발하면서 일부 공간을 확보하거나 혹은 자투리 부지가 있는 경우 식재하여 소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옛 골목길 활용의 또 다른 목적은 향후 원도심 내 조성될 핵심광장인 탐라문화광장, 관덕정 광장, 남문광장을 연결하는 주요 공간이며 이들 광장을 연결하는 한짓골과 칠성골의 옛 골목길의 경관복원을 통해 연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VII-1] 1969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분포 대체로 블록 내부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림 VII-2] 1969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분포와 핵심 3개 광장을 연결하는 옛 골목길 개발 계획. 한짓골을 비롯한 칠성골에도 노후화된 주택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주택을 리모델링 혹은 소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2) 현존 문화자원과 장래 복원될 자원과 연계한 역사풍경 조성

현존하는 문화자원과 앞으로 복원될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역사풍경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1코스는 철거된 성터를 중심으로 답사하며 복원된 제주목관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골목길과 성터, 근대건축물을 코스에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코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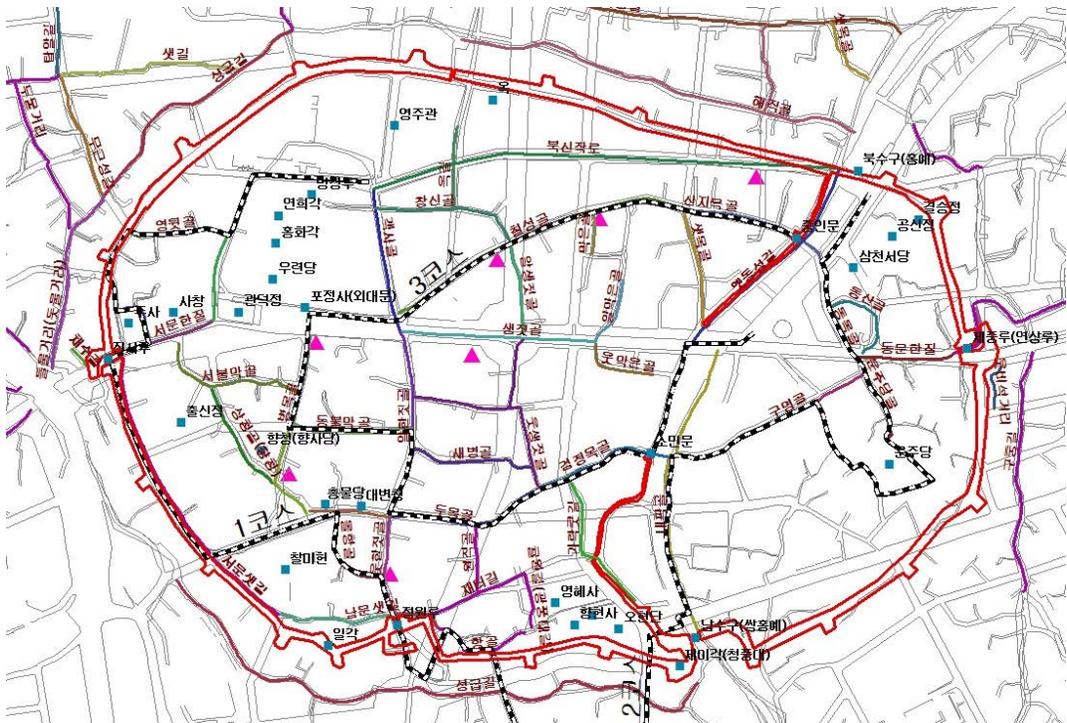
2코스는 골목길과 옛터를 엮은 코스로 공신정 터, 운주당 터를 비롯하여 발굴예정 터와 장소를 중심으로 골목길을 따라 답사하되, 부분적으로 시장을 통해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이다. 이 코스는 김만덕 객주터와 김만덕 기념관, 금산수원지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코스는 기본적으로 기존 17울레코스의 종착지점과 연계에 초점을 둔 코스이다. 이 코스는 골목길과 동문시장을 중심으로 답사가 가능한 코스로

과거와 현재 삶의 모습과 길을 따라 먹거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표 VII-1> 제주성 일대 옛길과 문화자원 3가지 유형의 활용코스

코스	주요 내용	비고
1코스	옛길과 성터, 근대건축물 등을 연계한 코스로 다양한 문화체험 가능	철거된 성터를 중심으로 답사하며 제주목관아, 조일구락부, 성내교회, 제주화교소학교 등 활용 가능
2코스	옛길과 옛터를 연계한 코스로 공신정터, 운주당 터, 발굴예정 터와 장소를 중심으로 골목길을 따라 답사 및 시장체험으로 먹거리 체험 가능 코스	김만덕 객주터와 김만덕 기념관, 금산수원지 등을 연계 가능
3코스	옛길과 동문시장 중심 답사 코스로 과거와 현재의 삶과 모습, 길 따라 먹거리 체험 가능 코스	기존 17올레 코스의 종착지점과 연계 가능



[그림 VII-3] 현존 문화자원과 장래 복원 자원과 연계한 활용 제안 코스

### 3) 원도심 옛길 답사 프로그램 상시 운영 및 가이드북 발간

최근 걷기여행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제주성 일대의 다양한 문화유적과 연계하여 원도심 옛길 답사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로 활성화 할 수 있다.

원도심 옛길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여 원도심의 주요 장소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옛길 답사가 단순히 걷는 목적 이외의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 원도심의 문화유적과 옛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3. 정책적 제언

### 1) 행정기관의 법적·제도적 개선

원도심 재생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으로서의 행정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제적 혹은 점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해결해야 법적·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형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규모 및 고도 제한과 관련된 특별법 및 건축조례 등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 (2) 골목과 옛길 보존을 위한 합필 금지, 옛길 변형 금지와 관련된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 (3) 보행자 중심의 도시 공간조성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일방통행 도로정비의 추진과 관련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 (4) 성곽 외곽부에 주차장 조성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가 필요하다.

## 2) 제주도 옛길 보존 종합계획(가칭) 수립

도시재생이 최근 도시의 트렌드이다. 이제는 도시의 흔적 땅의 기억의 옛길을 깡그리 지우고 뒤집어엮은 기반시설 위에 새로이 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이 국가 정책적으로 전환의 시대를 맞은 것이다. 그동안 불편했던 좁은 길들이 이제 새롭게 조명 받는 시대가 되었다. 인간의 기억과 시간의 켜가 켜켜이 쌓인 오래된 벽들, 낯익은 골목길은 이제 인문유산이다. 그중에서도 전근대 시대부터 이어져 온 원도심의 옛길들은 도시의 역사를 증거하는 문화유산이다.

옛길을 문화유산으로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미 유네스코에서는 길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Routes of Santiago de Compostela in France)이 그것이다. 1998년이 었다. 그리고 2014년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는 고대의 인류를 이어 주던 중요한 길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그 하나가 바로 ‘실크로드’ 이다. 이번에 등재된 것은 시안에서 텐산산맥의 남북을 지나는 두 길, 텐산남로·텐산북로 5000여km 구간과 그 길들을 따라 이어진 고대 유적들이다. 전체 구간으로는 중국의 산시성·간쑤성과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 흩어져 있는 유적지 33군데가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남미 잉카제국의 옛길인 카팍 난(Qhapaq Nan)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카팍 난은 거대한 제국이었던 잉카의 도로망으로, 총길이가 3만km에 달한다. 카팍 난은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6개국의 공동 요청으로 실크로드를 비롯한 26개 유적과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길이 세계유산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길은 차가 다닐 수 없는 보행자 도로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한양도성의 4소문 중 하나인 창의문(북소문)으로 통하는 창의문 옛길을 47년 만에 복원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는 창의문로 10길(부암동 236~237-26) 180m 구간을 ‘창의문 옛길 역사문화로’로 조성하기로 착공에 들어갔다. 창의문 옛길은 1968년 북악스카이웨이 도로가 건설되면서 창의문과 단절됐다.

좁고 불편했던 마소와 보행자가 다녔던 길들이, 골목들이 차량에 밀려

최잔하고 사라지다가 이제 비로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제주시 원도심의 옛길들은 자동차도로가 뚫리면서 몇 군데 손상을 입기는 했지만 여전히 건재하다. 이 길들은 제주성의 옛길로서 길게는 1천년 가까이, 짧게는 500여 년 이상 그 자리를 지켜 온 원도심의 지문이다. 제주도와 제주시에서는 하루빨리 원도심 옛길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 길들을 보존하고 정비하여 다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천년 고도이지만 관덕정을 제외하면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은 이 기억상 실증의 도시에 옛길은 1천년 가까이 제주성의 역사적 무게를 땅에 새긴 대지의 지문이며, 탐라제주문화의 아카이브이다.

원도심 옛길의 보존을 위해 옛길 지방문화재 지정, 옛길 보존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옛길 보존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또한 원도심 옛길 보존을 위한 <제주성 옛길 보존 종합계획>(가칭)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 3) 조선시대 삼읍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아울러 고지도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삼읍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조선시대 삼읍을 이어주던 도로망은 전근대시대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일제강점기에 신작로가 생기기 전까지 제주-정의, 제주-대정을 이어주던 삼읍의 도로는 제주목과 현을 이어주던 왕조의 길이며, 문화의 길이었다. 이 길들 역시 시가지의 팽창과 도로망 확산 및 확충, 읍면지역의 발달 등으로 변형되는 등 차츰 사라지고 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일제강점기 지적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사료집

『太宗實錄』

『世宗實錄』

『東國輿地勝覽』(1481)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濟州風土錄』(金淨, 1521)

『南溟小乘』(林悌, 1578)

『南槎錄』(金尙憲, 1601~1602)

『耽羅誌』(李元鎮, 1653)

『南遷錄』(金聲久, 1676)

『耽羅巡歷圖』(李衡祥, 1702)

『南宦博物』(李衡祥, 1704)

『濟州郡邑誌』

『濟州邑誌』

『耽羅誌草本』(李源祚)

『海東地圖』

『耽羅紀年』(金錫翼, 1918)

『增補耽羅誌』(담수계편, 1953)

### ■ 단행본 및 논문

건입동마을회(2008), 『健入洞誌』.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2014), 『경기옛길 삼남길·의주길 개발 및 활용 연구보고서1 삼남길·의주길 연구』,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김기홍·이애란·정혜진(2008), 『골목을 걷다-이야기가 있는 동네 기행』, 이매진.

김두하(1990), 『벽수와 장승』, 집문당.

金允植 著, 金益洙 譯(1996), 『續陰晴史』, 濟州文化院.

김종혁(2004), 「[옛 길을 따라]역사에서 ‘길’이란 무엇인가」, 『역사비평』, pp. 331-345.

- 김충영(2009), 「수원 화성 옛길의 변화 특성분석 및 보전방안 연구」, 경원대학교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논문.
- 김태일(2015), 「제주시 원도심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의 방향」, 『문화자원론과 지역학』, 제4회 제주학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pp.195~211.
- 김태일 외(2012), 『전환기의 제주도시건축』, 보고서.
- 도도로키 히로시(2000), 『일본인의 영남대로 답사기-옛지도 따라 옛길 걷기』, 한울.
- 문순덕·박찬식(2013), 『제주 근대 역사문화시설의 문화자원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민현석·송지영(2009), 『옛길의 가치규명 및 옛길 가꾸기 기본방향 연구-서울 도시 사대문안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양상호(2011), 「구한말 제주읍성의 도로체계에 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0권 6호, 통권79호, pp. 169~184.
- 엄상근(2013),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오창명(2005), 『3. 동(洞) 및 마을 이름 유래』, 『濟州市五十年史』上卷, pp. 147~164.
- 오창명(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 -행정명사·제주시 편』, 제주대학교출판부.
- 이규인(1995), 「空間構文모델에 의한 團地計劃代案評價方法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6호, 통권 80호.
- 제주교육박물관(2007), 『耽羅誌草本(上)』.
- 제주도(1996), 『제주100년』.
- 제주도(2003),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 제주도·제주동양문화연구소(1999), 『濟州島 磨崖銘』.
- 제주도·제주4·3연구소(2003), 『제주4·3유적 I』, 도서출판 각.
- 제주문화원(2005), 『譯註 增補耽羅誌』, 제주문화원.
- 제주문화원(2007), 『譯註 濟州 古記文集』, 제주문화원.
- 제주시(2005), 『濟州市五十年史』上卷.
-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1996), 『濟州市의 옛터』.
- 제주시·제주문화원(1996), 『濟州市 옛 地名』.
-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5), 『濟州城-제주성총서 사진·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3), 『제주성지-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최열(2012), 『옛 그림 따라 걷는 제주길』, 서해문집.

크리스토프 라무르, 고아침 옮김(2007), 『걷기의 철학』, 개마고원.

한정훈(2010), 「기장지역 옛길의 역사적 변천」, 『지방사와 지방문화』 13권 1호, pp.7~43.

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2003), 『삼도2동』.

#### ■ 인터넷 사이트

걷기여행길 종합안내포털: <http://www.koreatrails.or.kr/>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local=jeju>

#### ■ 도움을 주신 분

\* 옛길 이름을 고증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김익수(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고희식(전 삼도2동 동장)

고두연(1922년생, 삼도 2동)

## Abstract

# Analysis of the ancient road network within the Jeju Fortress and the implications for preservation and conversation

Kang Kyung Heui, Kim Tae Il  
Park Kyong Hoon, Lee Yun Hyung

From the Tamna Kingdom Era to the Joseon Dynasty, the area within the Jeju Fortress has been alive with history. The area within the fortress walls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Jeju Island'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While much of the infrastructure within the Jeju Fortress was destroy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ancient roads within the space survived. The road network contains major historical value and displays unique qualities of the Jeju Island thus solidifying the identity of Jeju.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osely investigate the ancient road system's historical value and its implications in order to recommend a pla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site. One specific goal is to highlight the significance the road network has on the community. This research hopes to foster the regional identity among its residents through cultivating ownership and pride for thi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 as well as revitalizing the area's economy.

This research take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Researchers specializing in areas of anthropology, architectural and urban planning, and cultural planning collaborated with experts in regional folk and traditional culture. The methodology includes literature surveys, field investigations, interviews, and case studies of other ancient roads in South Korea.

Research results reveal that due to the changes in the original city layout, the ancient road system within the Jeju Fortress has shifted significantly. However, approximately 54 alleyways and small roads have survived. Research also shows that the existing names of the surviving roads have maintained their original names, which were given to indicate the relationship to surrounding landmarks and

environmental markers that existed during ancient times. Thus, the roads shed light on the past characteristics and functionality of the area within the Jeju Fortress.

In addition, by utilizing the phone book listings, we were able to analyze 40 years of transformation of culturally significant spaces between years 1974 to 2013. Spatial analysis illustrates the distribution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unique to this area.

Finally, using the results, this research propos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nine principles to follow for the preservation and operation of the ancient roads. We detailed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urban regeneration of this area. The plan suggests improving the residential atmosphere by utilizing the alleyways, depicting the historical landscape by drawing a connection between the existing and future significance of this cultural resource, and establishing a program that allow users to explore the original city layout and the ancient road system.

Above all, for the purpose of better preserving the ancient roads, we urgently call for changes in policy to improve legal protection of this sight; to apply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Jeju Fortress ancient roads; and to further research on the road networks within the three towns that exis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on Jeju Island.

Keywords: Jeju Fortress, ancient road network, ancient road name,  
Jeju region identity, original downtown

## 부록

1. 제주시 원도심의 멸실 유적<sup>36)</sup>

## ○ 연상루(延祥樓)

- 소재지 : 제주시 일도동 1084-8번지 일대
- 제주성 동문의 문루이다. 처음 제중루(濟衆樓)라고 하였으나 뒤에 연상루(延祥樓)로 고쳤다. 1565년(명종 20) 곽홀(郭屹) 목사 당시 동성을 확장하면서 창건하였다. 1666년(현종 7), 1808년(순조 8), 1856년(철종 7) 등 여러 차례 중수 보존돼 왔으나 일제강점기 초기 1914년에 훼손되었다.

## ○ 진서루(鎭西樓)

- 소재지: 제주시 삼도1동 1078-1번지 일대
- 제주성 서문의 문루이다. 처음 백호루(白虎樓)라고 하였는데 창건연대는 알 수 없다. 1739년(영조 15) 목사 조동점(趙東漸)이 중수하였다. 1773년(영조 49)에는 목사 박성협(朴聖俠)이 중수한 뒤 진서루(鎭西樓)로 이름을 고쳤다. 그 후에도 보수 보존되어 오다가 일제강점기 초기 1914년에 훼손되었다.

## ○ 정원루(定遠樓)

- 소재지: 제주시 이도1동 1494-1번지 일대
- 제주성 남문의 문루이다. 1512년(중종 7) 목사 김석철이 성을 개축하면서 이곳에 문루를 세워 정원루(定遠樓)라고 하였다. 1705년(숙종 31), 1780년(정조 4) 등 여러 차례 중수되어 3대 성문 가운데 가장 오래 남아 있었으나 1918년에 훼손되었다.

## ○ 공신정(拱辰亭)

- 소재지: 제주시 건입동 1123번지 일대
- 북수구(北水口)의 문루이다. 목사 이원진이 1652년(효종 3) 북수구 홍문

36)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1996), 『濟州市의 옛터』를 정리하였다.

(虹門) 위에 정자를 세워 공신루(拱辰樓)를 건립하였는데, 1808년(순조 8) 목사 한정운이 중수한 다음 공신정(拱辰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 후 폭우로 다시 무너지자 1831년(순조 31) 목사 이예연(李禮延)이 삼천서당(三泉書堂) 북쪽으로 공신정을 이전하였다. 그 뒤 여러 차례 중수 보존돼 왔으나 1928년 일제강점기 때 제주 측후소 부지가 되었다가 제주 신사를 지을 때 헐렸다.

○ 북성 홍문(北城 虹門)

- 소재지: 제주시 일도동 1498번지
- 제주성 북수구(北水口)에 있었다. 처음에는 죽서루(竹西樓)가 있었으나 홍수로 유실되고 목사 이원진(李元鎭)이 1652년(효정 3)에 보수하면서 공신루(拱辰樓)를 세웠다. 그 후 홍수 때마다 무너지므로 목사 이예연이 1832년(순조 32) 누각을 삼천서당(三泉書堂) 동쪽 언덕으로 이 건했다. 이 때 문루를 없애고 홍문(虹門)만 세웠다. 이 홍문도 1927년의 대홍수로 무너져 내렸다.

○ 남수각(南水閣) 터

- 소재지: 제주시 일도동 일원
- 제주성 남수문(南水門)이 있었던 터이다. 남수각은 산지천 위에 만든 다리로 1599년(선조 32) 목사 성윤문이 북수구와 함께 이곳에 수구를 만들고 하상에는 홍예다리를 놓아 그 위에 초루를 세웠다. 홍수 때마다 파괴 유실 축조가 반복되다가 언제부턴가 홍문만 축조하고 누정 건립은 하지 않게 되었다. 이 홍문은 여러 차례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되었으나, 1927년 대홍수로 무너진 뒤 복구되지 않았다.

○ 중인문(重仁門)

- 소재지: 제주시 일도1동 1241 번지 일대
- 제주성은 원래 산지천 서쪽으로 축조되었으나 1515년 동성이 확장되었으며 1780년에는 홍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간성(間城)을 쌓았는데 남문을 소민문(蘇民門), 북문을 수복문(受福門)이라 하였다. 1847년(현

종 13) 제주목사 이의식이 이 수복문을 개축하고 중인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1914년에 훼손되었다.

○ 성주청(星主廳)

- 소재지: 제주시 삼도2동 44-5번지
- 성주청은 탐라국 시대의 주요 관아시설이다. 제주도는 삼국시대에 탐라(耽羅)라는 고대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통일신라 때부터 간섭을 받으면서 탐라의 왕후에게 성주(星主) 왕자(王子)의 봉작이 세습되어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다. 1403년(태종3), 성주제도가 폐지되어 조선시대에는 진무청으로 존속했다. 1910년 이 곳에 제주우편수급소가 생기고 1927년 제주우편국 청사가 들어섰다.

○ 영주관(瀛洲館)

- 소재지: 제주시 삼도2동 17-3번지
- 제주시 삼도2동의 제주목 관아 안에 있던 조선시대 객사 대청이다. 창건 연대는 전해지지 않으나 조선시대 지방에 세워진 객사들로 미루어 조선 전기로 추정된다. 객관의 객사 대청에는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와 궐패(闕牌)를 모시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예를 올렸고, 객관은 외국 사신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들의 숙소로도 사용되었다. 영주관은 수차례 복원을 거듭했는데, 1689년(숙종 15) 제주목사 이우항이 개건하고, 1706년(숙종 32) 제주목사 이규성의 중수를 거쳐, 1803년(순조 3)에는 판관 조정원이 중수하였다. 1900년대까지 영주관의 모습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전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 찰미헌(察眉軒)

- 소재지: 제주시 삼도2동 154번지
- 조선시대 이아동헌(二衙東軒), 곧 찰미헌은 판관이 정사를 맡아 보았던 관아였다.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810년(순조 10) 손응호 판관이 중수하고 1897년(광무 10) 김희주 군수가 중수하였다.

○ 찬주헌(贊籌軒)

- 소재지: 제주시 삼도1동 982번지 일대
- 1689년(숙종 15) 목사 이우항이 창건하여 소장대(小將臺)로 삼고 찬주헌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뒤 판관사후처(判官伺候處)로 유사시에 판관의 지휘소가 되었다. 조선시대 말에 헐리고 난 뒤 다시 복원되지 않았다.

○ 운주당(運籌堂)

- 소재지: 제주시 일도1동 1110번지 일대
- 제주시 동문시장 동남쪽 언덕에 운주당(運籌堂)이 있었다. 이곳은 유사시에 목사가 제주성을 총 지휘했던 곳이다. 1566년(명종 21) 목사 곽홀이 동성(東城)을 확장하면서 이 높은 언덕에 장대(將臺)를 축조하고 2년 뒤에 운주당을 건립하였다. 그 뒤 여러 차례 중수 보존돼 왔으나, 1892년(고종 29) 화재로 소실되자 찰리사 이규원이 재건하였다.

○ 제이각(制夷閣)

- 소재지: 제주시 이도1동 1329번지 일대
- 제주성의 남측 가장 높은 지대에 세워졌던 누각이다. 이곳에서 아래를 굽어 보면 성안은 물론 주변의 언덕과 하천, 그리고 해안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유사시에 제주성안으로 접근하는 적의 동태를 관찰하는데 좋은 곳이었다. 1599년(선조 32) 목사 성윤문이 남성(南城)을 동서로 연결하는 남수구(南水口)를 축조하고, 서남쪽 높은 언덕에 제이각(制夷閣)을 세웠다고 한다.

○ 달관대(達觀臺)

- 소재지: 제주시 건입동 1146번지
- 제주성의 명소였던 달관대는 제주동북성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다. 1736년(영조 12) 제주목사 김정이 돌에 달관대(達觀臺)라 새기고 그 위에 과녁을 설치해서 활을 쏘는 장소로 삼았던 곳으로 시인 묵객들의 휴식 조망지가 되고 시회(詩會) 주연 장소가 되었다. 이곳에는 오랜 고목과 함께 용린병(龍麟屏), 중장병(中藏屏), 호반병(虎班屏) 등 기암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바위 아래에는 감액천, 급고천 등 샘이 솟아 절경을 이루었다.

○ 결승정(決勝亭, 海山臺)

- 소재지: 제주시 건입동 1123번지 일대
- 결승정은 제주성 동서의 산저천 위, 즉 지금의 제주기상청 북쪽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군사유적이다. 1592년(선조 25) 제주목사 이경록이 왜군이 침입해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주성을 보수하면서 쾌히 전승을 다짐하고 무운을 비는 의미에서 결승정을 세웠다. 그 후 1809년(순조 9년) 제주목사 이현택이 개건하였다.

○ 영은정(泳恩亭)

- 소재지: 제주시 건입동 1192번지 일대
- 영은정은 금산 기슭 약수로 이름난 샘가에 제주바다를 굽어볼 수 있었던 곳에 세워진 정자이다. 이곳에는 맑은 샘이 솟아 흘렀는데 광대가 이 물을 마시고 병을 고쳤다고 하여 광대천이라고도 하였다. 1904년 제주목사 홍종우가 정자를 세우고, 1905년 사법(司法) 홍진국(洪鎭菊)이 「영은정기(泳恩亭記)」를 남겼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고 약수터에 자리하여 많은 시인묵객이 쉬어가던 이름난 정자였다.

○ 청풍대(淸風臺)

- 소재지: 제주시 이도1동 1463번지 일대
- 청풍대는 제주성 남문 안 서쪽에 있던 누각이다. 언제 창건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주목사 심연원이 1536년(중종 31) 명륜당을 개축한 뒤 남긴 「명륜당중수서(明倫堂重修序)」에 청풍대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전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조 초에 제주목사 김영수가 노장대(老將臺)라고 명하였다.

○ 삼천서당(三泉書堂)

- 소재지: 제주시 일도1동 1198-8
- 조선시대 제주 사학의 명문이었던 서당이다. 1736년(영조 12) 제주목사

김정이 공신정 입구에 서당을 창설하고 제주의 많은 수재들을 양성하였다. 서당의 형태는 유생을 기숙시키는 존현당(尊賢堂) 2칸, 삼읍(三邑:제주목·대정현·정의현) 자제를 기숙시키는 강당 8칸, 서민의 자제를 기숙시키는 장랑(長廊) 12칸 등 세 채로 구성되어 있었다. 삼천서당이란 명칭은 산저천(山底泉)·감액천(甘液泉)·급고천(汲古泉)의 세 하천이 흐르는 곳이라는 뜻에서 따왔다. 1843년(헌종 9)에 제주목사 이원조가 중수하여 해방 이후까지 보존돼 왔으나 1958년에 헐렸다.

○ 장수당(藏修堂)

- 소재지: 제주시 이도1동 1421-3번지
- 조선시대 향교 다음으로 오랜 전통을 지닌 학당이다. 1660년(헌종 1) 목사 이괴가 창건하여 명도암(明道菴) 김진용을 스승으로 맞아 교육을 시작하였다. 1665년(헌종 6) 굴림서원(橘林書院)이 바로 남쪽에 설립되면서 그 강당으로 계속 교육의 전당이 되었다. 1871년(고종 8) 굴림서원과 함께 훼손되었다.

○ 판서정(判書井)

- 소재지: 제주시 동문밖 옛 금강사지 내
- 충암 김정이 파놓은 우물이다. 1520년(중종 15) 8월 제주에 유배된 충암은 사람들이 빗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내팻골에 우물을 파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했다. 사람들은 그가 형조판서를 지냈으므로 이 우물을 판서정이라 부르고 그의 공덕을 기렸다. 이 판서정은 1940년 후반에 이르러 허물어졌다.

○ 을묘왜변(乙卯倭變) 터

- 소재지: 제주시 일도동 일원
- 을묘왜변 때 왜적을 물리친 전적지이다. 1555년(명종 10) 6월 27일 왜적 1천여 명이 선박 60여 척에 분승하여 화북포로 상륙하였다. 이후 3일간 제주성을 둘러싸고 제주민과 왜구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때 아군은 70인의 특공대를 편성하여 남수각에서 적을 역습하였는데

김성조·김직손·이희준·문시봉 등의 이른바 치마돌격대(馳馬突擊隊)의 공이 컸다. 이들의 분전으로 큰 전과를 올렸으며 적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퇴각하였다.

### ○ 칠성도(七星圖)

- 소재지: 제주시 칠성골 일대
- 칠성도는 칠성대(七星臺), 칠성단(七星壇) 등으로도 불렸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38, 제주목(濟州牧) 조에 “주성 안에 있다. 돌로 쌓았던 옛터가 있다. 삼성이 처음 나왔을 때 삼도를 나누어서 차지하였는데, 북두성의 형체를 모방하여 대를 쌓고 나누어 거처하였기 때문에 칠성도라고 부른다(在州城內石築遺址三姓初出分占三徒倣北斗形築臺分據之因名七星圖).” 라고 하였다. 만농 홍정표는 「탐라사에 관한 기고」에서 “칠성대는 북두칠성에 대해 봉제(奉祭)의 제단으로 삼을라의 추장이 중심이 되어 제를 지냈는데 각 부족의 번영과 나라의 융성을 기원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옛 지도 등을 보면 칠성대는 지금의 일도, 이도, 삼도동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시의 별칭이었던 칠성대촌(七星大村)은 물론 칠성로, 칠성통 등의 지명도 여기에서 유래하고 있다.

### ○ 과원(果園)

- 소재지: 제주시 일도·이도·삼도동 및 제주시 일원
- 조선시대에 감귤 및 과실의 진헌을 위해 조성, 관리되던 과수원이다. 제주 과원은 감귤류를 포함한 비자, 치자 등 과수(果樹)를 심고 과실(果實)의 진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다. 조선시대 제주 지역에 중앙 집권력의 영향이 강화되면서,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의 수취 체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1526년(중종 21)에 이수동(李壽童) 제주목사는 다섯 개의 방호소에 과원을 설치하였고, 1530년(중종 25)에는 과원이 30개소에 달하였다. 17세기 중반에는 과원이 37개소에 이르며, 18세기 전반에는 과원이 42개소로 증가하고, 19세기 중반까지 과원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54개소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원의 증설은 중앙

정부에서 요구하는 과실의 진상 액수를 충당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 탐동 동·서탑(東·西塔)

- 소재지: 제주시 일도1동 1209번지 일대
- 제주시 삼도2동, 속칭 묵은성 서북쪽에 있었던 탑이다. 원래 탑은 묵은성에서 나이 젊은 과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었다. 즉 과부가 많이 나는 것은 살기가 비친 까닭이라 하여, 이 마을 북쪽 바깥에 좌우로 돌탑을 쌓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었다고 한다. 오늘날 이곳을 탐동이라 부르고 있는데 탑을 세웠던 동네에서 비롯된 한자어이며, 원래는 ‘탐알’ 혹은 ‘탐밭’이라고 불렀다.

○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 소재지: 제주시 삼도2동 1165번지 일대
- 풍운뇌우단은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를 지내는 제단이다. 처음 주성남쪽 3리 사직단 북쪽에 있었다. 풍운뇌우제는 탐라국 시대부터 계속 행해져 왔는데, 1702년(숙종 28) 목사 이형상이 풍운뇌우단을 헐었으나, 1719년(숙종 45) 목사 정석빈이 주민의 소청을 들어 이 자리에 옮겨 세웠다. 이곳에서는 음력 2월과 8월 두 차례, 바람·구름·우레·비의 신에게 제사를 봉행했다. 풍운뇌우제는 1908년(융희 2) 7월 폐지되었다.

## 2.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6-05 조례 제 4560호

(일부개정) 2013-12-02 조례 제 4651호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지역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기지역 옛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경기도 옛길(이하 “옛길”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옛길”이란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며 지역의 개성과 장소성을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옛 선인들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길을 원형으로 하여, 도민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역사·문화·자연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경기도지사가 지정·조성한 길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p>옛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옛길은 최대한 원형길을 바탕으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li> <li>2.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li> <li>3. 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문화자원, 자연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한다.</li> <li>4.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민간단체·연구기관·기업체·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li> </ol>
제4조 (조성·관리 구간)	옛길 조성·관리 구간은 옛 선인들의 정신이 깃든 예전부터 사용하던 옛길의 관할 행정구역중 경기도내 구간을 말한다.
제5조 (옛길 관리운영 협의회)	도지사는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관할 시장·군수를 포함한 관계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 구성되는 경기도 옛길 관리·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p>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경기도 옛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옛길 안내센터 설치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li> <li>2. 역사문화유산의 계승과 생태환경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li> <li>3. 옛길의 역사문화, 생태환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li> <li>4. 그 밖에 옛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li> </ol>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p><b>제7조</b> (옛길의 조성·관리 등)</p>	<p>① 옛길은 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가 조성·관리·운영하되, 그 관리·운영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기도 옛길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경기도 옛길의 조성·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④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경기도 옛길 조성·관리·운영에 대하여 협의회 의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b>제8조</b> (관련 민간단체 지원)</p>	<p>① 도지사는 옛길의 조성·관리 및 걷기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b>제9조</b> (안내센터 관리·운영 의 위탁)</p>	<p>① 도지사는 옛길의 전문적인 통합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옛길 안내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생태환경운동과 걷는 길 사업실적이 있거나 경기도 옛길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수탁자는 옛길 안내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자체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정 시에도 또한 같다.</p>
<p><b>제10조</b> (안내센터 운영비 등)</p>	<p>수탁자는 옛길 안내센터를 자체수입으로 관리·운영하되, 도지사는 경기도 옛길의 통합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b>제11조</b> (위탁계약의 해지)</p>	<p>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옛길의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li> <li>2. 옛길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li> <li>3.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li> <li>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ol>
<p><b>제12조</b> (청문)</p>	<p>도지사는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12.2.&gt;</p>

<b>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b>	
<b>제13조 (수탁자의 의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li> <li>② 수탁자는 도지사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li> </ul>
<b>제14조 (재산의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li> <li>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옛길의 관리·운영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li> <li>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li> </ul>
<b>제15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전 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li> <li>② 수탁자는 손해보험 가입 등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12.2.&gt;</li> </ul>
<b>제16조 (지도·감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li> <li>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li> </ul>
<b>제17조 (시행규칙)</b>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4-01-14 규칙 제 3613호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옛길 관리·운영 협의회 설치)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 옛길 관리·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 기능)	<p>협의회는 경기도 옛길(이하 “옛길”이라 한다)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li> <li>2. 옛길 안내시설,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li> <li>3. 옛길 노선의 확정과 변경</li> <li>4. 옛길에 관한 대외적 협력관계 구축</li> <li>5. 그 밖에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li> </ol>
제4조 (협의회 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협의회의 의장은 경기도 옛길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옛길을 경유하는 해당 시·군의 옛길업무 담당 과장</li> <li>2. 옛길 조성·관리 및 운영 협약을 통해 참여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li> <li>3.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옛길의 관리·운영과 안내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대표</li> <li>4. 그 밖에 옛길의 관리·운영을 위해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li> <li>② 협의회 구성은 여성과 남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i> </ol>
제5조 (협의회 운영)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는 수시회의로 구분되며, 협의회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분과협의회)	<p>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옛길의 각 노선별 관계 기관 또는 단체로 분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각 분과협회의 의장은 경기도 옛길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각 분과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사항으로 본다.</p> <p>③ 그 밖에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p>
제7조 (옛길의 관리·운영 위탁 기준)	<p>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옛길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 기관 및 단체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 실적 : 1년 이상</li> <li>2. 관리·운영 전담 상근인력 : 2명 이상</li> <li>3. 본부 또는 지부 : 경기도 안에 사무소 설치</li> <li>4.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li> </ol> <p>② 경기도 옛길 관리·운영을 수탁받으려는 기관 및 단체는 2개 이상의 기관 및 단체가 협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공동수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제8조 (위탁경비 지원)	<p>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옛길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는 옛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에 한정하며,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옛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li> <li>2. 옛길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인원이 제7조제1항제2호의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인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li> </ol> <p>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탁받은 기관·단체에 귀속되는 자산의 취득이나 고가의 물품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p>
제9조 (민간단체 지원 기준)	<p>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옛길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옛길 조성비 : 도지사가 지정하여 조성하려는 옛길 사업에 참여한 민간단체가 옛길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li> <li>2. 옛길 관리비 : 경기도지사가 지정·조성한 옛길에 대하여 그 관리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관리에 소요되는</li> </ol>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p>직접적인 경비 3. 옛길 활용 프로그램 운영비 : 경기도지사가 지정·조성한 옛길을 활용하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사업비</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0조 (민간단체 지원 절차 및 방법 등)</b></p>	<p>①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제9조제3호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공개모집 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매년 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지원방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 7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하되,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p>

부칙 <2014.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구진

---

연구책임	강경희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박경훈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소장
	이윤형	제주역사문화진흥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	김보연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보조원

---

### 제주학연구 23

## 제주성 일대 옛길의 가치규명 및 보존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

발행인 || 강기춘

발행일 || 2015년 12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219 제주시 청사로1길 18-4, 1층(도남동)

전화: (064) 747-6138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www.jst.re.kr](http://www.jst.re.kr)

인쇄처 || 하나CNC출판

---

ISBN : 978-89-6010-444-0 9309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